

21 세기를 위한 이사야서 Book of Isaiah for the 21th Century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My People

저자: 김경래 Author: Kyungrae Kim, Ph.D.

펴낸 곳: 도서출판 대장간 Publisher: Daejanggan Press (Anyang, Korea)

초판일: 1998 년 8 월 25 일

* 이 책의 전체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도서출판 대장간 박기삼 사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출판된 책에 대하여는 도서출판 대장간(전화: 031-423-8440)으로 연락바랍니다.

차례 Contents

머리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제 1 장

이사야의 소명(召命): 제 6 장

재 대신 화관을: 제 2-5 장

제국들의 흥망과 임마누엘: 제 7-12 장

이방 세계의 운명: 제 13-23 장

마지막 심판과 구원: 제 24-27 장

진정한 도움, 진정한 왕: 제 28-33 장

삼키는 칼, 꽃피는 사막: 제 34-35 장

히스기야의 위기와 구원: 제 36-39 장

이사야 제 1-39 장과 제 40-66 장의 관계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 40-48 장

기쁜 소식과 고난의 종: 제 49-57 장

시온의 영광과 시온 백성: 제 58-66 장

부록 1. 분열왕국 연대기

부록 2. 시온으로 시온으로

문화와 신앙

역사를 보는 두 가지 시각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도망가는 야곱, 돌아오는 이스라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홀로 사는 민족

룻의 새 고향

이스라엘 자손의 분산과 회복

참고문헌

머리글

창조주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우리 피조계에 대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의 계획 또는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시간(=역사) 안에서 현실화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중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아모스 3:7). 이처럼 하나님의 뜻 또는 비밀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요, 이런 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부른다.

구약 성경의 여러 예언자들 가운데 이사야는 여러 면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다. 내가 애독하는 이사야서는 내게 인연이 많은 책이기도 하다.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내가 속하여 일하던 핀란드어 성경 번역 위원회에서는 내게 이사야서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주문하였다. 그 일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리하고 떠난 후에도 다시 그들의 비용으로 예루살렘에 한 달 간 가서 이사야서 연구에만 몰두해야 한 적이 있다.

1995년 전반기에는 서울의 온누리 교회를 통하여 이사야서를 가르칠 기회가 있었다. 서울의 강남 신학원에서는 한 학기 (1995년 가을학기) 이사야서를 강의한 적이 있다. 이 책의 대부분 내용은 그 무렵에 강의안으로 쓰여진 것이다. 전주 대학교 기독교학과에 와서는 이미 두 학기나 (1996년 가을학기과 1997년 봄학기) '예언서 연구'라는 이름하에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가르친 바 있다. 이제까지 내게 강의를 들었던 여러 성도들과 학생들은 내게 큰 격려와 도움이 되었다.

이 책의 부록에 나오는 "시온으로 시온으로"는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중의 하나인 '시온' 곧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것은 1992년의 어느 무렵엔가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통하여 유대인 역사의 의미를 찾아보면서 그 결과들을 조금씩 조금씩 집필해둔 것이다. 이 글을 쓴 다음 나는 혹시 나 자신이 그릇되지나 않았나 하여 얼마동안 주님께 기도하며 명상하는 일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그 무렵 예루살렘의 우리집 근처 공원에서 저녁 산책을 하던 중 우연히 만난 한 유대인 신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그에게도 나와 같은 생각이 있음을 알고는 내 글들에 대한 확증을 받을 수 있었다.

연대기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인 유진 폴스틱(Eugene Faulstich) 씨의 견해를 거의 여과없이 수용하였다. 성경 연대기 문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독특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폴스틱 씨는 이제까지 15년 남짓 자신의 전재산과 열정을 쏟아가며 성경 연대기 연구에만 몰두해온 사람이다. 내게는 개인적인 친구로서 여러 차례 의견 교환을 나눈 바 있는데, 그는 신앙과 생활 면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형제요, 특별히 유대인 선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실제 이스라엘에 거주하면서 전도한 적도 있는 실천주의자이기도 하다.

독자는 이 책의 성경 원어 (히브리어와 헬라어 및 아람어) 음역에 있어서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한글판 개역 성경의 표기와 가끔 다른 경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필자가 가급적 원음에 가까운 음역을 취하거나 (예를 들어서 '고레스' 대신 '코레쉬') 또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기법에 따르고자 (예를 들어서 '애굽' 대신 '이집트')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서는 '여호와' 대신 '야웨'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각주에 모아 놓은 성경 본문은 음역의 변경 없이 개역 성경 본문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원고를 미리 읽으시고 추천사를 써 주신 김종배 교수님, 늘 내 저술 활동을 적극 격려하시고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는 도서출판 대장간의 박기삼 선생님, 나와 더불어 모든 일에 씬과 기쁨과 아픔과 슬픔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아내 함현주, 아들 시온, 딸 시라와 더불어 이 조그만 책자를 통한 결실을 함께 누리하고자 한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1997년 10월 전주대학교 연구실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제 1 장

이사야 제 1 장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어느 때 받았는가 하는 문제는 쉽지가 않다. 글머리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시기로는 '유다 왕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를 들고 있다. 아마도 제 1 장 전체는 이사야서 전체 메시지의 서론으로 기록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 내용을 보더라도 서론으로서 적합함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사야 제 1 장은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에 대한 엄중한 책망과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간절한 호소로 이루어져 있다.

주전 8 세기(800-700 년)의 이스라엘과 유다

우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를 전후하여 유다 및 이스라엘 왕국을 중심으로 한 고대 근동의 정치 및 사회적 동향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1) 북왕국 이스라엘의 동향

여로보암 2 세(주전 800-760 년 통치; 왕하 14:23-29 참조)는 예후 왕조의 제 4 대 통치자이다. 그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은 황금기를 누렸는데, 그에 동반하는 각종 사회적 병폐는 아모스서와 호세아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때 앗시리아의 군주들은 자국의 문제들로 골치를 썩고 있어서 이스라엘에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하였다.

주전 763 년은 앗시리아의 불-사갈레(Bur-Sagale) 왕 때 일식(아모스 8:9-10 참조)이 있던 해로 아마도 이때 요나의 니스웨 예언 활동이 있었을 것이다. 주전 763-761 년 사이에 여로보암 2 세는 선지자 요나의 예언대로 북쪽의 영토를 회복한다 (왕하 14:25-27).

스가랴(주전 761-760 년; 왕하 15:8-12 참조)는 악한 왕으로서, 여섯달의 통치 후에 살해당하고 만다. 그의 죽음으로 다섯 대에 걸친 예후 왕조의 통치는 막을 내린다. 스가랴를 살해하고 왕위를 차지한 살룸(주전 761-760 년; 왕하 15:13-15 참조)은 자신도 역시 한 달 만에 므나헴에 의하여 살해되고 만다.

므나헴(주전 761-751 년 통치; 왕하 15:16-22 참조) 역시 악한 통치자였다. 주전 755 년 앗시리아 왕 불이 쳐들어오자, 므나헴은 부자들에게서 재물을 뜯어내어 그것을 앗시리아 왕에게 주어 돌아가게 한다. 이 무렵 앗시리아 세력의 신장으로 근동의 주변 소국들은 점차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의 아들 브가히야(주전 752-750 년; 왕하 15:23-26 참조) 역시 악한 왕이었다. 그는 앗시리아에 복속하여 자기 백성에게 중한 세금을 과하였으므로 백성의 원성을 사게 되었고, 결국 베가의 반역을 만나게 된다. 베가의 반역으로 2 대에 걸친 므나헴 왕조는 막을 내린다.

베가(주전 751-731 년 통치; 왕하 15:27-31 참조)의 통치 때, 남쪽의 유다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한다. 다메섹에서 다스린 르신 왕의 등장으로 아람은 다시 부상하여, 이스라엘과 손잡고 유다를 위협하여 반(反)앗시리아 동맹에 참여케 하려고 하였다. 공포에 질린 유다의 아하스는 이사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앗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3 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에 앗시리아 왕은 서쪽으로 진격하여 유다와 암몬과 에돔과 모압에게 조공을 부과하고,

이스라엘의 갈릴리와 길르앗을 점령하여 백성을 사로잡아 간다 (주전 734-732 년). 다메섹은 주전 732 년에 완전히 함락되고 만다. 베가 역시 호세아의 반역의 칼에 최후를 마친다.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마태 26:52)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년의 대부분 이스라엘 왕들은 칼로 나라를 취하고 자기 또한 반역의 칼에 맞아 죽었다.

북 왕국 이스라엘의 최후 통치자 호세아는 주전 732-723 사이에 재위하였다 (왕하 17:1-41 참조). 주전 727 년 앗시리아 왕 살만에셀이 침공하자, 호세아는 그에게 신복하고 조공을 바친다. 얼마가 지나서 호세아는 이집트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내통하고는, 앗시리아를 배반하여 그에게 더 이상 조공을 보내지 않는다. 호세아의 반역은 앗시리아 왕의 진노를 불러 일으켜 결국은 북 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하고 만다 (주전 723 년). 이 일을 역사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호세아 구년에 앗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앗시리아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야웨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야웨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왕하 17:6-8).

2) 남왕국 유다의 동향

웃시야, 요담, 아하스 시대는 바로 뒤따르는 장들에서 살펴볼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 통치 연대와 참고 구절만을 밝히고자 한다: 웃시야=아사랴 (주전 800-748 년, 왕하 15:1-7; 대하 26:1-23); 요담 (주전 759-743 년, 왕하 15:32-36; 대하 27:1-9); 아하스 (주전 744-728 년, 왕하 16:1-20; 대하 28:1-27). 그 다음 왕인 히스기야는 주전 729-699 년 사이에 통치하였다. 히스기야에 대하여도 역시 뒤에 가서 자세히 다룰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에 대한 소개를 생략하고자 한다. 다만 그의 재위 기간 중 앗시리아의 침입으로 큰 곤경에 빠졌다는 사실만을 여기서 밝히는 바이다.

이들 네 왕이 다스리는 동안 남 왕국 유다 역시 동시대의 북 왕국 이스라엘과 거의 비슷한 운명을 맞는다. 웃시야와 요담의 통치 기간을 통하여 유다는 대외적으로 진출하여 경제적 번영을 누렸으나, 백성의 종교 및 도덕적 수준은 점점 하락하고 있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재위 기간 중 유다는 앗시리아의 대외 진출에 밀려 점점 궁세에 몰리게 된다. 이때 북왕국은 멸망하고, 남 왕국 유다는 거의 멸망의 위기에까지 이르게 되나 간신히 구원을 받는다. 백성의 타락은 이때도 여전하였다.

유다는 히스기야 이후 약 110 년을 더 견디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참고적으로 이 기간 중에 유다를 다스린 왕들은 다음과 같다: 므낫세 (주전 699-644 년), 아몬 (주전 644-642 년), 요시야 (주전 642-610 년), 여호아하스 (주전 610 년), 여호야김 (주전 610-599 년), 여호야긴 (주전 599-598 년), 시드기야 (주전 598-588 년).

예고된 운명 속에 사는 백성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오래 전부터 예고되어 왔다. 야곱 곧 이스라엘이 자기 후손의 장래 일을 미리 말하였고 (창세기 49 장), 이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율법)을 전해준 모세도 지금으로부터 약 3400 여년 전에 이 민족의 운명을 노래로 적어 당시의 백성들에게 읽어 들려주었다. '들으라 노래'라고도 불리는 이 노래는 신명기 32 장에 기록되어 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 지어다. 그들이 야웨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이야웨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찌매 밭로 찻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의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야웨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격노케한 연고로다 (신명기 32:1-19).

이사야 제 1 장에 기록된 말씀은 형식으로 보나, 표현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신명기 32 장의 예언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신명기 32 장의 '들으라 노래'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종 역사를 예언한 것으로서, 이사야 뿐만 아니라 역대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메시지 안에도 반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지런히 그것을 고찰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그 마지막까지도 예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사야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 (신명기 32:1; 4:26; 30:19; 31:28; 시편 50:4 참조) '야웨를 거스리는 백성'을 고발한다 (이사야 1:2). 자기를 기르고 키워 주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미천한 동물 세계에서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한다 (이사야 1:2-3).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한 마디로 요약해주고 있다. 이 죄는 다시 몇 가지로 열거되고 (3-4 절), 상처 투성이의 인간으로 비유되었으며 (5-6 절), 더 나아가서 그 죄에 대한 댓가로서 당대의 시대적 형벌이 묘사되어 있다 (7-9 절).

이 마지막 부분(이사야 1:7-9)은 유다의 거의 전 국토가 이방인에 의하여 삼키우고, 수도 예루살렘만 겨우 남아 위기에 처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장래 일에 대한 예언이라기 보다는 이사야 당시의 역사적 현실을 기술하는 말씀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때의 일인가? 히스기야 재위 14 년, 곧 주전 715 년에 예루살렘과 유다는 앗시리아 왕 산헤립의 침공을 받아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왕하 18:13-27). 히스기야의 부친 아하스 때에도 유다는 주변 국가들(아람, 이스라엘, 블레셋, 에돔)의 공격을 받아, 오직 예루살렘만이 남아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에 간신히 대항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이사야 7:1; 왕하 16:5-6; 대하 28:5-21). 유다 왕 히스기야는 그 부친 아하스와는 달리 하나님을 섬긴 경건한 왕이었다. 게다가 히스기야 제 14 년 때의 위기는 이사야 36-37 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사야 1:7-9 의 묘사는 아하스 때의 일이 아닌가 한다.

7 절에 "과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낱말 '마흐페카'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모두 6 회 나오는데, 항상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연관되어 사용되었다 (신명기 29:23; 이사야 13:19; 예레미야 49:18; 50:40; 아모스 4:11). 그만큼 당시 유다의 위기는 심각한 문제였었다. 그나마 예루살렘이라도 남아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면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스라엘의 헤브론 산지와 예루살렘 산지,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의 포도밭 안에는 밭에서 골라낸 돌로 쌓아 만든 노천 막사들이 흔히 눈에 띈다. 이들 돌막사들의 위에는 보통 지붕과 벽을 나무가지나 속아쳐낸 포도 나무 가지로 덮은 초막이 세워져 있다. 농사철 특히 포도를 따는 시기에는 때때로 온 가족이 초막으로 옮겨와 거주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초막은 완전히 집의 역할을 대행하게 된다. 포도가 익어가는 철에 포도원을 지키는 일은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니다. 보다 효과적인 감시를 위하여 포도원 지키는 높은 지점을 필요로 한다. 성경 시대에는 노천 막사 위의 초막이 이러한 감시장소로 사용되었다. 이사야 5 장의 포도원 비유에서 이것은 '망대'라고 불렸다. 포도 수확을 마침과 더불어 포도원에서는 농부들이 떠나고, 포도 나무 가지에서는 그 잎들이 떨어져서 포도원과 그 안에 우뚝 서 있는 초막은 황량한 모습으로 남게 된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광경을 비유로 하여 유다의 재난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초막 같이, 원두밭의 막사 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사야 1:8).

위선적이고 생명 없는 종교 활동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을 거역한 이 백성을 아예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과 동일시한다. 그리고는 처음 (2 절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시 '들으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하면서 (이사야 1:10) 이 민족을 책망한다. 이사야 1:10-15 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되었다. 이들의 죄악은 한 마디로, 종교인으로서의 각종 종교 행사나 활동에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한 인간으로서 동료 인간과의 관계를 선과 의로 맺지 아니하고 악과 불의로 맺고 있다는 점이다.

화목제, 번제, 소제 등 각종 예물이나 절기 및 기도 등 종교적 활동 내지 행위는 모두가 하나님이 요구하셨고 또 원하시는 것들이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명하신 목적은 택하신 백성을 믿지 않는 이방인과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함이었다 (레위기 19:2). 그러나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표면적인 종교 활동에만 지나치게 열심을 내는 나머지 결국 그 목적을 상실한 채 위선적인 종교인으로 타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타락이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던 것이다.

열성적인 교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여기 본문에서 보는대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도 있다. 하나님은 악인이나 또는 선을 행치 않는 자의 열성적인 종교 활동을 축복하기는 커녕 오히려 저주하신다. 그분은 위선적이고 생명 없는 종교 활동 보다는 차라리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가슴', '겸손히 순종하는 손과 발'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 (삼상 15:22-23 ; 잠언 15:8; 21:27; 28:9; 전도서 5:1 참조).

12 절의 '야웨 앞에 보이러 온다'는 표현은 본래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세 차례 있는 큰 명절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할 경우 사용되다가 (출애굽기 23:14-17; 34:23; 신명기 16:16), 점차 예배를 위한 일반적인 성전 방문에까지 사용되었다 (시편 42:3; 84:7).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는 것을 피하고자 고의로 수동형 동사로 바꾸었는데, 그 이유인즉 하나님을 보는 자마다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들 위선적인 종교인들에게 먼저 악을 제하고 의로운 행실을 보이라고 말씀하신다 (이사야 1:16-17).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태 5:23-24)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 이사야 본문의 말씀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위선적인 종교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피할 수는 없다. 야웨 하나님은 더러운 속을 그럴듯한 껍데기로 위장한 이 백성을 향하여 간곡히 권면하신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 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이사야 1:18).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에 순순히 응하는 자에게는 '땅의 좋은 소산을 먹는' 복이 임하겠지만, 거절하여 거스리는 자는 자신이 '칼에게 먹히는' 화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1:19-20).

쓰라린 정화(淨化) 작업을 통한 회복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절, 예루살렘은 '신실하고, 그 안에 공평과 의리가 충만하던' 성읍이었다 (이사야 1:21).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때의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성전을 여러가지 말로 찬양하였다. 그중에 하나 잘 알려진 노래를 들어보기로 하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야웨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야웨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봉우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야웨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시편 122:1-9).

이처럼 아름답던 성읍에 야웨의 전은 여전히 서 있고 그 안에서의 종교 활동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주민들의 도덕 상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낳은 사랑하는 친자식도 때로는 원수처럼 미워지는 일이 있듯이, 하나님은 이들을 가리켜 '원수'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한 보복을 선언하신다 (이사야 1:24). 그러나 이 '보복'은 '원수'를 멸하기 위한 재앙이 아니라, 사실상 자식의 잘못을 고쳐서 좋은 자식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매질'이요, 마치 광석에서 불순물을 제하고 순 금속만을 얻어내는 용광로의 제련 작업과도 같은 것이다 (이사야 1:25-26).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본래 택하신 목적대로 회복시키신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오늘날의 유대인이든, 이들 택한 백성에게 있어서 타락과 심판과 구원이라는 역사적 고리는 수없이 자주 지속되어 왔다. 메시아 예수께서 지상에 오신지 약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과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직도 자기들의 왕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음을 본다. 그들이 이제까지 보여준 '역사의 고리'를 통해서 보건대, 그들은 반드시 쓰라린 정화 작업을 거쳐 다시 깨끗한 백성으로 나오게 될 날이 있다. 그러나 이 정화 작업에서 제거되어야만 하는 '찌꺼기'가 있는데, 이는 바로 살아계신 야웨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모든 이들인 것이다 (이사야 1:27-31).

반역과 심판 후에 있을 이 백성의 마지막 구원에 대하여는 이미 오래 전에 '들으라 노래'에서 모세도 언급한 바 있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 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신명기 32:43).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맺은 언약은 영원한 것이기에, 결코 이 언약을 폐하지 못하시는 것이다. 모세는 이 언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야웨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야웨니라 (레위기 26:42-45).

그러므로 이사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 미가도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눈물겨운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미가 7:18-20).

이사야의 소명(召命): 제 6 장

창조주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우리 피조계에 대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의 계획 또는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시간(역사) 안에서 현실화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중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아모스 3:7). 이처럼 하나님의 뜻 또는 비밀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요, 이런 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부른다.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은 아주 장엄하고 진지하다. 그는 만군의 주 야웨로부터 당대에 뿐만 아니라 오늘을 거쳐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도 유효한, 아주 엄청난 메시지를 받았다. 이제 그가 받은 메시지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의 소명에 관하여 자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다왕 웃시야

때는 유다 왕국의 웃시야 왕이 죽던 해, 다시 말해서 웃시야 왕이 아직 살아 있던 마지막 해였다. 이때가 바로 주전 748 년이다. 아사라라고도 불리는 웃시야는 십육세에 왕위에 올라, 주전 800 년에서 748 년에 이르기까지 52 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였다. 그러나 주전 759 년에 그가 문둥병에 걸리고, 그때부터 그의 아들 요담이 대리 통치하였으므로 웃시야의 실제 통치 기간은 약 41 년 가량이라고 볼 수 있다.

웃시야는 야웨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스가랴(스가랴서의 스가랴와는 다르다)라는 선지자의 교도를 받아 하나님을 구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데 전심전력하였다. 그 댓가로 하나님은 그의 길을 형통케 하셨다. 우선 웃시야는 유다의 남쪽 네겟 광야를 지나 남단의 엘롯을 요새화하고 그곳을 유다에 귀속시켰다. 엘롯은 비록 광야 끝에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홍해 변에 위치한 항구로서 남국의 대상들이 반드시 통과하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대하 26:1-5).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자손이 통과한 지점중의 하나이기도 한 (민수기 33:35-36; 신명기 2:8) 엘롯은 에시온게벨이라고도 하고 엘랏이라고도 한다. 솔로몬 왕(주전 986-945 년 통치)은 이곳을 오빌과 아라비아로 출항하는 홍해 무역 선단의 거점으로 삼았다 (왕상 9:26-28; 대하 8:17-18). 모든 나라나 도시가 그러하듯이 엘롯 또한 그후 유다 왕국의 국운을 따라 사양길을 지나다가, 마침내 100 년쯤 지나 여호사밧(주전 886-862 년 통치)에 의하여 다시 주목을 받는다. 그는 북쪽의 이스라엘 왕과 협력하여 과거 솔로몬의 영화를 흥내내어 무역 선박들을 건조하여 에시온게벨에 배치한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결국 배들이 부서짐으로써 막을 내리고 만다 (왕상 22:48; 대하 20:36-37).

유다왕 여호람(주전 863-856 년 통치) 때 남동쪽에 위치한 에돔이 반역하여 유다의 지배를 벗어나고는 (왕하 8:20-22) 엘롯을 점거한다. 그러다가 약 60 년이 흐른 뒤 엘롯은 다시 웃시야에 의하여 유다로 귀속된 것이다. 이 일만 두고 보더라도, 웃시야는 유다를 강한 나라로 구축하였었음에 틀림없다.

이 일 이후 웃시야 시대의 번영과 평화에 대하여 역대기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대하 26:6-15).

웃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브네성과 아스돗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이 웃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웃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이집트 변방까지 퍼졌더라.

웃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이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웃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영장 마아세야의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장관 하나냐의 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이천 육백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 수하의 군대가 삼십만 칠천 오백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 웃시야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발하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더라.

누구든지 형통할 때 기뻐하며 (전도서 7:14)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겸손하게 처신한다면, 그는 만인의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조물주 또한 그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웃시야는 자기의 국운이 밝게 펼쳐지는 것을 보고는, 방자하게도 하나님의 종들, 곧 아론 집안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까지도 넘보게 되었다. 자기의 번영과 그에 따른 위세를 믿고 그는 감히 야웨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고자 하였다. 웃시야의 거만한 행위에 하나님은 잠잠코 계시지 않았다. 웃시야를 문둥병으로 치신 것이다. 바로 주전 759년의 일이었다. 이 일은 성경의 역대하 26:16-21에 기록되어 있다. 주후 제 1세기의 유대인 요세푸스 역시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웃시야 왕 때의 지진도 (아모스 1:1; 스가랴 14:5) 이때 일어났다고 전해주고 있다 (요세푸스의 유대인 고대사 9권 10장 4절). 그 내용을 여기 옮기고자 한다.

그는 곧 사라져 버리고 말 것들을 풍부히 가진 일로 인하여 교만에 빠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는 영원히 지속되는 능력(이 힘은 하나님께 대한 경건함과 그의 율법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을 무시하였다.....절기가 다가오자 웃시야는 거룩한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금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하였다. 대제사장 아사랴는 80명의 제사장을 거느리고 웃시야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아론의 후손 외에는 그 누구도 분향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고 성전 밖으로 나가라고 아우성을 치자 웃시야 왕은 화를 버럭 내면서 조용히 하지 않으면 그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그러는 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성전에 틈이 갈라지고 밝은 태양 광선이 그 사이로 들어와 왕의 얼굴을 덮쳤다. 즉시 그에게 문둥병이 발하기 시작했으며, 성 앞 엔로겔이라 불리는 곳에서는 산이 반쪽이 나서 서쪽 산이 4 펠롱(대략 800미터 가량)을 움직여 동쪽 산 있는 곳에 서게 되니 왕의 정원과 도로들이 심하게 망가졌다.

이사야의 초기 활동과 전환점

성경은 말하기를 (대하 26:22), "웃시야의 시종 행적을 아모쯔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다"고 한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에 살며 비교적 쉽게 왕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신분의 사람이었던 듯 하다. 한 평범한 시민으로서 그는 자기 나라의 번영과 그에 따른 왕의 오만함과 백성들의 타락한 생활상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충절 때문에 분노와 비탄에 잠겼을 것이다. 젊고 유능한 역사가로서 그는 비록 웃시야의 행적에 대한 회고적 역사는 기록하였으나, 아마도 아직 왕과 백성의 죄를 꾸짖는 포문은 열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이사야는 생의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된다. 이 일은 이사야 자신의 내적 각성이나 결의에 의한 것도 아니요, 주위 사람들이나 환경의 자극에 의한 것도 아니었다. 이 일은 전적으로 '이사야가 섬기는 만왕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신 야웨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 일은 공교롭게도 한때 유다의 번영과 영화를 상징했던 웃시야 시대의 막을 내리기 일보 직전, 곧 유다왕 웃시야가 죽던 해에 발생하였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인간의 번영과 그에 따른 온갖 향락, 부패, 그리고 죄악이 피어나면서 서서히 그막을 연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점에 자기의 새로운 계획을 알리고자, 자기 백성의 죄악으로 마음 아파하는 이사야를 부르신 것이다.

야웨의 영광 앞에서

그분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다. 그의 겹옷 옷자락은 하늘 성전을 가득 채울 정도였다. 앉아계신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다.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여섯씩 가지고 있었는데, 둘로는 그분의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그분의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들은 큰 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찬미하는 말로 서로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야웨시여!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도다." 우렁찬 노랫소리로 문지방 터가 흔들리고 하늘 성전은 연기로 가득찼다.

이사야는 잠들어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분명히 멀쩡하게 깨어 있었다.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열어 우리 인간이 보통은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게 하신 것이었다. 이로부터 약 800여년이 지나서, 예수님의 열 두 제자 중의 하나인 요한은 밧모 섬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로 올라가서 이런 모습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계시록 4:1-2). "세째 하늘, 곧 낙원에 이끌려 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을" 경험이 있다고 시사한 사도 바울 역시 어찌면 이런 경험을 하였는지도 모른다 (고후 12:1-4).

이사야는 그가 본 장엄한 모습을 영원히 잊지 못하였다. 그가 기록한 이사야서를 보면, 이 사건이 그에게 얼마나 깊은 인상을 심었주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사야는 그가 남긴 책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였는데, 틀림없이 이때 들은 스랍들의 찬미 소리가 그의 마음에 깊숙히 박혔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적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에 31 회 나오는데, 그중에 이사야서에만 총 25 회 출현한다 (1:4; 5:19,24; 10:20; 12:6; 17:7; 29:19; 30:11, 12, 15; 31:1; 37:23; 41:14, 16, 20; 43:3, 14; 45:11; 47:4; 48:17; 49:7; 54:5; 55:5; 60:9, 14). 나머지 6 회의 경우는 시편 71:22; 78:41; 89:19; 렘 50:29; 51:5; 왕하 19:22 이다. '야곱의 거룩한 자'(29:23)와 '그(이스라엘)의 거룩한

자'(10:17; 49:7), 그리고 '너희들의 거룩한 자'(43:15)를 포함하면 이사야서에 나타난 횃수는 총 29 회로 늘어난다.

이 놀랍고 위엄스런 광경에 이사야는 언어를 잃었다. 겨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인간의 언어를 부정하는 발언이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야웨이신 왕을 뵈었음으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자고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대면한 사람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시내산의 한 불붙는 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야웨를 목격한 모세는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출애굽기 3:6). "이집트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던" 모세도 (사도행전 7:22) 이때 만은 야웨께 고하기를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언어를 부정하였다 (출애굽기 4:10).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 예레미야 역시 자기의 언어를 부정하면서 "슬프도소이다. 주 야웨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줄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고백하였다 (예레미야 1:6). 한편 한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런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을 목격한 베드로는 '심히 무서워하여 무슨 말을 할는지 알지 못하여',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종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라고 정신없는 말을 내뱉었다.

제단 숯불로 입술을 지지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 6:6-7).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스랍'이라는 이름은 이사야 6 장에만 등장한다. 아마도 스랍은 에스겔과 사도 요한이 목격한 '네 생물'(에스겔 1:5-25; 계시록 4:6-9)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일종의 '하늘의 천사'일 것이다. 에스겔은 다른 곳에서 이 네 생물을 '그룹'이라고 부르고 있다 (에스겔 10:1-22).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는 분"이시라고 묘사한다 (시편 104:4). 그리고 에스겔이 본 "생물 곧 그룹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난다"고 하였다 (에스겔 1:13).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읍 위에 흩뿌린 진노의 불은 "그룹들 사이에 있는 숯불"이었다 (에스겔 10:2,6,7).

재미있는 것은 '스랍'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르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동사 '사라프'와 동일한 어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에스겔이 본 그룹 사이에 있는 숯불이 하나님의 심판을 땅에 내리는 '진노의 불'이라면, 이사야가 목격한 스랍이 가져온 숯불은 사람의 죄와 악을 사하는 '사랑과 용서의 불'이라고 하겠다.

예레미야는 이사야와 비슷한 경험을 하였다. 하나님은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예레미야를 향하여 '그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시며'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고 하셨다 (예레미야 1:9). 다니엘 또한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그의 입술을 만졌다'고 하였다 (다니엘 10:16).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담기에는 너무나 순결하고 고귀하고 놀라운 것이기에, 하나님은 자기 선지자들을 불러 보내시기에 앞서 먼저 그들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 인간의 언어는 부인당하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언어로만 무장하는 것이다.

베드로는 동일한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식'을 고백하여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다가,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말을 입밖에 꺼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는 책망을 들은 사람이다 (마태 16:16-23). 이러한 쓰라린 경험이 베드로로 하여금 먼 훗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같이 하라"고 권면하게끔 한 것 같다 (벧전 4:11).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사야의 응답

제단 숯불이 이사야의 입술에 닿기 전까지 이사야는 야웨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 다만 스랍들에 둘러 그의 모습을 보고 스랍들의 찬미 소리만 들었을 뿐이다. 이제 야웨께서 직접 이사야를 부르신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은 땅 위에 당신의 영광을 가득 채우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분과 더불어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간절히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애가 타는 듯한 하나님의 부르심, 물론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를 택하셨고, 그가 긍정적으로 대답할 것도 아신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소명'의 개념을 즐겨 사용하는 듯 하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편만하다.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성경 문구가 바로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께 대답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이다. 이런 고백이 있기까지의 상황 배경은 별로 고려하지도 않는다.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지도 못하였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앞에서 자신의 더럽고 누추한 모습을 비춰보지도 못하였고, 그분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부르심을 받은 바도 없는 많은 이들이 너무나 쉽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치면서 자원하는 것이다.

물론 반드시 이사야나 예레미야, 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경험한 바와 같은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과의 기본 관계가 성립된 사람, 삶을 통하여 어떤 종류의 경험이든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분을 올바르게 아는 사람이라면 단순한 감정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자원적인 고백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나는 이런 예를 성경을 통해서 아는 바가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하나같이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던 것을 볼 수 있다. 베드로는 처음에 자기 형제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요한 1:40-42). 어느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 무리를 가르치신 후, 베드로더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다. 이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고 이러한 일을 목격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외감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이때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불러 말씀하시기를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신 것이다 (누가 5:1-11).

이사야가 전할 메시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의 일이다. 마침내 다윗을 따르는 무리와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의 대접전이 벌어진다. 다윗은 출전하는 장수들에게 자기를 생각하여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압살롬의 자랑스런 머리카락이 나무가지에 걸리어 결국 압살롬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 요압은 자기 왕의 부탁을 무시한 것이다. 전쟁이 끝나고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의 죽음에 대하여 전혀 모른 채, 아무쪼록 자기도 이 희소식을 다윗에게 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압에게 간청한다. 그러나 요압은, 압살롬을 죽인 일로 결코 다윗 왕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미 미친한 구스 사람을 전령으로 보냈고, "이 소식으로는 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며 자기가 아끼는 아히마아스를 말린다 (삼하 18:1-23).

어떤 소식은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수확하는 날의 열음'과도 같겠지만 (잠언 25:13), 어떤 소식은 듣는 사람의 애간장을 태우고 마침내는 그를 죽음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진위 여부와는 아랑곳없이 듣는 사람의 귀를 간질이는 달콤한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듣는 사람을 두렵게 하고 그의 분노를 살 수도 있는 '충직한 메시지'도 있다. 압살롬의 죽음에 관한 소식은 다윗왕의 분노를 살 수도 있는 메시지였다. 그래서 요압은 이 일로 아히마아스를 아끼고 대신 천한 구스 사람을 보낸 것이다.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의 멸망에 관한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다. 그가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가 받은 것은 불신과 비난과 옥살이 등 온갖 고난이었다. 사랑하는 자기 민족의 멸망을 외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그렇게되면 살륙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곡읍하리로다"고 (예레미야 9:1) 호소하였겠는가. 누가 이와 같은 메시지를 원하겠는가? 이 얼마나 슬픈 사명인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역시 자기 백성에 대한 일종의 저주였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라. 그러나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 귀를 무겁게 하고, 그 눈을 덮으라. 그리하여 그들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그 귀로는 듣지 못하고, 그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이라고 부르신다.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을 가리켜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고 불렀었다.

만일 우리가 전할 메시지가 이러한 내용이라면, 아마도 위에서 말한 바 자원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줄행랑을 칠지도 모른다. 선지자는 전할 메시지의 내용을 자기가 알아서 정하지 못한다. 자기의 생각에서 나오는 대로 메시지를 외치는 자는 거짓 선지자이다. 듣는 대상만을

의식하여 그들의 귀를 부지런히 간질여주기만 하는 이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 돈을 받으면 단 말을, 못받으면 쓴 말을 뱉는 이 역시 사기꾼이다.

택함받은 백성의 참혹한 운명

이사야는 이처럼 예기치 못한 메시지를 듣고는 자기가 속한 민족을 위하여 걱정스런 마음으로,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묻는다. 이때 하나님의 대답은 가혹할 정도로 단호하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야웨께서 사람들을 멀리로 옮기고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바 될 것이나, 엘라 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비교적 짧고 간단한 대답 같지만, 그 내용은 택함받은 백성 곧,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의 끝까지 겪어야 할 운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눈 멀고, 귀 먹고, 또 둔한 마음을 소유한 자와도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듣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이처럼 둔해진 마음은 단시일 내에 밝아지지 아니할 것이다. 도시들이 다 폐허가 되고, 주민들은 도망하거나 죽임을 당하고, 집들은 주인을 잃고, 토지는 황무케 되며, 백성들이 먼 곳으로 포로되어 끌려가서 이스라엘 땅이 거의 초토화되기까지 이 민족의 이런 비극적 무지(無知)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이 민족의 대부분이 망하고, 그중 십분의 일만 남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파멸에 이를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중 대략 열 지파가 연합하여 시작한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3 년에 국가로서의 생명이 끊기었다. 유다 지파를 주축으로 하고 거기에 베냐민 지파가 합류한 유다 왕국은 주후 588 년에 망하였다. 그후 페르시아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코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지에서 고토로 돌아온다. 이때 유다 지파가 중심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자연스럽게 '유대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하였다.

주전 6 세기 곧 페르시아 시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의 역사를 살펴보면 피로 물든 파란만장한 민족사를 보게 된다. 헬라 나라, 로마, 비잔틴 세력, 아랍 국가들, 십자군, 다시 아랍 세력, 터키 사람, 그리고 영국으로 이어지기까지 이스라엘 땅은 끊임없이 이방인의 발에 짓밟혀 왔다. 그동안 유대인, 곧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은 수없이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 당하였다.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바 될 것이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유대인의 민족사적 비극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준다. 그뿐인가. 유대인은 심지어 문명화와 과학화를 자랑하는 20 세기에 들어와서도 히틀러와 그를 추종하는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하여 단시일 내에 600 만이라는 대인구를 잃었다. 그것도 우리가 다 아는대로, 너무나 처참한 방법으로. 이것이 택함받은 백성의 운명이었다면 본디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우리는 절대자의 냉혹한(?) 일처리 방법 앞에서 그만 입을 다물게 될 뿐이다.

유대인 자신들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이방인들도 '택함받은 백성' 곧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가혹한 취급에 대하여 의아해 하면서, 혹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혹자는 그 해답을

찾고자 고민하기도 한다. 그러나 불행한 사실은 이 일로 박수를 보내는 일부 이방인도 있다는 점이다.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에 대한 이제까지의 가혹한 처사 때문에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고 원대한 계획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엘라 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사야는 "남은 자"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4:3; 6:13; 10:20-23; 37:32). 하나님은 반드시 과거에 택한 백성 이스라엘, 곧 오늘의 유대인을 다시 부흥시키신다. 그러나 오직 남은 자만이 이 영광에 들어올 것이다. 유대인이 이제까지 비록 오랫동안 그들의 왕 메시아 예수를 부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언젠가 그들은 반드시 자기들의 왕 예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하여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것이다. 그들은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울 것이다" (이사야 27:6).

지금으로부터 약 1900 여년 전 바울 사도는 이상 언급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보면서,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라는 말로써 자기 민족 곧 유대인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밝히고 있다 (로마서 11:12).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약속은 절대자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며, 그의 종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이기에 반드시 우리 인간의 어느 시간(역사) 안에서 성취될 대대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재 대신 화관을: 제 2-5 장

야웨 하나님은 택한 백성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는가?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향하여 품으신 불만은 무엇이며, 그분은 그 불만을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이사야 제 2-5 장은 아마도 웃시야와 그의 아들 요담이 유다를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당신 백성을 향하여 품으신 불만과 그에 따른 심판, 그리고 장차 있을 이스라엘의 참된 영광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마치 '책망과 심판'이라는 침침한 그늘이 이사야 제 2-5 장에 점철되어 있는 듯 하지만, 실상 이 부분은 그 맨 처음(2:2-4)에 희망과 위로를 가득 담은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중간 부분(4:2-6)에서도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표시라도 하듯이, 다시 메시아와 관련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준다.

유다왕 요담

먼저 시대 배경을 살펴보기로 하자. 주전 759년, 그의 부친 웃시야가 문둥병에 걸려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게 되자, 요담은 나이 이십 오세에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하여, 주전 743년에 죽기까지 16년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그의 부친 웃시야가 주전 748년에 죽었으니, 그는 약 5년간만을 홀로 다스린 셈이다. 요담은 대체로, 그의 부친처럼 '야웨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의 부친이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다 당한 일(지진과 문둥병)은 요담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그는 평생에 '야웨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여전히 사악을 행하였다. 웃시야 왕 때의 국가적 번영과 더불어 이미 시작된 이 종교 및 도덕적 부패는 점점 더 강한 힘으로 사회 전체에 침투해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였다.

요담은 부친을 이어 국력 강화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는 야웨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성전이 위치한 모리아 산(대하 3:1)의 남쪽 비탈에 땅을 돋우어 만든 오펠 지역 안에 (대하 33:14) 집을 많이 건축하였다. 오펠 지역 역시 '시온 산성'이라고도 불리는 '다윗 성'과 성전이 위치한 모리아 산과 더불어 견고한 성벽에 둘러싸여 있었다. 예루살렘의 이 세 지역을 두르는 성벽은, 이미 웃시야가 망대들을 건축하여 견고히 구축하였었다 (대하 26:9).

요담은 이처럼 성전과 예루살렘을 견고히 하는 일 외에도, 유다 산지에 사는 주민들을 위하여 유다 산중에 성읍을 건축하며 수풀 가운데 견고한 영채와 망대를 건축하여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요담은 암몬 왕과 싸워 이겨 다시 암몬 자손으로부터 3년 동안 조공을 받아냈다. 본래 웃시야에게 조공을 바쳤던 암몬 자손은 아마도 주전 748년에 웃시야가 죽자 유다를 반역하고 조공 관계를 청산했던 것 같다. 이에 요담은 신속히 그들을 공격하여 다시 조공을 받아낸 것이다. 그러나 요담의 죽음에 즈음하여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를 침입하기 시작하자, 암몬 자손은 이 기회를 틈타 다시 유다의 멍에를 벗어난 것이다 (이상 왕하 15:32-36; 대하 27:1-9 참조).

국가적 번영이 반드시 그 나라의 영적 수준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도, 영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반드시 그의 건강이나 경제 및 사회적 상황 등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유다 왕국은 웃시야와 요담의 통치기에 어느 정도 국가적 황금기를 맞이하였다. 주변 나라들을 복속시켜 조공을 받아내고, 대상 무역의 거점을 확보하여 국고 수입을 늘렸다. 내부적으로는 수도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요새화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 산지의 주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농업 활동을 육성해주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번영기에 살았던 유다 백성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악을 행하는 백성'으로 나타났다 (대하 27:2). 바로 이 무렵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하여 그들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꾸짖으며,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며, 그러면서도 장차 있을 회복과 영광에 대하여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미가와 이사야 같은 이들이다.

미래의 영광에 대한 약속

이사야 제 2-5 장에 기록된 메시지는 웃시야와 요담이 통치하던 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을 겨냥하고 있는 것 같다. 그는 앞서 언급한 대로 외적 부유는 모두 갖추었으나 창조주 하나님은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세대를 향하여 책망과 경고의 맹렬한 포문을 연다. 그러나 기이한 것은, 그러한 이사야의 메시지가 책망이나 경고 보다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시작된다는 점이다 (이사야 2:2-4).

말일에 야웨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웨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웨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는 아마도 이 아름다운 메시지를 동시대의 선지자 미가(4:1-5)로부터도 들었을 것이다. 이사야는 이제 자기 민족의 죄악과 그에 따른 형벌을 말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들이 너무 저상(沮喪)할까봐, 먼저 마지막 날에 임할 예루살렘의 영광을 그들에게 전해준다.

'말일'은 히브리어 '아하리트 하야밈'을 번역한 것이다. 이 히브리어 표현은 구약 성경에 모두 13 회 나타난다 (창 49:1; 민 24:14; 신 4:30; 31:29; 사 2:2; 렘 23:20; 30:24; 48:47; 49:39; 겔 38:16; 단 10:14; 호 3:5; 미 4:1). 이 표현은 말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멀리 떨어진 시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는 미 4:1; 신 4:30; 31:29; 렘 23:20; 30:24; 겔 38:16; 단 10:14; 호 3:5 에서 사용된 것처럼, 그 문자적 의미 그대로의 '마지막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아하리트 하야밈'은 메시아되신 예수님의 초림에서 시작하여 역사의 종말까지 계속된다고 볼 수 있다 (히브리서 1:2; 벧전 1:20 참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하셨다 (요한 4:22). 과연 메시아 예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거기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처음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요, 복음을 기록하고 전하기 시작한 이들 또한 거의 모두 유대인들이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이다. 시날 평지의 바벨이 세계 모든 종족 분산의 출발점이었다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성령 강림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모이는 하나의 '통로적 출발점'이라고 하겠다.

미가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이 메시지를 외치던 주전 8세기, 지구상에는 '야곱의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극소수였다. 이방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를 믿지 아니하고 거절하던 그 때에 이러한 메시지는 과연 얼마나 호소력이 있었을까? 아마도 많은 유대 백성들은 "말도 되지 않는다"면서 이들 선지자들을 비웃고 배척하였을 것이다. 아니, 사실 그러하였다.

시내산에서 선포된 율법은 한 민족 이스라엘을 지상의 모든 종족으로부터 구별하였다. 그 날 시내산에는,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장엄한 장면이 펼쳐졌었다 (출애굽기 19장). 그러나 시내산의 영광도 시온 곧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에는 비할 바가 되지 못하였다 (갈라디아서 4:21-31 참조).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군사력에 의존하는 모든 열강과는 달리, 사랑의 법으로 다스리신다. 그야말로 '말일'이 되면 모든 열강의 통치 수단은 완전히 깨어지고, 오직 왕 메시야의 통치만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미래의 영광에 대한 이러한 약속 때문에 선지자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야웨의 빛에 행하자"고 간곡히 권한다.

백성의 죄악과 그에 따른 심판

이사야 2:6-4:1은 그 내용에 의하여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2:6-22에서는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기술하며, 3:1-15에서는 특별히 지배층을 향하여, 그리고 3:16-4:1에서는 예루살렘 여자들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이 담겨 있다.

먼저 2:6-22에는 각각 두 차례 씩 반복되는 두 종류의 후렴구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다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가) 6-11 절, (나) 12-17 절, (다) 18-19 절, (라) 20-21 절. 이 반복되는 후렴구는 각 부분의 맨 끝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앞의 두 부분에서는 (11, 17 절)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야웨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요, 뒤의 두 부분에서는 (19, 21 절)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야웨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이다. 어떤 피조물이든 창조주이신 당신 앞에서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미워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은 중국에 가서는 모든 높아진 것을 쳐내리시고 홀로 높아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가) 6-11 절: 웃시야와 요담의 통치하에 일시적으로나마 황금기를 누리던 유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미련하고도 어이없는 죄악을 범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복속시킨 나라들(동방과 블레셋)의 좋지 못한 풍속을 배워 자기 나라에 유행시켰고 (6 절), 재물과 군사력 증강에 힘쓰는 동시에 (7 절), 자기 땅을 온통 우상들로 채우고 그것들에게 경배하였다. 이처럼 무지하고 배은망덕한 백성을 어찌 용서하랴?

(나) 12-17 절: 인간의 타락은 자연계에도 손상을 가져온다. 노아 홍수 직전 '땅이 썩었던 것은 그 위에 사는 인간들 때문'이었다 (창세기 6:12). 그러므로 바울은 자연계의 탄식과 소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로마서 8:19-22).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웃시야와 요담의 통치하에 건축된 "높은 망대나 견고한 성벽" (대하 26:9-10; 27:3-4 참조), 그리고 웃시야의 '무역 선박들'과 그것들이 가져온 온갖 귀중품 (대하 26:2 참조) 역시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 18-19 절: 모든 거짓 신, 곧 우상들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라) 20-21 절: 심판날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금으로 만들어 경배하던 우상들을 던져 버리고는 쥐구멍이라도 찾아 숨고자 할 것이다. 계시록 6:15-17 에도 이와 비슷한 묘사가 나온다.

이상은 모두 "야웨의 날"(12 절)에 벌어질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야웨의 날'이란 표현은 사 13:6, 9; 겔 13:5; 율 1:15; 2:1, 11, 31; 3:14; 암 5:18, 20; 오 15; 습 1:7, 14(2 회); 말 4:5 에도 나오는데, 항상 마지막 심판과 관련되어 사용된다. 오직 심판주이신 야웨 하나님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목시키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이다 (22 절).

3:1-15 에 서는 특별히 지배층 위에 임할 심판을 언급하고 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의존하는 빵과 물, 곧 기본 양식을 제하신다 (1 절). 고대 사회에 있어서 재연 재해나 전쟁 또는 약탈을 통해 생기는 기근은 무서운 심판이 아닐 수 없었다. 이어 하나님의 진노는 각계 지배층 사람들에게 임한다 (2-3 절). 재난으로 인하여 식량이 꺾절하고 지배층이 무너지면, 결국 사회는 혼돈에 빠지고 만다. 방자한 젊은이와 천한 자가 날뛰고, 사람들은 서로 불신할 뿐만 아니라 빵 한 조각 때문에 더럽고 야비한 일들이 생긴다 (4-5 절). 걸잡을 수 없는 혼동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런 사회를 떠맡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자가 없다 (6-7 절).

이 모든 재난은 지배층의 언어와 행실이 하나님의 눈을 거슬렀고 (8 절),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지도층이 도리어 그들을 그릇 가게 오도하였기 때문이다 (12 절). 그들은 또한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고 그들의 재산을 억탈하기도 하였다 (14-15 절). 그들은 재앙을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다 (9 절).

3:16-4:1 은 예루살렘 여자들을 향한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시온의 딸들', 곧 예루살렘 여자들의 교만은 심지어 그녀들의 걸음걸이와 눈짓에서도 나타났다 (16 절). 그녀들이 치장에 사용한 온갖 화려한 의복들과 값비싼 장신구들도 그녀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한 결국 '미움거리' 밖에 될 수 없었다. 그녀들은 자기의 교만과 죄악으로 인하여 겁탈을 당하며 (17 절), 모든 화려한 의복과 장신구들은 빼앗기고 (고대 사회에 이것들은

중요한 전리품중의 하나였다) 그 대신 썩은 냄새와 슬픈 탄식과 온갖 전쟁의 상흔 만이 그녀들을 장식하게 될 것이다 (18-24 절). 그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여자들은 전란중 남편들을 잃고 (25 절), 남자가 귀하므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과부된 수치를 벗어나려고 할 것이다 (4:1).

야웨의 싹과 그의 백성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악인을 골라내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심판으로만 끝나는, 또는 심판만을 위한 심판은 있을 수 없다. '주께서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에서 무고히 흘린 피를 청결케 하시면' (4:4), 비로소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 날에 '야웨의 싹'은 영광과 존영 그 자체로 화한다.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자들에게 '그 땅의 열매'는 자랑거리와 명예가 된다" (4:2). 여기서 '야웨의 싹'과 '그 땅의 열매'는 대구(對句)를 이루어 결국 같은 존재를 가리키고 있다. '싹'은 히브리어로 '제마흐'라고 한다. 이 낱말이 여기서처럼 특별하게 쓰인 경우로는 슥 3:8(내가 내 종 순을 나게하리라); 슥 6:12(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야웨의 전을 건축하리라); 렘 23:5(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렘 33:15(그날 그 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를 들 수 있다.

이상 언급한 구절들에서 '제마흐'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중요하게 사용될 특별한 존재임에 틀림없다. 이 비유적 표현은 이사야 11:1 의 '호테르'('역시 '싹'으로 번역)와 '네제르'('가지'로 번역), 및 이사야 53:2 의 '요네크'('연한 순'으로 번역)와 '쇼레쉬'('싹' 또는 '줄기'로 번역)와 맥락을 같이 하여, 모두가 메시아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그 땅의 열매' 또한 같은 의미를 갖게 되어 '메시아'를 가리킨다. 그는 '야웨'로부터 오신 분이요 (로마서 1:4; 누가 3:38 참조), 동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나오셨다 (로마서 1:3; 누가 3:23 참조).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지난 2,000 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야웨의 싹'은 실제로 열방 가운데 '영광과 존영 그 자체'였다. 그는 지상에 '자기의 몸'되는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하여 무한한 영광을 받으셨다. 이제 '이스라엘 땅의 열매' 되신 메시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 간신히 살아 남아서 다시 그 땅에 모인 백성(유대인)들에게로 향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 땅의 열매'는 그들에게도 '자랑거리와 명예'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시온에 남아있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열방중 택함 받은 자들과 더불어, 누구나 다 믿고 '성도'라고 (또는, '거룩하다'고) 불릴 것이다 (4:3; 사도행전 13:48 참조). 과거에 예루살렘의 상류층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풍부한 재력에 의하여 남들과 구별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제 메시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에는 '거룩한 자' 곧 '성도'라는 명칭이 가장 명예스런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과거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출애굽기 13:22; 민수기 14:14), 장차 임할 그 날에도 "야웨께서는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단집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될 것이다" (4:5-6). 사도 요한 역시 이와 비슷한 묘사를 하고 있다 (계시록 7:15-17).

여기 '단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후파'는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결혼식 때 사용하는 넓은 천으로, 이 후파의 네 모퉁이를 장대에 매어 네 사람이 높이 받쳐들고 그 안에는 신랑 신부가 함께 서서 혼례가 진행된다. 신랑 신부는 이 후파 아래서 성혼 축복을 받는다. 이 날은 또한 마치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와도 같은 성도가 신랑되신 예수님을 맞아 혼례를 올리는 날이기도 할 것이다 (계시록 21:1-4 참조).

여기서 묘사하는 예루살렘은 도대체 무슨 예루살렘인가? 과거에 선택받은 백성 곧 유대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임할 '마지막 영광'을 함께 누릴 지상의 예루살렘인가 (이에 대하여는 계시록 11 장을 참조할 것), 아니면 계시록 21 장에 묘사된 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게 될 새 예루살렘인가? 그 해답은 "둘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심판 이후에 있을 예루살렘의 영원한 영광을 묘사하고자 한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지상에서의 영광과 천상에서의 영광을 하나로 묶어 언급한 것이다 (이 문단은 카일 & 텔리취의 주석에서 요약한 것으로, 필자 또한 이에 동의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별해 내고자 심판을 행하신다 (마태 13:47-50 참조). 그러므로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곳에 반드시 구원의 메시지가 따른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겁주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를 원하신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은 언뜻 보기에는 무서운 심판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당시 (그리고 장래에도)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고자 기록된 말씀임을 알 수 있다.

야웨의 포도원에 임할 심판

이야기 제 5 장은 포도원 비유(1-7 절)로 시작된다. 첫 1-2 절은 이스라엘 땅의 산지에 포도원 만드는 법을 잘 묘사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땅의 산지에서는 양질의 포도가 많이 생산된다. 여기 농부는 햇빛이 잘 들고 기름진 산 언덕을 택한다. 아마도 높은 위치 때문인지 쟁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일이 호미로 땅을 파서 돌을 골라낸다 (이스라엘 산지에는 돌이 아주 많다). 그리고는 거기에 좋은 품종의 포도 나무를 심는다.

골라낸 돌들을 가지고는 보통 포도원 전 지역을 잘 감시할 수 있는 한가운데에 망대를 세우고, 양이나 염소 떼, 또는 다른 야생 짐승들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낮은 돌울타리(민수기 22:24; 잠언 24:31 참조) 를 만들어 그 위에는 이스라엘 산지에 흔히 있는 가시 덩불을 올려 놓는다. 그리고는 포도원 가까운 곳에 넓고 편편한 암반 지대(포도를 밟는 곳은 넓고 편편해야만 좋다)를 찾아 수확한 포도를 으깨어 즙을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물론 암반의 낮은 곳에는 즙이 모이도록 꽤 커다란 홈을 파내야 한다.

이제 준비는 다 끝났다. 농부는 양질의 포도를 기다린다. 결실기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는 좋은 포도는 커녕 알이 조그마하고 맛도 없는 들포도(또는, 머루)만이 맺혀 있었다. 농부는 너무나 속이 상한 나머지, 울타리 위의 가시 덩불을 걷어내고 돌울타리마저도 헐어낸다. 이제 포도원은 얼마든지 짐승들의 발 아래 놓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저주받은 포도원에는 더 이상

가지 치기도, 복주기도 없을 것이다. 거기엔 가시와 엉겅퀴(이스라엘 땅에는 특히 건기인 여름철 내내 도처의 경작되지 않은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볼 수 있다)가 무성하며,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7 절에서 밝히기를, 농부는 야웨 하나님이지요, 포도원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지요, 포도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한다. 위의 비유를 좀더 풀어본다면, '기름진 산언덕'은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출애굽기 15:17; 신명기 8:7-9; 11:9-12),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는 행위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그들을 제거함을 (시편 44:2), 망대는 왕도 예루살렘과 더불어 그 안에 우뚝 솟은 시온 성채를 (미가 4:8), 포도즙 짜는 곳은 성전을 (시편 36:8)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포도원의 울타리를 허는 행위는 예레미야 5:10; 12:10 에 잘 설명되어 있다. 참고적으로 이사야 5:1-7 의 '실망을 준 포도원 노래'와 대조적인 '아름다운 포도원 노래'는 이사야 27:2-6 에 기록되어 있다.

이제 선지자는 비유를 매듭짓고, 이 백성의 죄악과 그에 따른 형벌을 슬픈 심정으로 하나씩 하나씩 열거한다 (이사야 5:8-30). 8-24 절 안에는 각각 '오호라'(히브리어로 '호이'는 탄식할 때 시작되는 낱말이다)로 시작되는 여섯 조목이 나온다. 먼저 이 여섯 조목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8-10 절: 부자들의 탐욕적인 재산(당시는 주로 부동산) 증식은 조물주의 진노와 재앙을 불러 일으킬 뿐이다. 하나님은 땅 매매를 영원히 금지시키시고 (레위기 25:23), 또 희년 제도를 정하시어 만일 어느 이유에서든 남에게 이전된 땅일지라도 희년에는 반드시 돌려주도록 명하셨다. 부자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예는 왕상 21:1-16(아합왕과 나봇의 포도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한 미가 선지자 역시 이러한 탐심을 맹렬히 비난하였다 (미가 2:2).

과거 단순한 농경 사회에서 토지는 경작을, 가옥은 거주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땅이나 집이 일부 부유층에 의하여 자기들의 배만 채울 목적으로 차지되는 것은 조물주의 뜻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기적인 목적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집들은 훼손되고 토지 또한 황무케 되어 제대로 소출을 내지 못할 것이다.

11-17 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온갖 향락에만 빠진 이들 역시 조물주의 진노와 재앙을 벗어날 수 없다. 이 백성은 포로되어 끌려가고, 향연 대신에 굶주림과 목마름의 노예가 될 것이다. 향락에만 빠졌던 자들은 죽음으로 내려갈 것이요, 그들이 죽거나 끌려가고 남은 폐허에서는 어린 양떼가 풀을 뜯고, 유목민이 황폐해진 밭의 산물을 먹을 것이다.

18-19 절: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대하여 비웃고 악한 말로 모독하는 자들도 물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거나 또는 아예 잊어버리고자 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아니면, 적어도 많은 이들이 '내게만은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겠지'라고 하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20 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덕적 기준을 뒤집거나 바꾸어 놓는 자 역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벗어날 수 없다. 문명 세계의 현대인들은 점차로 도덕적인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동성 연애(레위기 18:22) 는 오늘날 서구에서 법적 제재나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일종의 보호 대상이 된다. 오히려

동성 연애자들은 협회를 구성, 정치적으로 일종의 압력 단체 구실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여러가지 사업이나 공무상의 속임수, 온갖 비리, 부정 부패는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다. 가정들은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고, 낙태, 폭력과 테러, 마약 등이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저속하고 선정적이거나 심지어는 파괴적인 음악, 무용, 미술, 코미디, 연극, 영화, 비디오, 전자 오락,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우리 주위에 범람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죄를 죄라 하고 악을 악이라 분명히 말하는 자가 점점 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남들 다 그러는데, 너만 왜 유별나게 살려고 하느냐"라는 말 한 마디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 현실이다.

21 절: 스스로 지혜있다고 하는 자들 역시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온갖 교만으로 가득차 있다. 과학적 성취, 기술의 진보, 우수한 고등 교육, 경제력의 신장 등이 우리 인간의 교만을 키워주는 듯 하다. 그러나 성경은 가르치기를, "야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한다 (잠언 1:7; 9:10).

22-24 절: 여기서는 술에 노예가 되고 뇌물에 의하여 판결을 굽게 하는 재판관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술과 뇌물 때문에 '사회의 성실한 중' 노릇을 못하는 공무원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법도와 그의 말씀을 버리고 멸시한 이들은 결국 심판의 불에 소멸될 것이다.

이상의 죄악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분노하신다. 그리하여 우선 머지않은 장래에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전쟁에 의한 대살륙이 있게 될 것이다 (이사야 5:25). 이 예언은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북왕국 이스라엘 왕 베가의 연합군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함으로써 성취되었다 (왕하 16:5). 이 전쟁의 결과를 역대기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대하 28:5-7).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야웨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시매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시매 저가 쳐서 크게 살륙하였으니,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야웨를 버렸음이라.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십 이만명을 죽였으며, 에프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궁내대신 아스리감과 총리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그래도 하나님의 분노는 식지 아니하실 것이다. 아직도 남은 재앙이 있다 (이사야 5:25 하-30).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람이나 이스라엘 같은 인근 나라가 아니라, 먼 곳에서 나라들을 끌어 오실 것이다. 이러한 위협적인 예언은 이미 오래전에 모세에 의하여 선포된 바 있다 (신명기 28:47-57). 그리고 이 침략의 대열에서 가장 앞장 설 나라가 바로 앗시리아이다.

제국들의 흥망과 임마누엘: 제 7-12 장

지상에서는 나라들이 세워지고 흥하고 기울고 망하기를 거듭한다. 무수한 나라들이 이런 과정을 거친다. 주전 740 년경, 택함받은 백성 이스라엘 자손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 있었다. 그 무렵 주변의 한 제국이 점점 세력을 확장해 가면서 이 두 작은 나라의 국운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였다.

이사야 제 7-12 장 말씀은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셔서 외치게 하신 예언과 경고와 위로의 말씀이다. 세상의 제국들은 늘 요란하지만 장차 '임마누엘'이라고 불리는 한 아들이 태어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의 왕국은 영원무궁할 것이며, 이방인, 선민 할 것 없이, 그에게로 돌아와 그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그는 '구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사야의 예언은 이 임마누엘에 관하여 몇 단계에 걸쳐서 여러 각도로 소개하고 있다. 그중 이사야 제 7-12 장의 내용에 의하면, 임마누엘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요 (7:14), 영원한 권세를 받으실 것인데 (9:6-7), 그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11:1-5).

유다왕 아하스

이사야 제 7-12 장은 웃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나이 스물에 왕위에 올라 16 년을 통치한 아하스의 재위 기간은 주전 744-728 이 된다. 그는 부친이나 조부와는 달리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이다. 그는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야웨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왕하 16:3-4; 대하 28:2-4).

한편 이 무렵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앗시리아가 강성해지면서 점점 인근 국가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아람과 이스라엘은 연합 작전을 펴서 그와 맞서고자 했고, 자기들의 연합 세력에 유다도 합류하기를 원하였으나, 유다는 이를 거절한다. 결국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왕 베가는 유다를 치기로 결의하고 이를 실천에 옮긴다.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유다 침입은 이미 요담의 통치 말기부터 시작되었었다 (왕하 15:37). 그러나 아하스 때의 상황은 전과는 아주 달랐다. 하나님은 아하스의 죄악을 눈감아주지 않으셨다.

"아람 왕 르신은 [남쪽의 대상 무역 중심지]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그 대신 에돔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하였다" (왕하 16:6). 아람 왕은 "유다를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데려갔다. 또 이스라엘 왕 베가는 유다를 공격하여 크게 살륙하였는데, 하루 동안에 용사 십이만명을 죽이기까지 하였다" (대하 28:5-7).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사람 이십만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는데, 오벳이라고 불리는 선지자와 몇몇 지도자의 반대로 결국 유다 포로들을 돌려주게 되었다. 이에 관한 자세한 기사는 역대하 28 장 8-15 절에 기록되어 있다. 아하스 때에 유다를 괴롭힌 것은 아람과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다. 에돔과 블레셋 또한 이런 기회를 틈타 유다를 공격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대하 28:17-18). 이처럼 주변

국가들의 공격으로 유다는 오직 예루살렘만이 남아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에 간신히 대항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이사야 7:1; 왕하 16:5).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한 유다는 앗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청한다 (대하 28:16). 앗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 3 세는 돕기는 커녕 도리어 유다를 쳐서 더욱 곤경에 빠뜨렸다 (대하 28:20). 할 수 없이 아하스는 성전과 왕궁과 대신들의 집에서 보물을 꺼내어 앗시리아 왕에게 바친다 (왕하 16:7-8; 대하 28:21). 이에 앗시리아 왕은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아람의 왕도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가고 또 르신을 죽였다 (왕하 16:9). 앗시리아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디글랏 빌레셀 3 세는 주전 734-732 년 사이에 아람을 침공하였으며, 다메섹은 주전 732 년에 완전히 함락되었다.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 역시 디글랏 빌레셀 3 세의 말발굽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스라엘은 국토의 3 분의 2 를 빼앗기고, 많은 백성은 사로잡혀 가게 되었다. 이 일로 베가의 통치가 막을 내리기 시작한 것도 당연한 일이다 (왕하 15:29-30). 한편 유다왕 아하스는 앗시리아 왕에게 복속하고 조공을 바쳐야 했다. 따라서 유다의 역사가는 기록하기를, "보물을 취하여 앗시리아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다"고 하였다 (대하 28:21).

이러한 역경 중에 아하스의 우상 숭배와 어리석음은 더욱 고조를 더해갔다. 앗시리아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간 아하스는 거기서 이방 신전의 제단 양식을 배워온다. 그리고는 그와 똑같은 제단을 만들어 예루살렘 성전에 설치하고는 아람의 신들에게 제사하였다. 원래의 성전 뜻단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은 두 말 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어리석게도 그는 이런 식으로 아람 열왕이 섬겨온 신들의 도움을 받고자 한 것이었다 (대하 28:22-25; 왕하 16:10-18).

예루살렘의 위기와 이사야의 메시지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아하스와 싸울 때의 일이었다 (이사야 7:1; 왕하 16:5). 유다 왕 아하스는 주전 744-728 사이에, 이스라엘 왕 베가는 주전 751-731 사이에 통치하였으므로, 이 두 사람의 통치가 겹치는 기간은 주전 744-731 년이 된다. 그리고 디글랏 빌레셀 3 세가 아람과 이스라엘을 침공한 때가 주전 734-732 년이므로,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유다 침공은 다시 주전 744-734 년 사이로 좁혀진다. 아하스와 유다 백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별별 떨고 있었다 (이사야 7:2).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야습이 아하스를 만난 곳은 윗못 근처였다 (이사야 7:3).

"너는 정신 차리고 잠잠히 있어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깥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육십 오년 내에 에프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한 민족이 되지 못하리라" (이사야 7:4-8).

65 년 안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더 이상 하나의 '민족'(히브리어로 '암')으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구체적인 예언은 전체 예언의 진위를 가리는데 뚜렷한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예언은 주전 744-734 년 사이의 것이므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왕하 17:6) 주전 723 년은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이사야의 '65 년'은 과연 어느 때를 가리킬까?

에스라 4:2 에 의하면, 유다가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유대인들을 대적한 원수들'은 앗시리아 왕 에살핫돈(주전 681-669 년 사이에 통치)에 의하여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되어 들어왔다. 그렇다면 열왕기하 17 장 24 절("앗시리아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의 사건은 주전 723 년 사마리아가 멸망한 직후 앗시리아 왕 사르곤이 행한 일(왕하 17:6; 18:11 참조)이라기 보다는, 그보다 훨씬 후인 에살핫돈 왕 때의 일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후자야말로, 에프라임 땅에 그나마 남아 있던 일부 북쪽 지파 사람들을 혼혈화시킨 (여기서 사마리아인이 나왔을 것이다)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으므로, 이사야의 '65 년'을 성취시키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겠다.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주전 744-734 년과 주전 681-669 년 사이의 최대폭은 75-53 년이 된다. 그러므로 65 년은 얼마든지 가능한 숫자가 된다. 이사야 7 장의 침공은, 앗시리아의 역사 자료를 통하여 볼 때, 아마도 아하스 왕 통치 제 10 년이 되는 주전 734 년이 될 것이다. 이때로부터 65 년 되는 해는 주전 669 년이므로, 열왕기하 17 장 24 절의 강제 이주는 바로 주전 669 년 경에 있었을 것이다.

이사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도무지 현실적으로 들리지가 않았다.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침입으로 유다는 거의 전 국토가 초토화됐고, 하루 동안에 12 만명이나 되는 대군이 살륙당했으며, 20 만명이나 포로로 잡혀갔다가 겨우 돌아올 수 있었다. 아하스는 이사야의 희망적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선지자와 야웨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커녕 도리어 마음 속으로는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앗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아하스의 속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는 하나님은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경고의 말씀도 잊지 않으신다 (이사야 7:9).

불신 세대에게 주는 이상한 징조

야웨께서는 이 악한 왕 아하스더러 무슨 징조든지 구하라고 하신다 (이사야 7:10-11).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찬 그에게 신앙의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아하스는 여전히 야웨 하나님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약속보다는 자기 자신의 지혜를 더욱 신임하였다. "나는 구하지 않겠다. 나는 야웨를 시험하지 않겠다"는 아하스의 답변은 (이사야 7:12) 마치 겸손한 신앙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 듯 하다. 그러나 실상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의 지혜를 더 의존하는 불신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의 조소일 따름이었다. 그의 희망은 여전히 앗시리아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사야는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이사야 7:13)며 꾸짖은 것이었다.

여기서 야웨께서 친히 주신 징조는 아주 독특한 것이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14). 이 예언은 사무엘하 제 7 장의 메시야 예언과 유사한 면이 있다. 다윗이 야웨를 위하여 전 짓기를 원하자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시면서 그에게 태어날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다. 이 약속은 메시야와 솔로몬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야웨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낳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러니와, 내가 네 앞에서 폐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삼하 7:11-16).

이사야 제 7 장의 예언도 먼 훗날에 오실 메시아와 가까운 날에 성취될 일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먼저 이 아이는 가까운 미래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하나의 징조가 될 것이다.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아람과 이스라엘 두 나라의 백성은 사로잡혀 가서 그 땅이 버려지게 되고, 그 무렵에 이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게 될 것이다 (이사야 7:15-16). 주전 732년에는 앗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3 세에 의하여 다메섹이 무너지고, 주전 723년에는 앗시리아의 살만에셀 5 세에 의하여 사마리아가 무너진다.

유다마저도 앗시리아가 가져오는 재난을 피할 수는 없다 (이사야 7:17). 그러나 아람이나 이스라엘과는 달리 그 황폐한 땅에 남은 자들은 그나마 버터와 꿀을 가지고 생계 유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사야 7:21-25 은 이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 버터와 꿀은 비록 땅이 황무하게 되고 밭을 경작할 수 없어서 곡식이나 포도주는 얻을 수 없으나 그나마 온갖 잡초가 무성하여 소나 양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우유와 야생 채취도 가능한 들꿀일 것이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기거하면서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다. 마태 3:4 참조).

사마리아가 함락되던 주전 723 년은 유다 왕 히스기야 제 6 년이었다. 이 일이 있은지 약 8 년 후 (히스기야 제 14 년), 곧 주전 715 년에 있었던 앗시리아의 유다 침입은 거의 유다 전 국토를 초토화시켰고 예루살렘만이 덩그렁 남게 되었다 (왕하 18:13-16). 이사야 7:18 의 '이집트 나일강 끝에 있는 과리'는 어쩌면 이때 앗시리아의 산헤립과 싸우고자 출정한 '구스 왕 (당시는 아직 왕자였다) 티르하카'를 (왕하 19:8-9) 가리킬 것이다 (이집트 제 25 왕조의 왕들은 구스, 곧 에티오피아 왕들이었다).

이상 기술한 바, 앗시리아에 의한 아람과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유다 땅의 초토화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8:1-8 에서 약간 달리 표현되어 있다.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많은 사람이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커다란 서판에 "속히 노략이 임한다. 약탈이 임박하다"라고 기록한다. 그리고 '그 여선지자'(틀림없이 이사야의 아내를 가리킬 것이다)와 동침하자 그녀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속히 노략이 임한다. 약탈이 임박하다"는 이름을 얻는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8:1-4).

이런 점에서 이사야 7:14-16 의 예언은 일단 "속히 노략이 임한다. 약탈이 임박하다"라고 불리는 이사야의 아들이 징조가 되어 성취될 것이다. 이사야 7:14 에서 '처녀'로 번역된 히브리어 '알마'는 구약 성경에 모두 7 회 나타나는데 (창세기 24:43; 출애굽기 2:8; 잠언 30:19; 시편 68:25; 아가 1:3; 6:8; 이사야 7:14), '처녀'라는 뜻 말고 '젊은 여인'을 뜻할 수도 있다. 특별히 이사야 7:14 에서는 '알마'에 정관사가 붙어서 '그 처녀' 또는 '그 여인'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사야 8:3 의 '그 여선지자'는 7:14 의 '그 여인'을, 그리고 거기 이사야의 아들은 7:14 의 '아들'을 성취시켜 주는 첫번째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사야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주시는 징조요 예표였다 (이사야 8:18). 이러한

사실은 이사야 7:14 의 예언을 훨씬 후에 있을 메시아의 처녀 탄생(마태 1:22-23)과 연관시켜 주는데 전혀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앗시리아로부터 화를 당하는 주된 원인은 이 택함받은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아 물'을 거절하고, 이방 세력을 의지한 것이다 (이사야 8:6). '실로아 물'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 내지는 능력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레미야 2:13 참조). 그러므로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이 의지하는 열강, 곧 앗시리아를 끌어다가 그들을 벌하신다. 이 일로 이스라엘은 멸망의 재난을, 유다는 '목에까지 차는' 재난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이 백성의 구원의 소망은 오직 그 날개를 온 땅에 펼치는 임마누엘에게만 있다 (이사야 8:7-8). 임마누엘로 인하여 (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열방들이 아무리 온갖 힘과 꾀를 낼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무너질 것이다 (이사야 8:9-10).

예언의 말씀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도 유다 백성도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은 없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경시 풍조가 가득찬 세대에 사는 선지자 이사야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이사야 8:11). 이 백성은 '앗시리아와 같은 외세에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선지자 이사야를 공격하여 도리어 그를 '모반자'라고 한다 (우리 한글 역본은 이사야 8:12 상반절을 그릇 번역하였다. 이 구절은 "이 백성은 모든 걸 가지고 '모반'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모반'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번역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아모스 역시 모반자라는 말을 들었다 (아모스 7:10). 예레미야도 이와 비슷한 일로 감옥에 던져졌다 (예레미야 38:1-6). 예수님 역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반역'이라는 죄목으로 고소당하였다 (요한 19:12).

불신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는 얼마든지 '그 사회의 모반자' 또는 '사회의 독'이라고 매도당할 수 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욕을 들어야만 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염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요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사도행전 24:5).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셨다 (요한 16:33).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실 분은 오직 야웨 하나님 뿐이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소도 되지만, 그들에게 거치는 돌, 걸리는 바위도 된다 (이사야 8:13-15).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오랜 역사 동안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들이 그들에게 전해졌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자기 땅의 자기 백성에게로 오신 (히브리서 1:1-2; 요한 1:11) 메시아마저도 지난 2,000 년 동안에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온 것을 알 수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백성이 잘 깨닫지도, 믿지도 아니할 것이기에 차라리 소수의 믿는 자들 가운데 인봉해 둬야 적절하다. 이사야 8:16 은 두 개의 명령형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이사야의 기도로 이해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이 절은 "(너는) 내 제자들 가운데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가르침을 봉인하라"가 되고, 후자의 경우 "제 제자들 가운데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가르침을 봉인해

주십시오"가 된다. 그 다음 절과의 연결을 통해서 본다면 후자가 더 적합한 듯 하다. 다수의 무리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거절한다면, 차라리 믿는 소수의 무리 가운데만 이 말씀을 봉인해 두고 백성이 깨닫기까지 기다리게 함이 더 낫다는 선지자의 바램인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 자신은 "야곱의 집으로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얼굴을 가리우시는" 야웨 하나님을 조용히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이사야 8:17).

그러나 불신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보다는 '죽은 자나 다름없는' 무당이나 신접한 자 또는 마술사를 더 의존한다. 누구든지 증거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 임의대로 말하는 자는 흑암 속으로 꿰겨날 것이다 (이사야 8:19-22).

한 아기의 탄생과 그의 나라

이제 "야곱의 집으로부터 얼굴을 가리우시는" 야웨 하나님은 언젠가는 다시 "그 얼굴을 들어 그 백성에게 비취실 것이다" (민수기 6:24-26 참조). 일찍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땅은 온갖 외침에 시달림을 받아 왔었다. 앞으로는 이 고난의 땅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할 것이다. 열방의 압제하에 오랜 흑암기를 지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할 것이다 (이사야 9:1-5). 참고적으로 이사야 9:1(히브리어 성경으로는 8:23) "바다 길"의 "바다"는 지중해가 아닌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며, 이 길은 지중해변의 대로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 서쪽으로 통하는 길을 가리킨다.

이러한 일은 한 아기의 탄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우리는 앞서서 택함받은 민족의 가까운 장래사를 가리키는 '시계'가 될 '한 아이'의 출생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아이의 출생은 이사야 7:14 의 예언을 1 단계로 성취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 새롭게 등장하는 "한 아기"의 탄생은 이사야 7:14 의 예언을 제 2 단계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취시켜 주는 사건이다. 그에게 주어진 여러가지 이름들은 그가 평범한 아이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는 야웨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동시에 그의 유일한 대변자가 되시며, 다윗에게 약속된 '영원한 통치권'(사무엘하 7 장 참조)을 일임받으실 분이다. 그럼 이 아이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소개를 들어보기로 하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웨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9:6-7).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임마누엘이다. 이사야의 예언은 이 아이에 대한 다양한 소개로 점철되어 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을 멸하시고 마침내 친히 통치하심도 결국은 이 아이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임을 이사야는 외치고 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 이스라엘(북왕국과 남왕국 합해서: 9:21)의 최악과 멸망에 대하여 정리한다 (이사야 9:8-10:4). 이는 모두 네 문단으로 나뉘어지는데, 각 문단마다 그 끝(9:12, 17, 21; 10:4)에 "그렇지라도 야웨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는 똑같은 후렴구가 반복된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 외침을 받으나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방의 더 많은

외세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치신다 (9:8-12). 둘째, 그들은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찾지도, 그분에게로 돌아오지도 않고, 여전히 패역하고, 악을 행하며, 거짓과 망령된 말을 일삼는다. 그러므로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모두 망할 것이다 (9:13-17). 세째,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더 가열되어, 땅과 많은 백성이 불에 타고, 사람들은 가까운 혈육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서로서로를 삼키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9:18-21). 마지막으로 불의한 재판관이나 관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10:1-4).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불의와 죄악을 끝까지 추적하여 그것들을 척결하시고자 함은 임마누엘의 공평하고 의로운 통치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공평과 정의가 있는 곳에 어찌 불의와 죄악이 공존하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말씀을 보내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심을 보고는 (9:8), 어느 누구보다도 장차 오실 '정의의 왕'을 확신하게 된다.

앗시리아의 멸망과 남은 자의 귀환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나라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관리하에 놓여져 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아들'이라면, 앗시리아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훈계하고자 사용하신 '몽둥이'이다. 인자한 부친에게 있어서 징벌을 위한 징벌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벌하실 때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으며, 한계가 있다. 징벌의 목적이 성취될 때가 바로 징벌의 한계점이다.

야웨 하나님은 앗시리아라고 하는 '징벌의 몽둥이'에게 분명한 한계선을 정해주셨다 (이사야 10:5-6). 그러나 앗시리아는 거만한 마음으로 이 침략의 여세를 몰아 예루살렘마저도 자기 손 안에 넣고자 한다 (이사야 10:7-11).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근본 원인은 '임마누엘 왕국'을 건설하여 당신의 정의와 공평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하심이지, 앗시리아 왕국과 같은 특정 국가를 세워주시고자 함이 결코 아니다. 지상에 있는 어느 나라이고 결코 그것이 임마누엘 왕국으로 화할 수는 없다. 임마누엘 왕국은 오직 위로부터만 임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 거만한 나라를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선 하실 일은 자기 백성을 징책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앗시리아를 꺾으실 것이다 (이사야 10:12-19). 이 문맥에서 앗시리아를 벌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빛'이요, '그의 거룩한 자'라고 표현되었다 (17 절). 지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섰다가 무너지곤 한다. 나라마다 각기 자기들의 민족주의적 또는 국가적 자존심과 긍지를 되새기면서 지상에서 영원히 존속하며 번창하기를 원하지만, 이제까지 땅 위에 기록된 실제 역사를 통해 볼 때 영원히 명맥을 유지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모든 나라는 반드시 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은 징벌을 받지만 다시 일어선다. 지난 2,000 년 동안 나라없이 온 세상을 뒹군 다니며 온갖 박해와 살륙 속에서도 끊임없이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마침내는 조상들이 살던 고토로 다시 모여들어 나라를 세운 유대 민족의 실질적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에 후회하심이 없음을 유감없이 보여준다고 하겠다. 물론 나는 유대 민족의 지상 나라가 통째로 임마누엘 왕국으로 화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어찌 보면 지상에 있는 유대 민족의 역사는 인류의 운명을 가리켜 주는 '하나님의 시계'라고 하겠다. 그들은 지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정확성을 증거하는 '야웨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야웨의 증인', 곧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사야 10:20-23). 이들의 귀환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들이 과거에 거역했던,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21 절).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외세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야웨만을 진실히 의뢰할 것이다. 과거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유다 자손의 귀환이나 20 세기 들어서의 유대인의 귀환은 역사적 사건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의 귀환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들이 자기들의 왕 메시아 예수께로 돌아와야만 한다. 그리고 이 일은 그것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열성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시온에 거하는 자기 백성'을 격려하신다 (이사야 10:24-27). 이사야 10:28-32 는 앗시리아가 유다의 영토 대부분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의 목을 조여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목에까지 찬' 위험은 야웨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으로 해결될 것이다 (이사야 10:33-34).

정의와 평화의 왕 임마누엘

이사야 선지자는 제 7-12 장에서 열국의 흥망성쇠를 묘사하는 가운데, 면면히 임마누엘, 곧 메시아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7:14 에서는 임마누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미리 밝혔고, 9:6-7 에서는 그 아기의 탄생과 이름, 권세 등을 설명하였다. 이제 11:1-10 에서는 임마누엘의 통치와 심판, 그리고 그가 완성하실 왕국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다.

그는 '이새의 줄기', 곧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성령으로 무장시키실 것이며, 그는 야웨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구원과 심판을 통한 통치를 이룩하실 것이다 (이사야 11:1-5). 이사야 11:3-4 에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 두 동사 '판단'과 '판결'의 결합은 이사야 2:4 에 나오는 두 동사의 쌍과 일치한다. 그는 정의와 성실로 다스리신다. 그에게는 악인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지상의 어느 군왕도 흉내낼 수 없는 통치가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사야 2:4 에서는 메시아 통치의 결과로서, 전쟁이 없는 상태를 들고 있다. 이사야 11:6-9 에서는 동일한 메시아 통치의 결과로서, 동물계의 평화를 들고 있다. 순하고 연약한 동물들이 맹수들 옆에서 두려움 없이 편히 쉬고, 육식 동물이 채식을 하게 되며, 모든 자연 환경이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안전하게 된다. 이 아름다운 묘사를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로마서 8:19-23 의 말씀을 고려해 본다면 얼마든지 문자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평화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넘침과 더불어 있을 것이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짝은 두 부류의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흡인할 것이다. 첫째는 일찍이 택함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다 (이사야 11:10). 그는 마치 만민을 위해 높이 들린 깃발과도 같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 3:14-15). 열방의 백성들이 그에게로 돌아와 그를 찾을 것이다. '열방 가운데 흩어진 메시아의 종들', 곧 '이방 교회'의 탄생은 과거 택함받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해하거나 믿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메시아가 처음으로 오신지 약 2,000 년이나 지난 세대에 사는 우리는 이 위대한 비밀이 이미 오랫동안 현실화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둘째로, 그는 과거에 택함받았던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에게로 이끌어 들이신다 (이사야 11:11-16). 먼저 흩어진 유대인들의 육체적 귀환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흩어짐(디아스포라)에 관하여는 이사야가 이미 웃시야 왕이 죽던 해 받은 계시를 통하여 언급한 바 있다 (이사야 6:12).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분산이 이방 세계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놓았던 것처럼, 이제 역으로 이방 교회의 존재는 이스라엘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다. 야웨 하나님을 향한 이들 이방인들의 열심은 이스라엘 자손 중 남은 백성에게 시기심을 일으켜 (로마서 11:11), 구원의 축진제가 될 것이다. 한편 마지막 때 유대인들의 귀환은 모세의 영도하에 이집트 땅을 나오던 때에 결코 뒤지지 않는 사건이 된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5:1-18), 이제 먼훗날 구원받게 될 '남은 자들'은 그와 비슷한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린다 (이사야 12:1-6).

야웨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야웨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

야웨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야웨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거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이방 세계의 운명: 제 13-23 장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십이만 여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나" (요나 4:11). 주전 763 년, 곧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 세가, 남왕국 유다는 웃시야가 통치하던 무렵 야웨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에게 이방 니느웨에 대한 당신의 관심을 이처럼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웨'는 또한 이방 민족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는 창조주시오,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인간의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상관 관계를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45:9-10; 64:8 참조). 이러한 관계 하에서는 택함받은 민족이나 이방이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유다도 이스라엘도 열방 중 하나로 간주되는 것이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모든 이방 세계의 역사도 간섭하신다.

이사야 1-12 장을 통하여 선지자의 메시지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도 특히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13 장에 들어오면서 그의 메시지는 갑자기 이방 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돌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방 세계에 대한 이 메시지는 23 장까지 계속되는데, 물론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도 언급되고 있다. 7-12 장에서 '제국들의 흥망과 임마누엘, 곧 메시야'에 관한 예언이 있은 후, 이방 세계의 운명을 언급하는 것은 자연스런 연결로 보인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통치는 온 누리에 퍼질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적으로 예레미야 46-51 장과 에스겔 25-32 장에도 이방 세계에 대한 예언이 함께 모아져 있다.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귀환 (13:1-14:23)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 어느 누구도 바벨론이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였을 것이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치료받았을 때, 그에게 찾아온 바벨론 사절단은 전혀 위험한 존재로 간주되지 않았다 (이사야 39:1-2; 왕하 20:12-13 참조). 앗시리아 만이 현실적으로 위험한 존재였을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는 이사야는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망할 것을 알고 있었다 (이사야 39:3-7; 왕하 20:14-18 참조). 주전 613 년에 바벨론이 니느웨를 함락시킴으로써 앗시리아 제국은 완전히 무너진다. 이어서 바벨론은 주전 588 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킨다. 주전 606 년 바벨론의 권좌에 오른 느부갓네살은 주전 583 년에 이르러는 명실공히 근동의 거의 전부를 자기 손아귀에 넣는다. 이방 세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사야 13:1).

장차 근동의 패권을 잡을 바벨론도 결국은 망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하시고자 먼 곳으로부터 군대를 부르신다. 하나님의 진노를 쏟을 수단으로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다 (이사야 13:2-5).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간섭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의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며, 정하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지 언급이 없으나, 13:17 에서 '메대'라고 밝혀 준다. 이들은 페르시아와 더불어 주전 6 세기에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잡는다.

'야웨의 날'(이사야 13:6,9)이란 표현은 사 2:12; 겔 13:5; 율 1:15; 2:1, 11, 31; 3:14; 암 5:18, 20; 오 15; 습 1:7, 14(2 회); 말 4:5 에도 나오는데, 항상 마지막 심판과 관련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이 날은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이사야 13:9), 또는 '야웨의 분노가

맹렬히 불타는 날'(이사야 13:13)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였다. 이사야 13:6-13 에 나오는 내용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묘사인 동시에, 그 훨씬 전에 있을 (이사야가 볼 때는 약 150-200 년 후의 일이다) 바벨론 심판에 대하여도 자연스럽게 도입해주는 역할을 한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에 사람마다 각기 자기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고국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 안에 남아 있는 사람은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 게다가 어린 아이들도, 집도, 아내들도 무자비한 살륙과 약탈 및 겁탈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사야 13:14-16). 바벨론에 멸망을 가져올 세력은 북쪽의 메대 사람들이다. 메대는 오늘날 이란의 서쪽, 아젤바이잔의 남쪽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로서,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존중을 받던 민족이었다. 이들은 바벨론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서 금과 은도 안중에 없다. 젊은이, 아이, 태아를 가리지 않고 살륙을 행할 것이다 (이사야 13:17-18).

그리하여 한때 열국 위에 군림했으며 갈대아 사람들의 자랑이었던 바벨론은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할 것이다. 거민이 다 사라지고, 유목민마저도 거기에 천막을 치지 아니하고, 오직 들짐승들 만이 판을 칠 것이다 (이사야 13:19-22). 이 예언의 말씀대로 주전 540 년에 바벨론은 코레쉬의 메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하여 함락되고 만다.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직결된다.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 갔던 그들은 다시 고토로 돌아올 것이다. 이사야 14:1-2 의 예언은 바벨론 포로의 귀환과 더불어 제 1 차적으로 성취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예언의 성취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들도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사야 14:1), 바울이 믿는 이방인 무리를 가리켜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받은 돌 올리브 나무'로 비유한 것도 (로마서 11:17-24) 바로 이런 예언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겠다. 열방 가운데 믿는 자들, 즉 나라와 언어를 초월한 '이방 교회'의 형성은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고한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은 - 옛 땅으로의 귀환과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왕 메시야에게로 돌아오는 귀환 - 이들 '이방 교회'의 안내 하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사야 14:2 상반절). 주전 6 세기에 페르시아 제국의 코레쉬 황제를 비롯한 이방인들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고토로 귀환하였듯이, 주후 19-20 세기에도 유대인들이 열강의 도움을 받아 귀환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 중에는 특별히 과거 코레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이 일을 도운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이들 이방 교회를 향하여 '유대인들에게 시기심을 발동시켜 그들 중 얼마라도 구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로마서 11:11-14 참조).

이스라엘 자손의 회복 후에 그들에게 다시, 초대 교회에 그랬던 것처럼, 교회의 주도권을 준다고 해서 별 문제될 바가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야웨의 땅에서 그들(이방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이사야 14:2 하반절)는 예언은 과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였을 때에도 어느 정도 문자적인 성취가 있었다. 그러나 이 예언의 진정한 성취는 아직도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본다.

이때 그들은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사야 14:3-4). 야웨께서 악한 바벨론을 꺾으시니 온 땅이 평온하여 기뻐하고, 나무들도 즐거워한다. 그리고 '스울', 곧

'죽음의 세계'는 바벨론 왕의 입실을 소란스럽게 환영한다. 하늘을 찌를 듯하던 바벨론의 영화는 이제 구더기와 벌레가 득실대는 구덩이로 떨어졌다. 열방의 왕들이 각기 자기 집에서 조용히 누워있는 동안,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바벨론 왕은 자기 무덤에서조차 내어쫓겨 사람들의 모욕 거리가 될 것이다 (이사야 14:5-20). 그 자자손손에게로 이어질 참혹한 심판이 바벨론의 운명이 될 것이다 (이사야 14:21-23).

앗시리아와 블레셋의 멸망과 시온의 구원 (14:24-32)

먼 훗날에 있을 바벨론 멸망의 확실성은 발밀의 불인 앗시리아에 대한 확실한 해결을 보증해 주기도 한다 (이사야 14:24-27). 장차 바벨론의 멸망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앗시리아의 땅에 이스라엘 땅에서 꺾으실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 유다에 대한 앗시리아의 위협은 아하스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하 28:20 참조). 그리고 히스기야 때는 앗시리아의 위협이 그 절정에 달하여 예루살렘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다. 그러나 여기 예언대로 예루살렘을 포위한 앗시리아는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으로 대파하여 돌아간다 (이사야 37:36-38). 이에 대하여는 이사야 36-37 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이제 이사야는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사야 14:29-31)을 소개하기에 앞서 그 말씀을 받은 때를 밝힌다. 때는 바로 '아하스 왕이 죽던 해' 곧 주전 728 년이 된다 (이사야 14:28). 블레셋은 유다 왕 웃시야 때 유다의 힘에 밀려 꼼짝 못하였다 (대하 26:6-7). 이런 상태는 웃시야의 아들 요담 때까지 지속된 것 같다. 그러나 아하스 때에 유다가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침입을 받아 곤경에 처한 동안, 블레셋 또한 이런 기회를 틈타 유다의 슈펠라와 네겟 성읍 몇을 점령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대하 28:18).

'블레셋을 치던 홀'이나 '뱀들'(이사야 14:29)은 아마도 다윗 왕조의 왕들을 가리킬 것이다.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웃시야와 같은 왕들은 블레셋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 왕들이다. 유다 왕 아하스 때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침입으로 유다가 힘을 쓰지 못한 것은 마치 '홀이 부러진 것'과 같다고 하겠다. 이때 블레셋은 유다를 침공하여 성읍들을 빼앗고 기뻐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하스 왕의 죽음과 더불어 블레셋이 맞아야 하는 '유다의 홀(왕권)'은 바로 히스기야의 것이었다. 그는 자기 백성에게는 '평화의 왕'이었지만 (이사야 14:30 상반절), 블레셋에게는 마치 '불뱀'과 같아서 (이사야 14:29), 블레셋을 거의 초토화시킬 것이다 (이사야 14:30 하반절; 왕하 18:8 참조). 그리고 앗시리아의 침입으로 블레셋은 망하지만 시온은 굳게 설 것이다 (이사야 14:31-32).

모압의 통곡과 피난처 (15:1-16:14)

모압 족속의 운명은 이미 그들의 조상인 롯을 통하여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올 때, 함께 따라 나왔다 (창세기 11:31; 12:5). 그는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한 셈이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소돔과 고모라가 서 있는 요르단 골짜기를 택하여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비뿔어지기 시작한다 (창세기 13:5-13).

롯이 풍요와 타락의 대명사인 소돔에 거주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사멸된다. 이때 롯은 간신히 구원을 얻는다. 소돔에서 나온 롯은

어이없게도 딸들과 불륜의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때 큰 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으로서, 훗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된 것이다 (창세기 19:1-38).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모압 왕 발락은 이방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 (민수기 22:1-24:25). 그 이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사사들이 통치하던 무렵 모압 왕 에글론이 18년간 이스라엘을 억압한 적이 있다 (사사기 3:12-14).

이스라엘에 왕조가 들어선 이후로 모압은 이스라엘의 멍에를 벗어난 날이 거의 없었다. 사울의 공격에서 시작하여 (삼상 14:47), 모압은 다윗의 통치하에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야만 탕다 (삼하 8:2). 이러한 관계는 솔로몬을 거쳐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북 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자 모압 왕 메사는 비로소 이스라엘에 조공 바칠 것을 거절하지만 (왕하 1:1; 3:4-5),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연합군에게 패하고 만다 (왕하 3:6-27). 유다 왕 여호사밧 때 모압은 암몬 자손과 일부 마온 사람과 연합하여 대군을 이루어 유다를 공격하였지만 대패하고 만다 (대하 20:1-30).

이사야의 예언 중 15 장에 나오는 모압에 대한 애가(哀歌)는 처절한 슬픔으로 가득차 있다. 도시마다 마을마다 통곡하는 눈물이요, 처절한 부르짖음 뿐이다. 눈 앞에 닥친 모압의 패망은 유다의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마음 아픈 일이었음에 틀림없다.

모압의 도망자들을 향하여 선지자는 그들의 구원은 다윗 왕조에 굴복하는 데에 있다고 말한다 (이사야 16:1). '털린 등지로부터 흩어진 새'와 같은 이들은 마침내 예루살렘에 간곡히 피난처를 청한다 (이사야 16:2-4). 왜냐하면 그 땅에서는 폭력과 파괴의 제국주의적 통치가 끝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 메시아께서 신실과 사랑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16:4-5):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선지자는 다시 모압을 위한 애가로 돌아간다 (16:6-12). 한때 번창하던 포도원이 이제 완전히 망하였다는 '슬픈 포도원 노래'를 통하여 모압의 멸망을 노래하고 있다. 이상은 야웨께서 "전에" 이사야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다 (이사야 16:13). "전에"라고 함은, 아마도 '아하스 왕이 죽던 해'(이사야 14:28)로 볼 수도 있겠으나, 본문에 의하여는 정확한 때를 알 길이 없다. 야웨께서는 "이제", 곧 아마도 히스기야 때에, 이사야에게 모압에 관하여 새로운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 (이사야 16:14): "품군의 정한 해와 같이 삼년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소용이 없이 되리라." 하나님은 모압을 심판하시고자 '삼년'을 헤아리고 계신 것이다.

다메섹과 이스라엘의 붕괴 (17:1-14)

이사야 17 장에서는 아람에 대한 저주와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가 함께 섞여 있다. 이 둘이 연합하여 유다를 쳤기 때문에 그리하였을 것이다. 이 두 나라의 멸망에 대하여는 (이사야 17:1-4) 이미 이사야 7:15-16 에서 언급한 바 있다. 주전 732 년에는 앗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3 세에 의하여 아람의 수도 다메섹이 무너지고, 주전 723 년에는 앗시리아의 살만에셀 5 세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무너진다.

이스라엘의 패망은 르바임 골짜기의 수확 들판으로 비유되고 있다. 수확하는 자가 익은 곡식을 거두는 것 같이, 이스라엘도 이제 그 심판의 때가 무르익어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올리브 나무를 떨어 수확할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올리브 열매 몇몇이 남듯이, 이스라엘 중에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이사야 17:5-6). 그 때에야 비로소 이들 남은 자들은 더 이상 우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지으신 이,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만을 의지할 것이다 (이사야 17:7-8).

에프라임의 '견고한 요새 성들'이 황폐하게 됨(이사야 17:3 참조)은 그들이 자기들의 '견고한 반석'과도 같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이사야 17:9-10). 우리가 의지하고 피할 진정한 '요새'는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방 종교를 받아들인 이스라엘은 한 때는 번창하는 듯 하였으나 결국은 패망하고 말 것이다 (이사야 17:10-11).

이사야 17:12-14 에서는 사마리아와 다메섹에 멸망을 초래할 앗시리아가 당할 결국을 기술하고 있다. 12 절의 '많은 민족'은 여러 나라와 민족들로 구성된 대제국으로서의 앗시리아를 가리킨다고 하겠다. 앗시리아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몽둥이일 뿐이지 결코 그 이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간과하지 아니하신다. 앗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이사야 10:5-19 과 14:24-27 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야웨를 찾는 구스와 이집트 (18:1-20:6)

성경의 구스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에 해당한다. 주전 721 년 구스의 사바코(Sabacos)가 북쪽의 상부 이집트를 장악함으로써, 구스는 전 이집트를 관할하게 된다. 이때가 바로 이집트의 제 25 왕조이다. 참고적으로 이집트 제 25 왕조의 한 구스 왕으로서 이집트를 통치했던 티르하카(주전 699-671 년)는 앗시리아의 산헤립과 동시대인이다 (왕하 19:8-9; 이사야 7:18 참조).

이제 야웨께서는 햇볕에 검게 그을려서 반들반들한 피부에 쪽 빠진 키의 구스 사람들에게로 사신을 보내라고 하신다. 비록 각종 곤충이 득실대지만 나일강이 적셔주어 기름진 땅에 사는 이들에게 전할 소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은 '나무끼는 깃발과 나팔 소리'로 상징되는 전쟁에 관한 소식으로서, 천하 만민이 듣고 보게 될 일이다 (이사야 18:1-3).

야웨께서도 당신의 처소에서 조용히 이 일을 지켜 보신다. 마치 포도를 거둬들이기 전에 그 가지를 다 찍어 들짐승들에게 끼쳐주듯이, 지상의 한 제국이 그 세력과 영화의 절정에 달하기 전에 심판의 칼에 베일 것이다 (이사야 18:4-6). 이사야 17:12-14 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사야는 비유를 통하여 앗시리아의 멸망을 기술하고 있는 듯 하다.

한 때 천하를 떠들석하게 하고 민족들을 괴롭혔던 대제국의 멸망은 원방의 구스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의 주재이신 야웨 하나님을 찾게 한다. 그들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야웨의 손길을 보고, 마침내 만군의 하나님 야웨를 찾아 시온산으로 예물을 가져온다 (이사야 18:7-8). 빌립의 전도를 받고 세례받은 에티오피아의 내시(사도행전 8:26-39)도 그러하거니와, 기독교 초창기에 많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역사적 사실 역시 이사야 18 장에 대한 성취로 보여진다. 다음의 노래는 아마도 히스기야 왕 때 지어진 것으로서, 이사야 18 장과 비슷한 내용을 표현한다고 하겠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밭 아래 밟으소서. 저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흠으셨도다. 방백들은 이집트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열방들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시편 68:29-32).

이사야 18 장에서는 당시 이집트 땅을 관할하던 구스를 말하고 있고, 19 장에서는 이제 이집트로 향한다. 야웨의 심판이 이집트의 우상들과 이집트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집트 곳곳에 내분이 일어나겠고, 사람들은 마치 정신이 나간 자와 같이 되어 지혜있는 계획도 내지 못하고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들에게나 찾아가서 자기들의 운명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는 결국 잔인한 왕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사야 19:1-4).

거의 전국적으로 일어난 반란과 앗시리아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구스 왕들이 다스리던 제 25 왕조는 막을 내리고, 마침내 주전 671년 삼틱(Psamtik) 1 세로 시작되는 제 26 왕조가 이집트 땅에서 문을 연다. 이집트 제 26 왕조의 왕들은 일반적으로 잔인한 사람들이었다. 54년 간 통치한 삼틱 1 세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아들 느고 (주전 617-601년) 역시 대부역(賦役) 공사로 인하여 악명을 날린 왕이다. 이사야 19:1-4의 예언은 아마도 이러한 시대상을 미리 묘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종종 다른 예언들도 마찬가지로 이 예언도 다른 시대에 얼마든지 다시 성취될 수 있다고 본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으로 인한 재앙은 자연의 재앙까지도 끌어온다. 이집트의 내부적인 소요는 이집트의 생명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나일강 물의 고갈을 가져올 것이다 (이사야 19:5-10).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을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강'이라고도 부른다. 당시 나일강은 전 이집트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원천이었다. 농민에게는 그 범람으로 인하여 비옥한 농토를 마련해주었고, 어부에게는 물고기를, 제조업자들에게는 파피루스와 아마 또는 다른 섬유 재료를,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는 생수를 공급해주는 생명의 원천이었다. 이러한 나일강에 임할 재해는 전 이집트에 대한 심각한 심판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선지자는 '이집트의 기둥들'이라고 할 수 있는 '파라오의 모사들'을 향한 심판의 화살도 잊지 아니한다 (이사야 19:11-15). 야웨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사들의 지혜를 폐하셨으므로, 그들은, 과거 모세 때 파라오의 모사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집트 전체를 망할 길로 인도한다.

이러한 심판들로 인하여 낮아진 이집트는 비로소 유다 땅에 좌정하신 야웨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두려워할 것이다 (이사야 19:16-17). "그 날에 이집트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야웨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이사야 19:18)는 맛소라 성경의 본문은 논리상 모순을 보여준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읍이 '장차 망할 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왠지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고대 헬라이어 번역본인 칠십인역은 이를 '의의 성읍'이라 읽고, 다른 많은 역본들에서는 이를 '태양성'으로 읽는다. 아마도 예루살렘의 종교적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고대 서기관들이 '태양'을 '멸망'으로 바꾸어 놓았을 것이다. 사실 히브리어로 '태양'(**חַמָּס**)과 '멸망'(**חֵרֶס**, **חֵרֶס**)은 거의 같은 발음이며, 표기에 있어서도 첫 글자만 다를 뿐이다. 이집트에는 과거 '태양성'이라는 뜻의 '헬리오폴리스'라고 불리는 성읍이 있었다.

'유대인의 언어가 말해지고,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기는 다섯 성읍이 이집트 땅에 생길 것'이라는 말씀은 이사야가 활동하던 주전 8 세기에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이집트 제 26 왕조의 삼틱(Psamtik) 1 세는 외국인 용병들을 많이 고용하여 자기의 세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바로 이때, 또는 제 26 왕조의 다른 왕 때에 용병으로 이집트에 들어온 유대인들은 나일강 안의 한 섬에 위치한, 엘레판틴이라고 불리는 성읍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엘레판틴의 유대인들이 남긴 기록(파피루스에 적힌 문서들이 대량으로 발견됨)에 의하면, 이들 유대인들은 주전 7 세기 후반기 또는 주전 6 세기 초에 이곳 엘레판틴에 성전을 세웠던 것 같다.

이 역사적 사실은 "그 날에 이집트 땅 중앙에는 야웨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야웨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이사야 19:19)라는 예언의 말씀을 어느 정도 성취시켰는지도 모른다. 이들 엘레판틴의 유대인들이 이사야의 이 예언을 의식하여 성전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의식하지 못한 채 세운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엘레판틴에서의 정착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점차 이집트 곳곳에 이리저리한 이유로 정착의 범위를 넓혀 나간다. 급기야 주전 3 세기에는 지중해변에 위치한 알렉산드리아라고 불리는 이집트 도시에서 모세의 토라(율법)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대사업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로 (구약) 성경의 다른 책들도 모두 헬라어로 번역되어 칠십인역의 완성을 보게 된다. 이방 세계 가운데의 유대인의 존재와 그들이 이루어낸 칠십인역 성경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헬라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과 심지어는 많은 이방 사람들의 마음을 복음을 위하여 준비시켜준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초대 교회가 특별히 이집트 땅에서 꽃을 피운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닐 것이다. 다음에 계속하여 나오는 예언의 말씀은 과거 (또는, 아마도 미래에 다시 있게 될) 이집트의 복음화와 관련시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야웨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야웨께 부르짖겠고 야웨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야웨께서 자기를 이집트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이집트인이 야웨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야웨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라. 야웨께서 이집트를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야웨께로 돌아올 것이다. 야웨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이사야 19:20-22).

이제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뿐만 아니라, 이 둘 외에 당시 천하를 소란케 하던 앗시리아까지 포함하는 세 나라의 유대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이 유대 관계는 군사 동맹이나 주종의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요, 다 함께 '평화의 왕'을 섬기는 진정한 평화와 복스러운 공존의 관계이다: "그 날에 이집트에서 앗시리아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앗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겠고 이집트 사람은 앗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앗시리아 사람과 함께 경배하라. 그 날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앗시리아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야웨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이집트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앗시리아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 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이사야 19:23-25).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앗시리아와 이집트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끼여서 항상 피해만 입어 오던 터였다. 앗시리아에 의존하면 그에게 속국이 되면서 이집트를 원수로 만들게 된다. 반대로 이집트에 원조를 청하면 결국 도움도 받지 못할 뿐더러, 허무하게도 이집트의 패배를

목도하게 된다. 그러나 지상의 대제국들이던 이집트도 앗시리아도 쓰라린 심판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고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웨께로 돌아오게 된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일은 메시아 왕국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이다. '그 날에는' (이 표현이 이사야 19:16-25 사이에 여섯 번이나 나옴을 주목할 것), 곧 메시아 왕국이 이르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야웨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나라가 아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 바울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이사야의 예언과 같은 맥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와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중략].....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15-22)

먼 미래의 희망찬 얘기를 언급한 후, 이제 이사야는 다시 구스와 이집트의 가까운 장래일로 돌아온다. 먼저 이사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해에 발생한 한 역사적 사건을 밝힌다: "앗시리아 왕 사르곤이 군대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이사야 20:1). 사르곤은 주전 722-705년 사이에 앗시리아를 통치하였다. 주전 723년 앗시리아의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직후인 주전 722년에 사르곤은 북 왕국 이스라엘 지파들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다가 다른 곳으로 옮긴다. 사르곤은 계속하여 블레셋 지역으로 진격하여 가사 왕을 사로잡고, 원군으로 나온 이집트의 사바코(Sabacos)를 격퇴시킨다. 그러므로 이사야 20:1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건은 아마도 사르곤 통치 초기에 있었을 것이다.

이사야가 받은 말씀은 '앞으로 삼 년이 차면 앗시리아 왕이 이집트와 구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사야 20:2-4). 유다 사람들이 대제국으로 간주하여 은근히 기대는 이집트가 이처럼 허깨비처럼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보고, 유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사야 20:5-6).

바벨론과 남쪽 나라들의 멸망 (21:1-17)

이사야는 다시 '해변 광야', 곧 바벨론에 대한 경고로 돌아온다 (이사야 21:1-10). 바벨론을 공략할 세력으로서 여기서는 메대 (이사야 13:17) 외에 엘람도 언급되어 있다. 바벨론이 이들 군대에 의하여 무너질 것은 '만군의 야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이다.

그 다음은 두마에 대한 경고이다 (이사야 21:11-12). 창세기 25:14 에 의하면, 두마는 이스마엘의 아들들 중 하나이다. 세일도 언급된 점을 보아 이는 전체적으로 에돔을 가리키는 듯 하다. 역사의 아침이 오듯이 역사의 밤도 온다. 앗시리아가 끝나면 바벨론이, 바벨론이 꺾이면 페르시아가, 그리고 페르시아 다음에는 헬라와 로마 제국 등이 연이어서 들이닥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에돔은 결국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고 만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사막에 거하는 아라비아 역시 전화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21:13-17). '게달'은 아라비아 지역에 사는 부족들에 대한 통칭이다.

'이상 골짜기' 곧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 (22:1-25)

'이상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환락으로 떠들던 성읍에 결박과 죽음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장기간의 포위 공격 동안에 성을 빠져나가 도망하는 자들은 발견되는 대로 잡히거나 살상을 당할 것이다. 이 일을 미리 보는 선지자는 위로받지 못할 슬픔에 빠진다 (이사야 22:1-4). 성벽을 무너뜨리고 산을 울리며 진격하는 군대는 엘람과 키르 사람들을 주력 부대로 하는 앗시리아 대군이 될 것이다. 이들은 예루살렘 주변 골짜기를 병거로 가득 채우고, 성문 앞에는 마병을 주둔시킨다 (이사야 22:5-7).

적군은 '유다의 휘장'을 벗긴다 (이사야 22:8). '유다의 휘장'이란 표현은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이끄는 유다 땅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엘라 골짜기에 위치한 요새성 '아세카'를 가리키든지, 아니면 아세카 근처의 중요한 거점인 라기스를 가리킬 것이다 (이사야 36:2 참조). 라기스(또는, 아세카)는 이미 적군의 말발굽 아래 짓밟혔다. 슈펠라(유다 산지와 블레셋 평지 사이에 위치한 구릉 지대)에 자리잡은 라기스와 아세카는 유다의 군사적 요충지로서, 이러한 성들의 함락은 곧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의 위험을 말해주는 것이다.

예루살렘의 길목을 지켜주는 슈펠라 요새들이 하나 둘 무너지면서, 예루살렘 성 안의 유다 조정과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보다는 도리어 자기들의 국방력을 의존하며, 군사적 방어 태세에만 만전을 기한다 (이사야 22:8-11). '수풀 궁'은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 안에 지은 '레바논 수풀 궁'을 가리킨다 (왕상 7:1-8). 솔로몬은 이 궁전을 무기고로도 사용하였다 (왕상 10:16-17). 이사야 22:8 은 적군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접근해오자 성 안의 사람들이 무기고에서 무기를 꺼내어 준비를 하는 모습을 묘사한다.

그 다음 단계의 방어 준비는 다윗성을 견고히 수축하는 일이다. 성벽의 무너진 데를 조사하고, 더불어 성 안의 집들을 계수한다. 일부 집을 헐어 그 돌로 허물어진 성벽을 수축한다. 그리고 포위에 대비하여 성 안에 수원을 확보한다. 이들은 자기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야웨에 의한 것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에게 돌아오지도 않는다 (이사야 22:9-11).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목적은 그들의 회개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에 빠져 있으면서도 회개는 커녕 도리어 더욱 방자하게 '내일은 끝장이니 오늘 실컷 먹고 마시고 놀아보자'는 식의 쾌락 주의와 허무 주의에 빠지는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의 죄악은 속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22:12-14).

이사야 22:1-14의 메시지는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앗시리아의 침입과 조화를 이룬다. 이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이사야 36-38장에서 있을 것이다. 이제 야웨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한 일반적인 경고에서 그 안에 사는 한 고위 관리에 관한 얘기로 옮겨간다. 국가적 또는 사회적 재난은 개개인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난 중에도 국가나 사회 전체, 즉 백성에 대한 염려보다는 개인의 영달과 이익에만 집착하는 고관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이야 말로, 자기 백성이 구원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션나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되어 있다 (이사야 22:15-19).

션나는 왕궁 안에서 일을 맡은 고관이었다. 그는 아직 살아있는 동안 돈을 들여 자기의 무덤을 준비하고 있었다. 옛날 유다의 고관들이나 부자들은 살아 생전에 자신과 가족의 무덤을 미리 파 두어 준비하는 예가 있었다. 당시의 무덤 형태는 동굴을 넓게 파고 그 안에 침상 모양으로 시신을 눕혀놓을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돈이 많거나 능력 있는 사람일 수록 무덤 내부 공간은 넓어지고, 침상의 수도 많아지게 마련이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일 경우 성에서 가까운 동쪽 언덕, 그것도 아래 골짜기 쪽이 아닌 언덕 높은 곳은 명당의 조건으로서 충분한 곳이다. 지금도 예루살렘 일대에는 오랜 옛날의 무덤들이 도처에 남아 있다. 더욱이 다윗성 맞은편의 언덕에 파여진 몇몇 무덤은 션나의 무덤을 연상시켜주는 적절한 예가 될 것이다.

션나의 죄악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없으나, 그는 자기의 권세를 믿고 몹시 이기적이고 거만하게 행동했던 것 같으며, 게다가 '다윗 왕조에 수치를 끼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을 자기 무덤에 편히 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는 저주를 받아 자기 관직에서 쫓겨나고 멀리 붙잡혀가서 객사로 인생을 마칠 것이다.

하나님은 션나의 관직과 그가 누리던 모든 권세와 영화를 엘리아김에게 물려주실 것이다. 엘리아김이 행사할 권한과 능력은 거의 절대적인 것이어서, 그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위에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요, 다윗 왕조의 비호 아래 마음껏 권세를 행사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온 집안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며, 그의 모든 자손과 온갖 집안 사람들까지도 그를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22:20-24).

이사야 22:25의 '단단한 곳에 박힌 말뚝'은 앞의 23절에서 엘리아김을 가리킨 것으로 보아, 여기서도 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25절은 엘리아김 역시 션나처럼 결국은 자기의 권좌에서 떨어질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25절이 20-24절에 연결된 내용이 아니요 15-19절의 연속이라면 (이 경우 20-24절은 마치 괄호 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25절의 '단단한 곳에 박힌 말뚝'은, 23절에서와는 달리 션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20절과 25절 첫머리에 '그 날에'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20-24절과 25절이 대등하게 션나의 파멸의 날과 관련된 일들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경우 엘리아김에게는 전혀 저주의 말씀이 없고, 오직 션나에게만 저주가 있을 뿐이다. 참고적으로 션나와 엘리아김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로서 성경 몇몇 곳에서 나란히 등장한다 (이사야 36:3, 11, 22; 37:2; 왕하 18:18, 26, 37; 19:2 참조).

두로에 대한 경고 (23:1-18)

이사야 13-23장('이방 세계의 운명')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되어 두로의 멸망에 관한 메시지로 끝을 맺는다. 두로는 시돈과 더불어 당시 페니키아(오늘의 레바논 지역)의 중심 도시였다. 바벨론이 당시 세계의 제국주의적 세력이었던데 반하여, 페니키아는

당시 세계의 상권을 주름잡은 또 다른 세력이었다. 전자는 육지의 세력을 후자는 해상의 세력을 쥐고 있었다. 전자는 무력에 의하여 나라들을 정복한데 반하여, 후자는 가능한 한 평화적인 태도의 무역 활동에 의하여 지중해변 여러 도시에 상업 식민지를 건설하고 온 세상의 재물을 긁어모은 경제적 세력이었다.

열방에 임하는 비극적 운명을 두로 역시 피할 길이 없다. 지중해변 도시들을 다니며 무역을 하는 선박들이 두로로 돌아오는 길에 키프로스 섬에 도착하였을 때, 사람들은 두로의 멸망에 관한 소식을 듣는다. 그 배들은 이제 정박할 항구를 잃은 것이다 (이사야 23:1). 배로 나일강 변을 비릇 온 천하를 다니며 부를 축적해온 페니키아 주민들이 이제는 놀라서 입을 열지 못할 때가 이른 것이다. 두로의 무역 활동에 의존하던 이집트 역시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할 것이다 (이사야 23:2-5).

두로의 상인들은 식민 도시들로 도망가기 시작한다. 멀리 갈수록 안전하다 생각하여 가능한 한 먼 곳으로 도망할 것이다. 만군의 야웨께서 두로의 교만을 꺾으셨기 때문에 두로는 더 이상 그 주민들에게 '희락의 성'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두로의 멸망으로 그 식민 도시였던 다시스도 해방을 얻고, 페니키아 상인들은 키프로스 같은 과거의 식민지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23:6-12).

앗시리아가 갈대아 사람의 땅을 폐허로 만든 것처럼, 두로 역시 재앙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23:13-14). 그리하여 두로는 70 년간 잊혀졌다가 그 후에야 다시 과거처럼 활발한 무역 활동을 재개할 것이다. 이때 그들은 이 일이 야웨로부터 나온 일임을 깨닫고, 자기들이 얻은 이득으로 야웨의 백성을 배부르게 먹일 것이다 (이사야 23:15-18).

두로에 관한 이 예언이 과거에 언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분명치 않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제국이 그 세력을 휘두를 동안 많은 나라들이 70 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예레미야 25:11). 그리고 이 기간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나라가 유대였다 (예레미야 29:10; 대하 36:21,22; 에스라 1:1; 다니엘 9:2). 두로에게 있을 70 년은 아마도 바벨론 제국이 패권을 휘두르는 기간과 일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예언의 성격으로 보아, 두로에 관한 예언은 과거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와 유사한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그 성취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상의 모든 나라들이 야웨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는 날, 메시아의 왕국은 영원히 굳게 설 것이다.

마지막 심판과 구원: 제 24-27 장

앞서 언급한 대로 이사야 1-12 장을 통하여 선지자의 메시지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도 특히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13-23 장에서 그의 메시지는 주로 이방 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돌려진다. 7-12 장에서 제국들의 흥망과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있는 후, 13-23 장에서 자연스럽게 메시아의 통치 영역에 포함될 이방 세계의 운명을 언급하듯이, 24-27 장 또한 자연스럽게 13-23 장을 이어 메시아의 통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마지막 심판'에 관한 예언으로 이끌어준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야웨 하나님은 사탄의 배후 조종과 죄의 권세로 인하여 당신의 관할을 떠난 세상 사람들을 다시 자기 권세 아래로 이끌어 오기를 원하신다. 이 일은 마치 큰 전쟁과도 같아서 인간이 사는 지상에서는 이와 관련된 각종 전투와 다양한 작전들이 펼쳐질 것이다. 과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시어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신 일은 하나의 작전이었다. 아브라함은 장차 야웨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올 한 백성과 (이사야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전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장차 오실 왕 메시아의 조상이 될 사람이기에 (창세기 22:18),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열방의 모든 권세로부터 보호해 주셨다.

요셉을 미리 이집트로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목숨을 기근에서 구하심도 하나의 작전이었다. 학대받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 일은 하나의 대작전이었다. 이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집트 땅은 거의 초토화되고 그 장자를 모두 잃었으며, 가나안 거민들은 완전히 뿌리뽑혀야만 했다 (물론 이 후자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신 일 역시 하나의 작전이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관한 하나님의 작전들은 시편 105 편에 잘 요약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제 그 몇 절만을 발췌하여 소개하기로 하자.

야웨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그 중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야웨 우리 하나님이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또 그 중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야웨의 표징을 보이고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야웨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좃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야웨 하나님께서 당신의 궁극적인 구원 목적을 이루시고자 지상에서 펼쳐시는 각종 전투와 작전들을 묘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 구원은 달리 표현하면 그가 세우신 왕 메시아를 통하여 당신의 통치권을 온 세상에 완전하게 펼치는 것이다. 7-23 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국부적인 전투들을 묘사한 셈이다. 그러나 이제 24-27 장에 이르러 그는 최후의 대전투, 곧 '마지막 심판'을 시적으로 그려주고 있다. 이 '무시무시하고도

참혹한 심판'을 시적인 묘사로 잘 처리하고 있는 선지자의 언어적 재주는 가히 칭찬할만 하다. 더불어 선지자는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을 아름다운 언어로 노래하는 일도 잊지 않고 있다.

은 땅에 임할 심판 (24:1-23)

'공중의 권세 잡은' (에베소서 2:2) 사탄의 집념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어서 그는 지상의 제국들을 통하여 자기의 악랄한 통치를 유감없이 발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야웨께서는 지상 열국의 수라장 속에서도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 중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열방 중에서도 자기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야웨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모든 세력들을 완전히 꺾으실 것이다.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으로 시작되어 (요한 12:31,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가 재림하시는 날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이다.

이사야 13-23장을 통하여 선지자는 바벨론의 멸망에서 시작하여 두로의 운명에 이르기까지 당시 제국들의 낮아지고 꺾어질 운명을 서술하였다. 이제 24장에 이르러 그는 어느 특정 제국보다는 전체적으로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자 한다. 24장에서만도 '땅'을 뜻하는 히브리어 낱말 '아레츠'(אֶרֶץ)가 16회나 나오는 것을 보아, 이사야 24장이 이스라엘 땅이나 다른 특정한 땅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기 보다는 '지구 전체'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절에서 '아레츠'가 보통 지구 전체를 뜻하는 동의어 '테벨'(תֵּבֶל)과 대구(對句)를 이루어 쓰이고, 또 13절에서 같은 '아레츠'가 '백성들'과 대구를 이루어 사용된 (개역은 대구를 무시하고 둘을 하나로 합하여 "세계 민족 중에"라고 번역함. 표준 새번역의 "이 땅에...백성에게"를 참조할 것) 사실 역시 이 주장을 옹호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야웨의 마지막 심판은 인간의 보금자리인 땅에 큰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1 절), 세상에서 구별하는 빈부귀천의 개념은 그 의미를 상실하고 만다 (2 절). 이 일은 야웨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3 절). 땅이 초토화되고 더럽혀짐은 그 위에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르치신 법도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이다 (4-5 절).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 인간의 불순종은 인간 스스로의 과멸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하는 땅에 대한 저주도 동반하여 초래한다 (6 절).

과거 농경 사회에 있어서 풍성한 소출을 통하여 배부르게 먹고 마실 수 있음은 기쁨의 근원이었다. 그러나 땅의 초토화로 이런 기쁨도 끊어질 것이다. 성읍도 그 안의 집들도 모두 부서지고 텅텅 비게 될 것이다. 땅의 기쁨이란 다 사라지고 도시에는 오직 폐허만이 남아서 슬피 부르짖는 소리가 거리를 진동할 것이다 (7-12 절).

심판의 결과로 "땅에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6 절), 이는 마치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를 딴 후에도 높은 가지 위에 열매가 더러 남아 있음 같고, 포도 수확이 있을 후에도 이 가지 저 가지에서 포도 송이 얼마를 따냄과 같다. 이러한 현상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사야 17:4-6), 온 땅 위에, 다시 말해서 만백성 중에 사실로 드러날 것이다 (13 절). '남은 자'에 관한 사상은 이사야의 메시지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이다.

14절의 주어인 "그들"(הַמַּיִם)은 6절과 13절에서 언급한 '남을 자'를 가리킨다. 이들 '남은 자들'은 소리를 높여 환호할 것이다. "바다에서 야웨의 위엄을 기뻐하여 크게 외칠 것이다" (14절). 히브리어 성경에서 '바다' 또는 '대해(大海)'는 보통 '지중해'를 가리킨다. 그리고 지중해는 이스라엘 땅 서쪽에 위치하므로 히브리어에서 '바다'를 뜻하는 낱말 '얌'(יָם)은 때때로 '서쪽'을 뜻하기도 한다. 14절의 경우도 '바다'는 15절의 '바다의 섬들'과 더불어 다분히 '서쪽', 곧 지중해를 끼고 있는 유럽 지역을 가리킴에 거의 틀림없다. 참고적으로 보통 '섬'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이'(יָ)는 성경에서 대부분의 경우 '바다 건너 멀리'에 있는 해변의 땅'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 (이사야40:15; 41:5; 42:4, 10; 49:1; 51:5; 60:9 등 참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웨의 이름'은 서방에서 뿐만 아니라 동방에서도 존귀를 누릴 것이다 (15 절). 그리하여 동서를 막론하고 땅 끝에서부터 '의로우신 분에게 영광을!' 하는 찬양이 들릴 것이다 (16 절). 이 예언의 말씀은 만백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생김으로써 성취되었고 또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이사야 59:19; 말라기 1:11; 시편 113:3; 마태 8:11-12; 누가 13:29; 에베소서 3:6 등 참조).

먼 장래의 영광에 잠시 취해 있던 선지자는 다시 가까운 장래에 있을 대비극을 바라보고는 '슬픈 탄식'을 발하게 된다 (16 절 하반기). 궁극적인 구원으로 향하는 이 땅 위에는 마지막으로 무서운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 재앙은 땅에서는 거대한 진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죽음으로 나타날 것인데, 이 모두가 인간의 무거운 죄 때문이다 (17-20 절).

마지막 심판은 땅과 그 위의 인간 뿐만 아니라, 하늘 위의 존재들도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21-22 절). "높은 곳의 군대"(צְבָא הַמָּרוֹם, 쓰바 하마롬)는 다른 말로 "하늘의 군대"(צְבָא הַשָּׁמַיִם, 쓰바 하샤마임)라고도 하는데, 이 표현은 '하늘의 별들'을 뜻하기도 하고 (이사야 34:4; 40:26; 예레미야 33:22), '하늘의 천사들'을 뜻하기도 한다 (왕상 22:19; 시편 148:2). 이들도 본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세기 2:1),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여야 할 터인데 (느헤미야 9:6),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종종 인간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신명기 4:19; 17:3; 왕하 17:16; 21:3, 5; 23:4, 5; 예레미야 8:2; 19:13; 스바냐 1:5).

마지막 심판 날에 야웨께서는 위(하늘)에서는 '높은 곳의 군대', 곧 모든 천사들을 심판하시고, 아래(땅)에서는 '땅의 왕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성경은 '하늘의 군대', 곧 천상의 영계(靈界)와 '지상의 세력'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니엘 8:10; 10:13, 20-21; 12:1; 왕상 22:19-23 등 참조). 참고적으로 칠십인역에서는 신명기 32:8 을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맛소라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로 읽고 있다.

이사야 24:22(그들이 죄수와도 같이 구덩이에 모아지며 감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는 신약 성경의 다음의 말씀들과 연관시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벰후 2:4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유다서 6 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계시록 20:1-10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간 놓이리라....천년이 차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늘과 땅에서 모든 거스리는 존재를 벌하신 후, 만군의 야웨께서는 새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친히 왕노릇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찬란한 영광으로 인하여 해와 달의 광채도 무색하게 될 것이다 (23 절).

심판 중에 만백성이 야웨의 의를 배움 (25:1-27:1)

은 땅과 그 거민을 심판하시고, 친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야웨 하나님, 그분은 선지자에게 찬송과 영광의 대상이시다. 이제 이사야는 심판주이자 구원주이신 야웨 하나님을 시와 노래로써 찬양한다.

우선 그는 사납고 잔인한 열강의 요새와 도시들을 폐허로 만드시고 친히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야웨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사야 25:1-5). 이런 계획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야웨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그분은 반드시 계획하신 바대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이때 이방인들도 야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피난처 되신 야웨 안에서 보호를 받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 관하여는 이사야 14:30; 29:19 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시편에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보호하시는 야웨에 대한 찬양이 곳곳에 담겨 있다 (시편 12:5; 35:10; 40:17; 69:33; 70:5; 72:4, 12-14; 74:21; 82:3-4; 86:1; 109:22; 132:15; 140:12).

25:6-8 은 24:23 의 연속이다. 이들 사이에 이사야의 찬미시(25:1-5)가 삽입되어 있을 뿐이다. 야웨께서는 '이 산', 곧 시온산에서 만백성을 위하여 풍성한 잔치를 베푸신다. 만백성의 마음을 덮어왔던 '면박과 덮개'(고후 3:15 참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까지 그들 위에 군림하여온 '죽음'을 영원히 '제하신다' (문자적으로 '삼키신다'). 그뿐만 아니라 야웨께서는 이들 '자기 백성'이 지상에서 당한 모든 수치를 없애 주신다. 이 약속은 야웨께서 말씀하신 것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일은 사도들도 강조하여 다루고 있다 (고전 15:50-56; 계시록 21:1-4 참조).

'그 날에' 다음과 같은 기쁜 노래가 울려 퍼질 것이다: "보라, 이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린 야웨이다. 그의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25:9). 25:10-12 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웨의 백성'을 향하여 거만하게 행하는 자들의 비극적 종말을 시온산 인근에 위치한 모압을 예로 들어 기술하고 있다. 모압은 에돔과 더불어 (이사야 34:5-7 참조) 발람이 예언한 바, '장차 야곱에게서 나올 한 별', 곧 메시아에 의하여 파멸될 민족에 속한다 (민수기 24:17-18 참조).

요르단 강 동편에서 모압의 교만이 짓밟히는 동안, 강 서편 유다 땅에서는 기쁨의 노래가 메아리칠 것이다 (26:1-19). 이 노래는 야웨께서 '구원으로 성곽을 삼으신 견고한 성'에 관한

것이다 (1 절). 이 성에 들어올 시민들은 '진실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고이 짜딕, גוֹי צַדִּיק)'이다 (2 절). '영원한 반석'되신 야웨께서는 당신을 '의존하는 이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3-4 절). 모압과 같이 (25:10-12 참조)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는 야웨이시니 그는 얼마든지 의존할 수 있는 분이시다 (5-6 절).

정직하게 행하는 의인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야웨의 길에서 그를 기다리며, 그의 이름을 사모한다. 왜냐하면 야웨께서 온 땅을 심판하실 때 만민이 그의 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7-9 절). 악인은 의를 배우지 못하고 야웨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 (10 절). 그러나 자기 '백성'('암', אֱמ)을 위한 야웨의 '열정'을 보고는 그들도 마침내 부끄러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불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웨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평강으로 다스리시며, 그들은 영원히 야웨만을 기억할 것이다. (11-14 절).

야웨께서는 이 의로운 '나라'('고이', גוֹי)를 큰 나라로 만드시고 그 통치 영역을 땅끝까지 확장하신다 (15 절). 이사야는 26:2, 15 에서 보통 '백성'을 뜻하며 자주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는데 쓰이는 히브리어 낱말 '암'(אֱמ)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방(異邦)'이나 아니면 단순히 '나라' 내지 '민족'을 뜻하는 '고이'(גוֹי)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야웨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자손과 이방인이 모두 포함되는 '확장된' (15 절 참조) 하나님의 '백성(암, אֱמ)'(25:8; 26:11, 20 참조)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의 구분이 필요없다. 거기에는 오직 야웨만을 의지하며, 그만을 사모하며, 정직하게 행하는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을 뿐이다.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을 택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한 나라'를 세우신다. 주전 8 세기에 유다 땅에서 살았던 '택함받은 백성'에게는 너무나 요원(遙遠)하고 의심스런 일로 들렸는지 모르나, 당시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비친 것이다.

일찍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환란과 징벌 중에서야 비로소 야웨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에게 기도를 올린다 (26:16). 이들은 '해산의 고통'과도 같은 고난을 겪지만, 땅 위에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심판으로 인하여 텅 비게 된 세상에 거민도 내놓지 못한다 (26:17-18).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 뜻대로 '구원은 오직 야웨 하나님께' 속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 위에 세우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야웨께서 친히 세우시는 것이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그 백성을 예비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요, 구원이다 (26:19).

여기 이사야 26:19 에서 언급하는 죽은 자의 부활은 계시록 20:4-6 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을 의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대심판(이사야 26:20-21)에 관하여는 계시록 20:7-15 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계시록 20 장이 전체적으로 이사야 26:19-21 을 보다 상세히 묘사하는 것임이 분명할 때, 연이어 나오는 이사야 27:1 역시 (이사야 24:21-22 이 계시록 20:1-3 에서 반영되듯이) 계시록 20:10 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시록에서는 '마귀, 곧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불린 삼자(三者)가 유향 못에 던져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에서는 '날랜 뱀 (모양의) 리워야단과 꼬불꼬불한 뱀 (모양의) 리워야단과 바다의 용'이라고 불린 세 종류의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사야 27:1 에서 언급한 세 동물은 궁극적으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바 사탄의 삼위(三位)를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적으로 이 사탄의 삼위(三位)를 물리치는데 쓰이는 칼을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이라고 세 가지 형용사로 묘사한 것은 '언어의 천재'로서의 이사야의 일면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리고 '리워야단'은 구약 성경에 모두 6 회 나오는데 (시편 74:14; 104:26; 욥기 3:8; 40:25), 우리 동양의 '용(龍)'에 해당하는 전설적인 바다 괴물이다. 이 낱말은 성경에서는 시적인 표현에 사용된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 (27:2-13)

마지막 심판으로 인하여 열국의 만백성이 야웨의 의를 배우는가 하면, 이스라엘 또한 다시 한번 과거에 누렸던 영광을 회복하게 된다. 선지자는 우선 '아름다운 포도원 노래'(2-5 절)를 들려준다. 여기서 '포도원 노래'는 앞서 나오는 것(이사야 5:1-2)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야웨께서 친히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밤낮으로 그것을 돌보신다. 누구든지 이 포도원에 해를 가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진멸될 것이다. 그러므로 차라리 야웨를 의지하고 그와 화친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야웨 하나님의 새로운 긍휼은 장차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꽃을 피우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는 온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6 절). 이 예언의 말씀은 후에 다시 바울을 통하여 약간 다른 말로 표현되었다 (로마서 11:12, 15): "저희(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 모든 성도는 더 큰 복, 곧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이다.

이사야 5:1-2 의 '포도원'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포도원'은 '전혀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는' (4 절 참조) '탐스러운' (2 절 참조) 포도원이다. 이 포도원은 6 절에서 말하는대로, 장차 회복될 영광스런 이스라엘이요, 또 '온 땅에 가득한 열매', 다시 말해서 땅 위의 만백성 가운데 야웨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이사야 26:2, 15 참조) 복합적으로 의미한다고 보겠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에 관하여는 사도 바울 역시 웅변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로마서 8:31-39).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수 없으리라.

선지자는 이제 '장래 이스라엘의 영광' 이전에 있을 일을 덧붙인다 (이사야 27:7-13). 우선 하나님은 이들 택한 백성을 형벌하실 때 이방과는 달리, 오직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목적으로 적당하게 견책하신다 (7-8 절). 그리하여 그들이 섬기던 모든 이방 제단과 우상들이 훼파되고, 그들의 땅이 황폐하여 오랫동안 버려진 다음에야 '야곱의 죄악'이 속량함을 받을 것이다 (9-11 절). 그 후에 하나님은 온 땅에 흩어진 이 백성을 하나하나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 모으실 것이요, 돌아온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야웨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12-13 절). 호세아 선지자 역시 이와 비슷한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 (호세아 3:4-5).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야웨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하므로 야웨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진정한 도움, 진정한 왕: 제 28-33 장

이사야 제 28-33 장에 나오는 말씀들은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의 역사적 상황에 필요한 말씀인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하고 유효적절한 말씀이다.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수단 방법을 더 믿고 의지하는 교인, 조용히 '하나님의 뜻과 행동'을 기다리기보다는 처세술이나 인간적인 판단에 입각하여 '자신의 행동'을 서두르는 교인에게 아주 적절한 경고의 말씀이 될 것이다.

'이사야'라는 이름이 보여주듯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야웨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실지 '그 계획과 방법과 장래의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모두 알고 계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식을 거절하거나 무시하고 인간적인 처세술에 근거하여 일을 꾸미는 자는 결국 화를 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동조하여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자만이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마음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사야 제 28-33 장에는 '오호라'라고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어 '호이'('הוי)로 시작되는 여섯 번의 경고가 나온다 (28:1; 29:1; 29:15; 30:1; 31:1; 33:1). 에프라임, 곧 북 왕국 이스라엘의 지배층에 대한 경고로 시작되고, 유다에 대한 경고를 거쳐,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와 장래의 구원으로 끝을 맺는 이 부분은, 위기시 참된 도움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종국에 가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야웨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리고 있다.

앗시리아의 위협과 그 결과

그러면 이사야 제 28-33 장의 메시지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유다 왕 아하스 때부터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앗시리아의 위협과 그에 따른 결과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유다 왕 아하스 때 (대략 주전 734 년),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침입으로 유다 거의 전 국토가 초토화되자, 유다는 앗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청한다 (대하 28:16). 이에 앗시리아 왕은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아람의 왕도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가고 또 르신을 죽였다 (왕하 16:9). 앗시리아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디글랏 빌레셀 3 세는 주전 734-732 년 사이에 아람을 침공하였으며, 다메섹은 주전 732 년에 완전히 함락되었다.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 역시 디글랏 빌레셀 3 세에게 국토의 3분의 2 를 빼앗기고, 많은 백성은 사로잡혀 가게 되었다. 이 일로 베가의 통치가 막을 내리기 시작한 것도 당연한 일이다 (왕하 15:29-30).

한편 앗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 3 세는 유다를 돕기는 커녕 도리어 유다를 쳐서 더욱 곤경에 빠뜨렸다 (대하 28:20). 할 수 없이 아하스는 성전과 왕궁과 대신들의 집에서 보물을 꺼내어 앗시리아 왕에게 바친다 (왕하 16:7-8; 대하 28:21). 그는 앗시리아 왕에게 복속하고 조공을 바쳐야 했던 것이다.

주전 727 년 앗시리아 왕 살만에셀이 침공하자, 북 왕국 이스라엘의 최후 통치자 호세아는 그에게 신복하고 조공을 바친다. 얼마가 지나서 호세아는 이집트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내통하고는, 앓시리아를 배반하여 그에게 더 이상 조공을 보내지 않는다. 호세아의 반역은 앓시리아 왕의 진노를 불러 일으켜 결국은 북 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하고 만다 (주전 723 년). 이때는 바로 유다 왕 히스기야 제 6 년이었다.

주전 722 년에 앓시리아 왕 사르곤은 북 왕국 이스라엘 지파들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다가 다른 곳으로 옮긴다. 사르곤은 계속하여 블레셋 지역으로 진격하여 가사 왕을 사로잡고, 원군으로 나온 이집트의 사바코(Sabacos)를 격퇴시킨다 (이사야 20:1-6 참조).

히스기야 제 14 년, 곧 주전 715 년에 있었던 앓시리아의 유다 침입은 거의 유다 전 국토를 초토화시켰고 예루살렘만이 덩그렁 남게 되었다 (왕하 18:13-16). 이사야 7:18 의 '이집트 나일강 끝에 있는 과리'는 어쩌면 이때 앓시리아의 산헤립과 싸우고자 출정한 '구스 왕 (당시는 아직 왕자였다) 티르하카'를 (왕하 19:8-9) 가리킬 것이다. 이 해에 앓시리아 왕은 유다와 이집트에 세금을 부과시킨다 (왕하 18:14-16 참조). 이집트 제 25 왕조의 왕들은 구스, 곧 에티오피아 왕들이었다. 거의 전국적으로 일어난 반란과 앓시리아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구스 왕들이 다스리던 이집트 제 25 왕조는 막을 내리고, 주전 671 년 마침내 제 26 왕조가 그 문을 연다.

주전 8-7 세기 사이에 근동의 주변 국가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던 앓시리아는, 주전 613 년에 바벨론이 니느웨를 함락시킴으로써 완전히 무너진다.

에프라임과 유다의 지배층에 대한 경고 (28:1-29)

'오호라'(히브리어로 '호이' 'הוי')로 시작되는 첫번째 경고(28:1-29)는 남북 두 왕국의 지배층에 대한 것이다. 1-4 절은 '에프라임의 취한 자들', 곧 교만하고 환락에만 빠져 있는 북 왕국 이스라엘의 지배층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 여기서 '에프라임'은 북 왕국 이스라엘의 대표적 지파로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쓰인 이름이다 (이사야 7:2, 5, 8, 9, 17; 9:9; 11:13; 호세아 5:12, 13, 14; 6:4, 10 등 참조). 야웨께서는 '강하고 힘 있는 군대'를 보내시어 이들을 짓밟게 하실 것이다. 에프라임은 마치 '제 철(여름)이 오기도 전에 먼저 익어서 사람이 보자마자 따 먹고 싶어하는 향내나고 탐스러운 무화과 열매'와도 같아서 (이 비유에 대하여는 호세아 9:10; 미가 7:1 를 참조할 것), 적군의 눈에 띄자마자 약탈의 대상이 될 것이다.

에프라임의 '자랑스런 면류관'은 그들의 지배층이 아니다. 장차 야웨께서 에프라임의 남은 백성에게 친히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실 것이다. 그리하여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공평의 영(靈)'이 되어 주시고, 전쟁에 임한 자들에게는 '사기(士氣)'가 되어 주실 것이다 (5-6 절). 이 세상의 کوت대높은 정치 지도자들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다. 심판을 지난 후에 사람들은 야웨만이 우리 인간의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북쪽 에프라임에 임하는 형벌을 보고 남쪽 유다가 기뻐하거나 잘난척할 이유는 없다. 이제 선지자의 경고의 화살은 남왕국 유다로 향한다 (7-22 절). 먼저 술 취한 주정뱅이가 되어 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를 책망한다 (7-8 절).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직무에 임하는 제사장은 술을 마실 수 없다 (레위기 10:9). 이들은 참 선지자 이사야가 전하는 야웨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각성하기는 커녕, 도리어 비아냥거리는 말로 그를 조롱한다: "도대체 이 자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한테 설교를 한다는 거야? [이제 막] 젖뎀 아이들이나 [엄마] 품에서 떨어진 애들한테 한다는 건가? '중얼중얼, 응얼응얼, 예서 조금, 제서 조금'" (9-

10 절). (10 절은, "마치 코흘리개를 대하듯이 말투마다 명령이요, 어린 아이들에게 알파벳을 가르칠 때 하듯이 꼬치꼬치 짚어 가면서 말하고, 깊이 없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따 와서 가르친다"고 해석하는 이도 있다.) 이는 아테네의 철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바울을 가리켜 '말장이'(헬라어로 σπερμολόγος '스페르모로고스'; 이 낱말은 본래 '곡식 알갱이를 चु는 새'를 가리키는데서 시작하여 '하찮은 것을 구하는 비열한 사람'의 뜻으로 사용됨)라고 부르며 비웃은 것과는 같다 (사도행전 17:18).

'피곤한 백성을 쉬게 하여 모두가 평화롭게 살도록 하라'는 야웨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선지자를 비웃는 이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할 재앙은 '장차 야웨께서 이 백성이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11-12 절). 이는 일찍이 모세가 예언한 재앙 가운데 "야웨께서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을 원방에서부터 데려와서 너를 치게 하신다"고 하였는데 (신명기 28:49), 그 예언이 성취될 것임을 말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선지자 이사야를 비웃은 말 그대로 (10 절 참조), 야웨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중얼중얼, 응얼응얼, 예서 조금, 제서 조금"이 되어 (달리 해석할 경우, "일일히 명령이요, 꼬치꼬치 추궁하는 것이요, 여기저기서 조금씩 가져온 것"과 같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리고 잡히게 할 것이다 (13 절).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방탕한 생활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 역시 불쌍한 백성의 소망이 되지 못한다.

예루살렘의 위정자들은 앗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서 교묘한 외교 활동을 통하여 얼마든지 전쟁의 참화를 피할 수 있다고 믿었다. 거짓과 속임수를 통하여 교활한 정치를 하면서 어떠한 재난도 자기들에게 임할 수 없다고 믿는 이들을 향하여 (14-15 절), 야웨께서는 "시온에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을 두겠다"고 말씀하신다 (16 절). 무슨 재앙에도 요동하지 않을 자는 '거짓과 속임수를 상책(上策)으로 삼는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아니요, 오직 '이 기초들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뿐이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기초돌'이라고 밝히 말한다 (로마서 9:30-33; 벰전 2:4-8; 이사야 8:14 참조).

'공평과 정의'를 통한 메시야의 통치가 확립되는 날, '거짓과 속임수'를 상책으로 삼는 모든 자들은 그 설 땅을 잃게 될 것이다 (17-20 절). 과거 다윗이 블레셋을 바알-프라짚과 기브온 골짜기에서 크게 물리쳤듯이 (삼하 5:17-25; 역대상 14:8-17), 이제 야웨께서는 다윗 왕가와 유다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실 것이다 (21 절).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작정하셨으니, 비웃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한다 (22 절).

에프라임의 지배층을 경고한 (28:1-4) 뒤 바로 그들 중 남은 자를 향하여 희망적인 약속을 던진 것처럼 (28:5-6), 유다의 지도자들을 경고한 (28:7-22) 후에도 선지자는 위로의 메시지(28:23-29)를 잊지 않는다. '언어의 천재'인 이사야는 농사 비유를 통하여, 마치 농부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땅을 갈고 씨앗을 심거나 뿌리고, 익은 곡식을 타작하고, 가루를 내듯이, 야웨께서 이 백성을 여러 모로 다루시고 심판하심도 이들을 멸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축복하시기 위함이라는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적절한 농사법을 가르쳐주신 조물주 하나님은 (26, 29 절), 인간 역사를 다루심에 있어서도 알맞는 법도대로 하신다.

예루살렘의 위기와 구원 (29:1-24)

'오호라'(히브리어로 '호이' 'הוי')로 시작되는 두번째 경고는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다 (이사야 29:1-14). 우선 1-4 절에서는 예루살렘이 적군에 포위되어 극심한 곤경에 처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아리엘'은, 그 어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시적 용어이다. 참고적으로 에스겔 43:15-16 에서 '아리엘'은 새 성전의 '번제단'을 가리킨다. 선지자는 1 절의 "(한) 해 위에 (한) 해를 더하라"(문자적 해석)를 통하여 아마도 '2 년의 세월'을 의도한 듯 하다. 다시 말해서 "2 년 안에" (32:10 의 '1 년 남짓이 지나면' 참조)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사야의 다른 예언들이 그러하듯이 여기서도 예루살렘의 포위에 대한 이 예언은 제 2 차, 제 3 차 얼마든지 더 성취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멸하고자 하는 적군의 의도는 물거품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야웨의 징벌을 피할 수 없다 (5-8 절).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이 적군에 의하여 포위되지만 야웨 하나님의 극적인 간섭에 의하여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의 예언은 요엘 3:1-21; 스가랴 14:1-21; 에스겔 38:1-39:29 등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예언들은 아주 멀리 떨어진 마지막 때의 일임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사람의 지혜나 판단으로 감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야웨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누누이 당신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밝히시고, 믿음을 촉구하신다. 그러나 이 백성의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깨닫지도 못한다 (9-12 절). 이러한 불신과 무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스스로를 속임으로 자초한 것이다. 믿음대로 살지도 않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도 아니하며, 형식과 의식에 치우친 위선적 예배활동 만으로 만족하는 종교인들은 늘 선지자들의 책망의 대상이었다 (이사야 1:10-17 참조).

29:15-24 는 '오호라'('호이' 'הוי')로 시작되는 세번째 경고로서, 내용상 두번째 경고의 연속이다. 야웨의 눈을 피하여 은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다 (15-16 절). 세상에서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 무시하고 조소하는 야웨 하나님은, 마치 기름진 밭을 숲으로, 숲을 기름진 밭으로 바꾸듯이, 멀지 않아서 온 세상의 상황을 뒤집어 엎으실 것이다 (17 절). 지금은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나, 머지 않아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소경'이 보게 되며, '가난한 자들'은 야웨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18-21 절).

그 날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힘을 믿고 남을 압제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 틈만 있으면 악을 행하는 사람' 등을 대신할 것이다 (20-21 절). 야곱 자손, 곧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을 겪은 후에 다시는 옛날과 같지 아니하여,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야웨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그분 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22-24 절). 앞(28 장)의 경고에서도 그러하거니와,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심판하심은 궁극적으로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당신의 '교회'를 심판하실 것이다. 교회의 예배 의식이나 종교적 제도에는 충실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마치 하나님이 못보기라도

하듯이 생각하여 은밀히 죄악속에 사는 '종교인'들은 심판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새로운 질서의 메시아 왕국'에서 사는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헛된 도움을 청하는 어리석은 유다에 대한 경고 (30:1-33)

'오호라'로 시작되는 네번째 경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이집트에 고위층 사신을 파견하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유다 왕조를 향하여 먼저 그 포문을 연다. 이집트는 유다에게 도움은 커녕 창피거리가 될 것이다 (30:1-5). 소안과 하네스는 당시 이집트의 큰 성들이다. 6-7 절은 유다의 사신들이 원조를 청하러 나귀와 낙타 등에 예물을 싣고 네겟 지방의 험한 광야(지금의 시나이 반도)를 지나 이집트로 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6 절의 '네겟의 짐승'은 유다의 사절단을 빗대어 부르는 말일 것이다. '라합'은 아마도 일종의 '바다 괴물'에 대한 명칭으로서 (욥기 9:13 과 26:12 의 칠십인역 참고), 이집트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 (이사야 51:9; 시편 87:4; 89:10).

신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따르지도 않고, 자기 마음의 계획과 자기 지혜대로 일을 추진함도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이 된다. 자기의 상식과 세상 풍조에 의존하여 '남들 모두 하는대로 하루하루를 사는 교인'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식'(1 절 참조)이라는 책망을 들을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여 사는 많은 교인들을 보게 됨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류의 교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과 정도(正道)는 듣기 싫어하고, 자신의 처세술을 뒷바침해주는 '부드러운 아침의 메시지'나 '망상적인 얘기'만을 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이들에게 환영의 대상이 될리 만무하다. 결국 이런 이들의 태도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8-11 절). 12-17 절에서는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헛된 것을 의존하는 이들에 대한 재앙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공평하신 야웨의 자비하심은 인간의 죄악과 그에 대한 심판을 훨씬 초월한다. 많은 사람이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25 절 참조), 죄악된 행실을 버리고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야웨를 기다림으로 시온에 거하며 복을 누릴 '남은 백성'이 있다 (18-26 절). 이 약속은 앞서 나온 28:5-6, 23-29; 29:17-24 의 약속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여기 20 절의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신다' 함은 비록 예루살렘이 적군에 의하여 포위된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도 백성이 최소한의 양식은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왕상 22:27; 역대하 18:26 에서는 포위 또는 감금시 주는 최소량의 식량 배급을 가리킴).

유다 다윗 왕조가 이집트의 도움을 청하러 사신을 거기로 파견한 것은 발등에 떨어진 불 격인 앗시리아의 침입 때문이다. 그러나 야웨 하나님께서는 친히 앗시리아를 심판하실 것이다 (27-33 절). 33 절의 '도벳'은 힌놈 골짜기에 있는 지점으로 거기서 아이들을 몰렉신에게 바치곤 한 곳이다 (왕하 23:10; 예레미야 7:31-32; 19:6, 11-14). 이 때문에 '도벳'이라는 지명에 '진멸과 태움의 장소'라는 뜻이 생겼다. 야웨께서는 앗시리아 왕을 위하여 이미 도벳을 설립하셨고, 거기에 심판의 '불과 유향'을 준비하셨다. 앗시리아를 위한 '도벳'의 준비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곧 하나님을 거스리는 못 사람을 위해 예비해놓은 '불과 유향 못'(계시록 19:20; 20:10)과 일맥상통한다.

헛된 이집트의 도움과 의의 왕국 (31:1-32:20)

다섯번째의 '오호라'는 31:1 에 나온다. 앞서 30 장에서와 마찬가지로 31 장도 야웨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도리어 이집트의 군사력에 기대를 거는 유다와, 더불어 이집트에 대한 경고로 시작된다 (31:1-3). 2-3 절에서 '악을 일삼는 자의 집'과 '도움을 받는 자'는 유다의 지배층을, '악행에 대한 도움'과 '돕는 자'는 이집트를 가리킨다. 이들 둘 다 망할 것이다. 그러나 야웨 하나님께서는 마치 동물계의 왕인 사자가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 먹이를 지키며, 그리고 나는 새와도 같이, 친히 예루살렘을 (앗시리아의 손에서) 방호하며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31:4-5).

이제 선지자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한다. 장차 사람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버릴 날이 있겠고, 앗시리아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으로 패망할 것이니 야웨께 돌아오라고 한다 (31:6-9). 하나님을 거스리고 헛된 것을 의존하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처럼 선지자를 통하여 외치고 또 외치신다. 택한 백성에 대한 그의 긍휼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분노를 초월하기에 그는 부지런히 자기 백성을 경고하시고 동시에 밝은 장래를 약속하시는 것이다.

야웨의 약속은 장차 이 땅 위에 설 '의의 왕국'을 통하여 꽃을 피게 될 것이다 (32:1-8). 이 의의 왕은 곤경으로부터 피난처가 될 것이요, 백성들은 밝히 보고 깨달을 것이다. 더 이상 선과 악을, '우매함'과 '지혜'를 바꾸어 놓는 일이 없을 것이요, 각 사람이 자기의 품성(品性)대로 대우를 받을 것이다.

선지자는 다시 파멸에 대한 메시지로 돌아간다 (32:9-14). 10 절의 '일년 남짓이 지나면'은 아마도 29:1 의 "(한) 해 위에 (한) 해를 더하라"라는 문구와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일년 남짓 지나면' 번창하던 성읍 (예루살렘), 기름진 농토가 초토화되어 들짐승의 초장으로 변할 것이다. 이 메시지는 누구보다도 국가적 안보 및 경제적 안정을 믿고 안일하게 사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적합한 경고임에 틀림없다.

예루살렘의 비운은 위로부터 영(靈)이 쏟아 부어지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리하여 땅도 다시 꽃을 피고, 공평과 정의도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야웨의 백성은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 것이다 (32:15-20). 이 부분은 30:23-26 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적인 미래는 반드시 먼저 심판을 지난 후에 있을 것이다 (19 절; 30:25 참조).

히스기야 시대에 앗시리아의 위협이 있었지만, 앗시리아의 예루살렘 포위 공격은 무위로 끝나고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와는 달리, 파멸을 면한다. 선지자의 경고에 대한 히스기야와 백성의 공손한 태도와 회개 및 그에 따른 종교 개혁 등이 예고된 파멸을 무효화시켰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36-39 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임). 32:9-14 (그리고, 미가 3:12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 같이 값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에 나오는 예루살렘 파멸에 대한 예언은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의 경고로서 끝났으나, 후세에 얼마든지 성취될 수 있고, 또 실제로 성취된 메시지이기도 하다. 사실 하나님은 이 예언의 성취에 관련하여 선지자 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를 염두에 두셨을 것이다.

예루살렘의 구원과 영광(33:1-24)

마지막 '오호라'는 33:1 에 나오는데, 앗시리아에 대한 경고로 시작된다 (1 절). 그 다음에 바로 야웨께 드리는 기도로 이어진다 (2 절). 곤경에 처한 자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오직 야웨 뿐이시다. 야웨의 출동으로 원수들은 모두 무너진다. 그리고 야웨께서는 시온에 공평과 정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때에는 백성이 야웨를 경외함으로 평안함이 있겠고, 지혜와 지식과 구원이 충만할 것이다 (3-6 절).

그러나 선지자는 다시 참담한 현실로 돌아온다 (7-9 절). 앗시리아 군대는 화친을 청하러 온 사신들도 무시하고 파괴와 살육을 일삼고 땅을 초토화시킨다 (왕하 18:13-16 참조). 이처럼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대적의 난무함이 그 극에 치달을 때, 야웨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계실 수가 없다 (10 절). 그는 대적의 도모를 허무로 돌리시고, 불로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다 (11-12 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대적을 멸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과 경건치 아니한 자들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삼키는 불이요, 영원히 타는 불덩이'와도 같은 신 (신명기 4:24; 9:3) 야웨 하나님과 더불어 거할 자는 오직 '의를 행하며 진실만을 말하며 불의의 재물을 거절하며 행악을 멀리하는 사람'(시편 15:1-5; 24:3-6 참조) 뿐이다. 이런 이에게 야웨 하나님은 '안전한 요새'가 되어 주신다 (13-16 절).

17-24 절에서는 장차 회복될 시온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다. 외세의 통치는 꿈처럼 물러가고 예전대로 자국인 왕이 영광 중에 다스릴 것이다. 이는 유다의 히스기야 같은 왕을 가리킬 수도 있으나, 더 멀리는 왕 메시아를 의도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백성이 왕 메시아와 함께 누릴 영광은 20 절 이후에 잘 표현되어 있다. 예루살렘에서는 야웨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껏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제까지 거의 '과선 지경에 이른 배'와 같은 처지의 예루살렘이 그 때가 되면 야웨의 직접적인 통치와 보호 아래, 도리어 이방의 제물을 탈취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는 야웨께서 질병도 죄악도 씻어주실 것이다.

삼키는 칼, 쫓피는 사막: 제 34-35 장

이사야 24-27 장이 자연스럽게 13-23 장을 이어 메시아의 통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마지막 심판'에 관한 예언으로 이끌어주듯이, 이사야 34-35 장 또한 28-33 장을 적절하게 연결해준다. 앞서 28-33 장에서 선지자는 현실의 역사를 다루며, 앗시리아의 위협 앞에서 이집트의 도움은 헛 것이며, 앗시리아 제국이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에 의하여 망할 것과, 예루살렘은 온갖 위기를 겪으면서도 결국에 가서는 구원 얻을 것임을 말하였다. 이제 34-35 장에서는 이러한 관계-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그 대적과의 관계-를 역사의 마지막 시점으로 끌어가는 동시에 그 범위가 더욱 확대시켜서 인간 세계 뿐만 아니라 온 우주로 넓혀간다.

성경 예언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의 역사 안에 나타나는 실재적(實在的) 개체(個體)들이 실재(實在) 그대로 적용되는 방향으로 언급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얼마든지 장래의 표상(表象)으로서 등장한다는 점이다. 사무엘하 7 장의 예언에서 '다윗의 몸에서 태어나서 성전을 건축할 아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솔로몬을 가리킴이 명백하다. 그러나 이 예언은 동시에,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겨누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7:14-16 의 예언은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에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됨을 보게 된다 (마태 1:22-23).

이사야 34 장의 '에돔'과 35 장의 '시온'은 다분히 장래의 표상으로서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에돔과 시온의 실재 역사와 이름을 빌어 먼 훗날에 있을 일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땅과 하늘의 붕괴 (34:1-4)

이사야 1:2 에서는 야웨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고자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렀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제 선지자는 '나라들과 민족들과 땅과 그 안에 사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계'를 향하여 가까이 와서 들으라고 부른다 (1 절). 야웨께서 그들 모두의 운명을 크게 바꾸어 놓을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곧, 그동안 쌓였던 야웨의 분노가 터질것인데, 어느 나라도 어느 군대도 피할 수 없는 분노요, 더 나아가서는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하늘'이 그 최후를 맞이하는 날이 될 것이다 (2-4 절). 이 부분은 앞서 24:17-23 에서 기술된 내용과 비슷한 말씀을 담고 있다. 궁극적인 구원으로 향하는 이 땅 위에는 마지막으로 무서운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 34:3 은 전쟁 또는 대재앙으로 인하여 시체가 여기저기 내동댕이쳐져서 악취를 풍기며, 시체에서 흐르는 피가 온 천지를 적시는 참혹한 장면을 묘사한다. 그러나 그 바로 다음(4 절)의 묘사는 앞의 3 절과는 달리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천상에서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하늘의 모든 군대가 붕괴할 것이다. 하늘이 두루마리(책)처럼 말리고 그 모든 군대가 떨어질 것이다. 마치 포도 나무에서 잎이 떨어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시든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은 땅과 그 위의 인간 뿐만 아니라, 천상의 것들도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사야 24:21-22 참조). "높은 곳의 군대"(צְבָא הַמָּרוֹם, 짜바 하마롬)라고도 하고 "하늘의

군대"(쓰바 하샤마임, צְבָא הַשָּׁמַיִם)라고도 하는 이 표현은 여기서처럼 '하늘의 별들'을 뜻하기도 하고 (그 외에, 이사야 40:26; 예레미야 33:22), '하늘의 천사들'을 뜻하기도 한다 (왕상 22:19; 시편 148:2). '천체(天體)의 대변화 및 붕괴'에 대하여는 요엘 2:31; 3:15; 계시록 6:12-14 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시편 102:26; 이사야 13:10 참조). 사도 베드로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벧후 3:10, 12)라고 언급한 말씀도 이사야 34:4 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들의 마지막 (34:5-17)

하늘에서 '배불리 삼킨' 야웨의 심판의 칼은 이제 에돔 위로 내려온다 (이사야 34:5). 여기서 에돔은 이사야 25:10-12 의 모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세력'을 대표하는 역사적 실체로 언급되었다. 에돔은 모압과 더불어 발람이 예언한 바, '장차 야곱에게서 나올 한 별', 곧 메시아에 의하여 파멸될 민족에 속한다 (민수기 24:17-18 참조). 사막 변두리에 위치한 세일 산지에서 사는 에돔 족속에게 있어서 비교적 기름진 경작지를 가진 이스라엘 땅은 항상 '질투와 (그리고 가능하면) 약탈의 대상'이었다.

'에돔'은 5 절에서 대구법(對句法)을 통하여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라고 불린다. 같은 어머니 배 속에서 함께 9 개월을 보낸 쌍둥이 형제 중에서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다른 하나는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사야 선지자가 누누이 강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재앙을 만나 죽임을 당하고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역사(예언)적 사실은 (이사야 4:3; 6:13; 10:20-23; 17:5-6; 28:5-6 등 참조)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나는 과연 '남은 자'에 속하는가, 아니면 '멸망으로 정한 백성'에 속하는가? 한 번 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사야 34:6-7 에서 에돔에 대한 야웨의 심판은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사 행위'(스바냐 1:7; 예레미야 46:10; 에스겔 39:17-20 참조) 로 비유되어 있다 (이사야 63:1-6 에서는 동일한 에돔에 대한 심판을 '포도즙 틀 위에서 포도를 밟는 행위'로 비유함). 여기서 야웨 대신 '야웨의 칼'이 심판의 주체로 묘사되어 있다. 계시록 19:11-18 에 묘사된 마지막 심판 기사는 다분히 이들 구약의 모든 묘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주고 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중략)...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무론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계시록 19:11-18).

이 날은 야웨께서 시온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그의 원수를 갚는 날이다 (이사야 34:8). '하나님의 백성'은 '악하고 음란한' (마태 12:39) 불신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환난을 당하나'

(요한 16:33; 사도행전 14:22), 스스로 원수를 갚아서는 안된다. 그는 반드시 이 일을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소송(訴訟)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성도가 당한 모든 억울한 일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에돔 땅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삼키울 것이다 (이사야 34:9-10). 계시록 19:11-18의 심판 기사에 이어 계시록 19:19-21에서 '유황불 붙는 못'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34:6-7의 심판 기사에 이어 이사야는 34:9-10에서 '유황과 불'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도 다시 한 번 요한 계시록과 이사야서의 밀접한 관계를 보게 된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으며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계시록 19:19-21).

에돔 왕국은 영원히 파멸되고, 그 땅은 황폐할 것이다 (이사야 34:11-15). 그리하여 그 궁궐과 요새성들은 가시 나무와 엉겅퀴와 온갖 잡초로 뒤덮이고, 각종 들짐승과 귀신(14절에 '수염소'와 '올빼미'로 번역된 낱말들은 히브리어로 שָׁעִיר (싸이르)와 לִילִית (릴리트)인데, 아마도 '귀신'들을 가리킬 것이다)이 들피는 곳이 될 것이다 (도시의 황폐화를 들짐승의 운집(雲集)과 관련시켜 설명한 예로는 이사야 13:20-22; 14:23; 스바냐 2:14 등을 볼 것). 에돔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이전에 일찍부터 왕을 세워서 왕국으로 발전한 민족이다 (창세기 36:31). '인간'을 왕 또는 통치자로 세우는 지상의 모든 '나라들'은 에돔과도 같이 결국 멸망당하고 만다.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를 왕으로 모신 '메시아 왕국'만이 영원히 설 것이다.

이사야 34:16-17의 묘사는 일부 성경 독자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키어, '야웨의 책', 곧 성경에는 빠진 것이 전혀 없고 모두 짝이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장차 황폐한 에돔에는 예언서에 기록한 대로 반드시 각종 들짐승이 모일테니 확인해보라는 것이다. 야웨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또 그 영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이기예,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실제로 에돔은 이미 나라들의 반열에서 떠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에돔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모든 세력도 에돔의 전철을 따를 것이다. 에돔의 철저한 파멸은 뒤이어 언급되는 시온의 장래 영광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시온의 영광 (35:1-10)

이사야 34 장도 그러하거니와, 35 장 역시 시적인 표현들로 기술되었다. 먼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주변 나라들의 끊임없는 침입과 압박으로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 땅은, 야웨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날 때에, 광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에는 꽃이 필 것이다 (1-2 절). 이제 고난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격려하고 기운을 북돋워줄 필요가 있다. 야웨께서 오셔서 그들의 원수를 갚아 주시기 때문이다 (3-4 절). 대적에 대한 야웨의 심판은 (이사야 34:8 참조) 그의 백성의 구원과 직결된다.

육체적 결함을 가진 자가 온전하게 되고, 황폐하고 사막과 같던 땅이 변하여 옥토가 된다는 표현을 (5-7 절) 단지 '시적인 장식'으로 보고, 거기서 굳이 상징적인 의미만 찾을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야웨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출애굽기 15:26) 얼마든지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결함과 손상된 자연도 고치실 수 있고, 또 실제로 치료하신다. 참고적으로 7 절의 '승냥이의 서식지'는 34:13 에 나오는 동일한 표현(히브리어로 תַּיִם נֹרָה)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이사야 35:8-10 에서는 '구속받은 백성'이 '거룩한 길'을 통하여 기뻐 외치며 '시온'으로 올라올 것을 노래한다. 그 길은 부정한 자도 무서운 맹수도 침범하지 못한다. 오직 구속받은 사람만이 그 길로 행하여 시온에 들어와서는 영원한 기쁨 속에서 살 것이다. 이 '길'은 이사야 11:16; 19:23 에서 언급된 '대로(大路)'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 전체(이사야 35 장)에 대한 몇 가지 가능한 해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를 (우리의 시점에서) 이미 지나간 역사 속에서 찾아볼 경우에 (만약 성취된 적이 있다면), 아마도 주전 6 세기 유대인들이 바벨론 귀양살이에서 돌아올 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몇 차례에 걸친 귀환 행렬이 있었는데, 그중에 에스라 일행의 귀환 행렬은 다소나마 이사야 35 장을 연상케 한다. 당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은 멀고도 위험한 길이었다. 에스라는 출발 전에 '아하와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 (에스라 8:21). 하나님은 이들의 간구를 들으셨다. '그들이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셔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에스라 8:31).

그러나 이사야 35 장의 표현과 에스라 및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포로 귀환기의 상황을 비교해볼 때, 예언에 대한 성취가 별로 만족스럽지 않음을 느낄 수 있다. 다만 이사야 35 장 전체를 상징적인 시어(詩語)로 이해할 때만, 이를 주전 6 세기의 상황과 연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서서도 말하였거니와, 이사야 34 장의 '에돔'과 35 장의 '시온'은 다분히 장래의 표상으로서 언급되었다. 그러면서도 에돔과 시온의 실제 역사와 이름은 이 예언들에서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갖게 된다. 에돔의 멸망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듯이, 이사야 35 장에서의 시온에 관한 예언 또한 어느 정도는 문자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어쩌면 이사야 35 장은 주전 6 세기의 유대인 귀환보다는 주후 1 세기에 있었던 메시아 예수님의 활동 내지는 주후 20 세기에 들어와 일어난 유대인의 대귀환과 이에 잇따를 유대인 구원을 통해서 성취되는 예언이 아닐까? 이런 관점에서는 '육체적 결함을 가진 자의 치료'도, '사막의 옥토화'도, '구속받은 무리의 환호성'도, 마지막에 있을 '시온의 영광'도 모두 이해가 된다. 더불어 유대인 이방인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교회)이 이 '시온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사야의 예언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시대를 포괄하고 있다. 선지자 본인이 이러한 넓은 시야(視野)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적어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야웨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이시므로, 결코 당신의 말씀을 혼동시키지는 않으신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안심하고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일단은 문자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의 확장적 의미나 성취에 있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한다.

이사야 34-35 장 전체는 이사야 1-33 장을 종합하는 동시에, 그 사상과 언어에 있어서, 이사야 40-66 장의 축소판과도 같다.

히스기야의 위기와 구원: 제 36-39 장

주전 715년, 이 해는 유다 왕 히스기야 재위 제 14년이 되는 해이다. 당대의 대제국 앗시리아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유다와 예루살렘에게는 국가 존망의 기로에 서 있던 위기의 해였다. 이사야 36-39 장은 이 해의 역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이사야 36-39 장은 28-33 장에서 예고한 바 있는 '예루살렘의 위기'를 묘사하고 또 이를 극복한 역사적 사실을 기술함으로써, 28-33 장을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있는 셈이 된다. 이처럼 이사야의 예언과 그에 대한 성취는 현실과 미래를 오고가며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독자로 하여금 해석의 폭을 넓히게끔 한다.

유다왕 히스기야의 통치 초기

성경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 대하여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이사야 36:1-39:8; 왕하 18:1-20:21; 대하 29:1-32:33). 그만큼 그는 성경 기자들에게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어 있다. 그러면 히스기야 재위 기간 (주전 729-699년) 동안 그의 통치가 어떠하였고, 또 유다 및 이스라엘 왕국을 중심으로 한 고대 근동의 정치적 동향은 어떠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히스기야는 주전 729년, 25세의 나이로 유다 왕위에 올랐다. 그는 부친 아하스와는 전혀 달리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 우선 히스기야가 시도한 일은 종교 개혁이다. 즉위 직후인 주전 728년 (이 해는 히스기야의 통치 첫 해로 간주된다; 대하 29:3 참조) 첫째 달 (보통 그레고리력의 3-4월에 해당) 히스기야는 성전을 수리하고 정화(淨化)한다 (대하 29:1-19). 성전을 정화하는 일만 해도 무려 두 주간이나 걸렸으니 (대하 29:17 참조; 16일에서 두 안식일을 제하면 14일이 됨) 대사업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또한 선왕(先王) 아하스가 얼마나 철저하게 야웨 예배를 버리고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는지를 (왕하 16:10-18; 대하 28:22-25 참조)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성전 정화 작업에 이어서 히스기야는 곧바로 속죄 제사와 일종의 성전 재봉헌식을 거행한다 (대하 29:20-36). 그 다음으로 한 일은 이스라엘 3대 절기중의 하나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다 (대하 30:1-27). 유월절은 본래 첫째 달에 지키는 절기이나, 이때 히스기야는 사정상을 이월 둘째 달에 지킨다. 유다 전역 뿐만 아니라, 앗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의 침공(주전 734-732년)으로 국토의 3분의 2 가량을 잃은 (왕하 15:29; 대상 5:25-26 참조) 북 왕국 이스라엘까지 파발군을 보내어 북쪽 지파 사람들도 명절에 초대한다. 이렇게 시작된 유월절 행사는 무교병을 먹는 한 주간이 지나고도 또 한 주간을 지키는 이례적인 절기로 탈바꿈하였다. 이것도 바로 주전 728년의 일이다.

유월절 예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얻은 신앙적 열정을 유다 여러 성읍에서 우상들과 이방 제단들을 쳐부수는 일로 표현하였다 (대하 31:1). 아마도 바로 이 무렵 히스기야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렸을 것이다 (왕하 18:4). 그는 어떤 종류의 우상 숭배도 용납할 수 없었다. 히스기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전 예배를 공고히 하고자, 제사장과 레위인 조직 및 희생물과 십일조와 기타 헌물 등에 대한 규정을 재정비한다 (대하 31:2-21).

주전 727 년 (히스기야 제 2 년) 앗시리아 왕 살만에셀이 북 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호세아로부터 조공을 받아낸다 (왕하 17:3). 그러나 "(남 왕국 유다의) 히스기야는 앗시리아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다"(왕하 18:7-8)고 기록된 점으로 보아, 통치 초기에 종교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지위를 구축했던 것 같다. 히스기야의 블레셋 탄압에 관하여는 이미 아하스 왕이 죽던 해(주전 728 년)에 예고된바 있다 (이사야 14:29-30 참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 왕국 이스라엘의 호세아는 이집트와 내통하고 앗시리아를 배반한다. 호세아의 반역은 앗시리아의 분노를 사서, 결국은 주전 725-723 에 걸쳐 사마리아는 포위 공격을 당하다가, 주전 723 년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만다 (왕하 17:4-6). 이때가 바로 히스기야 제 6 년이었다 (왕하 18:9-12).

앗시리아의 침입과 히스기야의 위기 (36:1-21)

히스기야 제 14 년, 곧 주전 715 년 (앗시리아 왕 사르곤 제 7 년), 사르곤의 아들 산헤립(당시 그는 왕세자의 신분으로서 부친 사르곤 밑에서 일종의 副王 노릇을 함)이 드디어 대군을 이끌고 유다에 쳐들어 온다. 산헤립이 유다 요새성들을 대하여 진을 치고 언제 예루살렘까지 진격할지 모르는 상황에,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의 물 근원을 막고, 성벽을 수축하고, 무기를 제작하고, 군대 조직을 정비하고, 백성들을 격려하며 방어 태세에 들어갔다 (대하 32:1-8).

산헤립이 유다의 모든 요새성들을 쳐서 함락시키자 (이사야 36:1), 히스기야는 사신을 보내어 라기스에 진을 치고 있던 산헤립에게 사죄(謝罪)하고 그의 요구대로 왕궁과 성전의 보물을 털어서 앗시리아 왕에게 바친다. 이때 심지어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마저 벗겨내어 앗시리아 왕에게 바쳐야만 했다 (왕하 18:13-16). 그러나 산헤립은 공물을 받고도 라기스로부터 부하 장군들 편에 대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히스기야의 항복을 받아내고자 한다 (요세푸스의 '유대인 고대사' 10 권 1 장 1 절 참조). 이사야 33:7 의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라는 말씀은 아마도 이때의 일을 가리키는 듯 하다.

공교롭게도 히스기야의 신하들(엘리아김과 셉나에 대하여는 이사야 22:15-25 참조)이 앗시리아의 장군들을 만난 곳은 (이사야 36:2-3) 전에 아하스 왕이 이사야를 만난 곳이기도 하다 (이사야 7:3). 당시 아하스는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보다는 자기 피를 믿고 앗시리아를 끼어들임으로서, 훗날 이와 같이 유다의 화를 자초하고야 만 것이다.

산헤립의 부하 장수가 전하는 말은 야웨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모욕하는 내용으로 일관한다 (이사야 36:4-10). 그가 모욕하는 말 중 '유다가 앗시리아의 침입에 직면하여 기뻐던 이집트는 부러진 갈대와 같아서, 그를 의지하는 자마다 도리어 해를 입는다'는 것이나 (6 절), '야웨께서 앗시리아를 들어서 유다를 혼내려고 한다'는 발언(10 절)에는 일말의 진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헛된 이집트의 도움에 대하여'는 이미 선지자가 경고한 바 있고 (이사야 30:1-17; 31:1-3), '야웨께서 앗시리아를 몽둥이로 사용하신다' 함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사야 10:5-6, 24).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원수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성도가 죄를 범하는 경우 하나님은 성도에 대한 사탄의 공격을 허용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성도를 경고하시고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함이지 결코 그를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다. 앓시리아는 유다를 경고하기 위한 하나님의 '몽둥이'일 뿐이지 결코 '몽둥이의 주인'이 아니다. 아무리 앓시리아 장군의 발언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처럼 들린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힘만을 믿는 (8-9 절) 교만에서 나온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에 대한 앓시리아의 교만과 과잉 행동은 결국 스스로의 심판을 자초하게 될 뿐이다.

산헤립의 부하 장군은 유다 방언에도 능한 사람이었다. 그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요구를 무시하고는 계속하여 유다 방언으로, 성 안의 모든 백성도 들을 수 있게끔 큰 소리로 항복을 요구하였다 (이사야 36:11-20).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왕의 명령대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히스기야에게로 돌아온다. 그러나 이 위기 앞에서 무능한 자기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감출 수는 없었다. 그들은 슬픔의 표시로 옷을 찢고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 일을 보고하였다 (이사야 36:21-22).

이상의 사건 경과에 관하여는 왕하 18:17-37; 대하 32:9-19 에도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의 기도와 국가적 위기의 극복 (37:1-38)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유다왕 히스기야의 태도는 그의 부친 아하스의 태도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베를 입고 야웨의 성전으로 들어간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기 위해서이다. 더불어 그는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어 '남은 백성을 위한 기도'를 요청한다. 야웨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주신다 (이사야 37:1-7; 왕하 19:1-7).

'자기나 또는 유다 나라를 모욕한' 일로 호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한 일'에 호소하며, '자기 개인이나 자기의 왕조'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히스기야의 겸손하고도 균형잡힌 태도는 (4 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이사야 37:8-9 (=왕하 19:8-9)에 기술된 일들은 그 시간상의 순서가 약간 불투명하다. 산헤립의 부하 장군('랍사게')은 산헤립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는다. 랍사게는 (아마도 예루살렘 함락을 위한 병력 증원 요청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립나에서 전투중인 산헤립을 만난다. 한편 산헤립은 구스 왕 티르하카(Tirhakah)가 앓시리아와 싸우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그를 맞아 군대를 이끌고 싸우러 가는 동시에) 재차 히스기야에게로 사신을 보낸다. 본문에 의하면 산헤립이 언제 어디서 티르하카의 출정 소식을 들었는지 분명치 않다.

산헤립이 편지를 써서 다시 사신을 통해 히스기야에게 보낸 목적은 분명하다. 자기가 비록 앓시리아의 대군을 이끌고 (자연히 앓시리아 병력이 분산됨) 티르하카를 치러 가지만, 예루살렘이 항복하지 않을 경우 돌아오는 길에 그냥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함이었다. 편지의 내용은, 어느 나라의 수호신도 앓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나라를 지키지 못한 것 처럼, 히스기야의 하나님도 앓시리아 왕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사야 37:10-13; 왕하 19:10-13).

산헤립의 협박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는 그것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 그 편지를 야웨 앞에 펴놓고 간절히 기도한다. 그는 '창조주이시며, 홀로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시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과는 결코 비교될 수 없는 살아계신 야웨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호소한다 (이사야 37:14-20; 왕하 19:14-19).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에게 응답하신다 (이사야 37:21-35; 왕하 19:20-35). 우선 앗시리아가 자기 잘나서 나라들을 정복한 듯 떠들어대지만, 실상 이 일은 오랜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모독하는 앗시리아는 망신을 당하고야 말 것이다 (21-29 절). 그리고 선지자는 그에 대한 징조로서 유다 땅이 지금은 앗시리아의 침입으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지만, 3년째에는 완전히 정상적인 농업 활동으로 돌아갈 것을 히스기야에게 말하고 있다. 더불어 유다의 남은 자들도 번창할 것을 언급한다 (30-32 절). 야웨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므로 앗시리아 왕이 결코 그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가고 말 것이다 (33-35 절).

야웨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하룻밤에 앗시리아 진에서 십팔만 오천이나 되는 대군을 멸하신다. 산헤립은 자기 병력이 대파된 것을 보고는 진을 철수하고 부끄럽게 니느웨로 돌아간다 (이사야 37:36-37; 왕하 19:35-36; 대하 32:21).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간 산헤립은 친자식들의 반역으로 비명(非命)에 가고 만다 (이사야 37:38; 왕하 19:37; 대하 32:21). 참고적으로 산헤립이 죽고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뒤를 이어 앗시리아의 왕이 된 것은 주전 681년의 일이다.

히스기야 개인적 위기의 극복 (38:1-22)

주전 715년, 곧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앗시리아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있었던 해에, 히스기야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 외에도 개인적인 위기를 지나야만 했다. 다름이 아니라 그는 이 해에 죽을 병에 걸렸던 것이다. 이때 히스기야는 만 40이 채 못된 나이였다. 그에 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사망 선고는 청천 벽력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사야 38:1-2).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였다 (이사야 38:3).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히스기야에게는 자기 몸의 소생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뒤를 이어 나라를 다스릴 후사를 얻기까지만이라도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했다고 한다 ('유대인 고대사', 10권 2장 1절).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부친의 뒤를 이어 주전 699년 12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으니 (왕하 21:1; 대하 33:1), 만일 므낫세 이전에 태어난 히스기야의 소생이 없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요세푸스의 기록은 믿을만한 것이 된다.

야웨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썩이나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앗시리아로부터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것도 약속하신다. 특별히 이 약속(6절)은 37:33-35에 언급된 약속과도 상통하는 것으로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앗시리아의 침입과 거의 같은 때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히스기야의 치료에 대한 확실한 표로서, 하나님은 아하스 때 만든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려 놓으신다 (이사야 38:4-8, 21-22).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료받은 일은 왕하 20:1-11; 대하 32:24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사야 38:9-20 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후 지은 감사의 시를 담고 있다. 히스기야는 본래 찬송시에 관심을 보인 사람이었다. 성전 재봉헌식 때 "히스기야 왕은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야웨를 찬송하게 하였고" (대하 29:30), 또한 "신하들을 시켜 솔로몬의 잠언을 보충 (잠언 25-29 장) 편집하기"도 하였다 (잠언 25:1 참조).

성경은 또한 히스기야가 앗시리아의 침입에 자극을 받아 예루살렘의 수원(水源)을 보호하기 위한 공사를 수행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대하 32:30; 왕하 20:20). 주전 715-702 년 사이에 걸쳐 진행된 이 대공사의 결과가 바로 오늘날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불리는 지하 수로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완벽하게 남아 있는 '히스기야 터널'의 존재는 성경 기록의 정확성에 대하여 묵묵히 증거하고 있는 하나의 산 증인이다.

한 가지 사족(蛇足)을 달고자 한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얻게 된 아들 므낫세는, 히스기야를 이어서 다윗 왕조의 왕위를 계승할 자로서, 히스기야 뿐만 아니라 조정(朝廷)과 유다 전 백성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아는 바로는, 유다를 55 년 동안 (주전 699-644 년) 다스린 므낫세는 부친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야웨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긴 악한' 왕이었다 (대하 33:1-9 참조). 그러므로 야웨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유다 백성을 세계 열방 중에 흩뿌렸다"고 하셨다 (예레미야 15:4).

히스기야의 교만과 유다의 멸망 예고 (39:1-8)

당시 천하가 다 두려워하던 앗시리아의 대군이 대파되어 물러간 기적적인 일과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는 하루 아침에 대내외적 영웅으로 변신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져와 바치기도 하고 히스기야에게 보물을 드리기도 하여 히스기야는 삽시간에 부자요 존귀한 자가 된다 (대하 32:22-23, 27-29). 이러한 일들은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교만과 방심을 키워주기에 아주 좋은 여건을 조성해 주었을 것이다 (대하 32:24-26).

또한 대제국 앗시리아가 예루살렘에서 패배의 쓴 잔을 마신 일은 주변의 작은 나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음에 틀림없다. 당시 앗시리아에게 억압당해온 바벨론 왕 므로닥발라단이 사절단을 보내어 히스기야를 방문케 한 것도 역시 주전 715 년의 일이었을 것이다. 히스기야는 이들 바벨론 사절단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들에게 자기의 모든 '부(富)'를 보여주며 자랑하였다 (이사야 39:1-2).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가치한 '땅 위의 소유와 재물'을 가지고 이방인 앞에서 실컷 자랑을 한 히스기야의 소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다 (대하 32:25, 31 참조).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와서 장차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망할 것을 예언한다 (이사야 39:3-8; 왕하 20:14-19). 히스기야의 모든 소유와 보물이 바벨론 사람에 의하여 약탈당할 것은 물론이요, 그의 후손 가운데는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 노릇을 할 사람도 있게 될 것이다 (다니엘 1:3 참조). 7 절(왕하 20:18)의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라는 표현도 아직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

히스기야의 경거망동은 오늘날 소위 '예수를 믿어 많은 복을 받았다'면서, 경제적 성공이나 사회 신분 내지는 지위의 향상 등을 꿈으며 지나치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자신을) 자랑하며 뽐내고 다니는 일부 '교인들'에게 하나의 경종이 될 것이다. 한편 앗시리아가 판을 치던 시대에 장차 앗시리아가 아닌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가 망할 것을 예언한 이사야의 통찰력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아니었더라면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참고적으로 주전 704년 (앗시리아 왕 산헤립 1년) 바벨론 왕 므로닥발라단이 산헤립에게 패배한다. 그리고 앗시리아의 역사 기록에서 말하는 산헤립의 성공적인 유다 침공은 주전 702년(히스기야 27년)의 일로서, 이 해는 산헤립이 정식으로 앗시리아의 왕위에 오른지 3년이 되던 해이다.

이사야 제 1-39 장과 제 40-66 장의 관계

주로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도 특히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메시지(제 1-12 장)로 시작된 이사야의 예언은, 13 장에 들어오면서 이방 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돌려진다. 이방 세계에 대한 이 메시지는 23 장까지 계속되는데, 물론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도 포함되어 있다. 7-12 장에서 '제국들, 그중에서도 특별히 앗시리아의 흥망과 임마누엘, 곧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있는 후,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이방 세계의 운명을 언급하는 것은 자연스런 연결로 보인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통치는 온 누리에 퍼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이사야 제 24-27 장은 자연스럽게 13-23 장을 이어 온 땅에서 메시아의 통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마지막 심판'에 관한 예언으로 이끌어주고 있다.

이사야 제 28-33 장에서 선지자는 다시 유다의 현실로 돌아온다. 그는 유다의 현실적 문제를 다루며, 앗시리아의 위협 앞에서 이집트의 도움은 헛 것이며, 앗시리아 제국이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에 의하여 망할 것과, 예루살렘은 온갖 위기를 겪으면서도 결국에 가서는 구원 얻을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제 34-35 장에서는 이러한 관계-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그 대적과의 관계-를 역사의 마지막 시점으로 끌어가는 동시에 그 범위도 더욱 확대시켜서 인간 세계 뿐만 아니라 온 우주로 넓혀간다.

이사야 제 36-39 장에서 선지자는 또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와, 앗시리아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유다와 예루살렘이 국가 존망의 기로에 서 있던 주전 715 년(히스기야 재위 제 14 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을 다룬다. 제 36-39 장은 제 28-33 장에서 예고한 바 있는 '예루살렘의 위기'를 묘사하고 또 이를 극복한 역사적 사실을 기술함으로써, 28-33 장을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있는 셈이 된다.

이상 이사야 제 1-39 장의 구성과 내용을 통해 볼 때, 이사야의 예언은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선지자의 현실 공간에서 출발하여 온 땅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가는 다시 현실로 돌아오고, 또 다시 전 세계로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독특한 전개 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시간적으로 볼 때 선지자는 현실과 가까운 장래, 또는 먼 미래를 오고가며 마치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양 역사를 기술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만약 이사야서가 순수하게 이사야라는 한 인간의 작품이라면 그는 가히 천재적이요 기인(奇人)에 가깝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사야는 제 6 장에서 자신의 메시지가 전적으로 야웨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밝히고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경위를 비록 짧지만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사야는 개인의 지혜나 통찰력에 의하여 이 메시지를 준비한 것이 아니요, 전적으로 야웨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신 그대로 전했을 뿐이다.

우리 인간은 '역사(歷史)'라고 하면 으레히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일', 다시 말해서 '과거에 발생했던 일들'만을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 치 앞 일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본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와는 다르다. 그분에게는 공간도 물론이거니와 시간상의 제한이 없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우리 피조물의 시간 구분이 어찌 보면 그분에게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하겠다. 엄밀한 의미에서 조물주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이사야의 메시지가 공간과 시간이라는

틀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흐르고 있는 것은 그가 야웨 하나님을 대변하는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준다고 하겠다.

앞서 우리는 '이사야 제 34-35 장이 이사야 제 1-33 장을 종합하는 동시에, 그 사상과 언어에 있어서, 이사야 40-66 장의 축소판과도 같다'고 하였다. 현실과 미래를 오고가며 '하나님의 역사(歷史)'를 기술하고 있는 이사야 제 1-39 장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암울하고 침침한 분위기'를 띠고 있다. 이유인즉, 메시아 왕국에 앞서 존재하는 세상 나라들의 마지막을 전하는 메시지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34-35 장만을 별도로 떼어 볼 때, 34 장에서 '참혹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 침울한 분위기는 '구속받은 백성의 영광'을 노래하는 바로 뒤 35 장의 '밝고 명량한 분위기' 때문에 금새 흐려져서 잊혀짐을 느낄 수 있다.

이사야 제 40-66 장도 앞의 1-39 장 못지 않게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경고'에 관한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다. 그러나 40-66 장은, 마치 제 35 장이 34 장에 대하여 그러하듯이, 미래의 희망에 찬 메시지들을 통하여 전체적인 분위기를 아주 밝고 환하게 바꾸어 준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하나의 '강'과도 같은 제 1-39 장을 흘러서 마침내 제 40-66 장이라는 넓은 '바다'로 들어온다. 1-39 장 속에서는 간결하게 묘사된 예언들이 40-66 장에서는 보다 폭넓게 펼쳐져서 그 절정을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제 1-39 장에서 '왕 메시아와 그의 왕국'에 대한 예언은 조금씩 조금씩 전개되어 나간다. '전쟁이 없는 메시아 왕국'(2:1-4)을 필두로 전개되는 이 주제는 대략 4:2-6('야웨의 싹과 그의 백성'), 7:14('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임마누엘'), 9:6-7('다윗의 왕권을 이어갈 한 아기'), 11:1-10('이새의 뿌리에서 태어날 왕과 그가 가져올 평화'), 32:1-8('의의 왕') 등에서 조금씩 조금씩 그 정체를 드러낸다. 그러나 '왕 메시아와 그의 왕국'에 관한 메시지는 40-66 장에서 훨씬 더 넓고 자세하게 전개됨을 알 수 있다.

이사야 제 40-66 장은 내용상 쉽게 세 부분으로 나누인다: 40-48 장, 49-57 장, 58-66 장. 첫 부분(40-48 장)에서는 '야웨 하나님과 우상', 그리고 '이스라엘과 열방'이라는 대립 관계를 보게 되고, 둘째 부분(49-57 장)에서는 '야웨의 종, 곧 왕 메시아가 받는 고난과 그의 장래 영광'이 대조적으로 묘사되었으며, 마지막으로 58-66 장에서는 '메시아 왕국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다.

이사야서 전체가 그러하거니와, 특히 이사야 제 40-66 장은 그 전체가 마치 하나의 웅장한 '서사시(敍事詩)'와도 같다. 야웨 하나님은 친히 '인간 역사의 현장'으로 나오셔서 자신만이 유일한 '창조주'요 '주재(主宰)'이심을 외치고 또 외치신다 (40-48 장). 장차 '야웨의 종'이 오셔서 받을 '고난'과 그의 '장래 영광'은 야웨의 절대 주권을 땅 위의 사람들 가운데 확립할 '충분 조건'이 된다 (49-57 장). 그리고 야웨께서는 '메시아 왕국'에 적합한 사람들을 친히 선별하실 것이다 (58-66 장).

이사야 40-66 장을 통하여 야웨 하나님은 당신의 '굳은 의지'를 역설하신다. '하나님의 의지'는 반드시 현실화되는 것이기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歷史)'가 되는 동시에, 현재, 과거, 미래 전 시대를 통한 우리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중에도 선지자는 매 부분마다 그 마지막에 거역하고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잊지 아니한다: "야웨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신다" (48:22);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신다" (57:21);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육체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다" (66:24).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 40-48 장

이사야 제 40-48 장은 (제 40-66 장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임) 그 내용에 있어서, 일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귀양살이하는 때를 시대적 배경의 출발점으로 삼으면서, 바벨론으로부터의 유대인 귀환과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한 새 시대의 도래(到來)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이사야가 볼 때는 비록 미래사이긴 하지만, 만유의 주재(主宰)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은 선지자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들이 아님에는 틀림없다. 이제 선지자는 장차 임할 중대한 일들을 가리키며 장차 올 세대를 향하여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이 메시지는 결국 이사야 당대의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이다.

이사야 제 40-48 장에는 '야웨 하나님과 우상', '이방 세계와 이스라엘의 운명', '코레쉬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 등 몇 가지 주제들이, 때로는 함께 어울려서, 때로는 산발적으로, 몇 차례씩 되풀이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편의상 이 부분 전체의 서론적인 40:1-11 을 별도로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는 각 주제별로 장절 순서에 관계없이 다루고자 한다.

장차 나타날 야웨의 영광 (40:1-11)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사야 40:1). 이사야서의 제 2 부라고 할 수 있는 제 40-66 장은 이처럼 '위로하라'는 명령문으로 시작된다. 40:2 에서는 '내[=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예루살렘'이 그 죄악으로 인한 고역을 마치고, 그 죄값을 모두 치렀기 때문이다. 제 1 부(1-39 장)에서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죄악과 그에 대한 형벌과 그리고 회복을 개괄적으로 말하였다 (특별히 제 1 장을 볼 것). 이제 제 2 부(40-66 장)에서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자 한다.

예루살렘의 고역이 마치는 날, 야웨의 출현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광야에 야웨의 길을 닦으라'는 외침이다. 야웨의 영광이 드러나기 전에 거침없이 확트인 길이 준비될 것이다 (40:3-5). 시적으로 묘사된 이 구절들은 바벨론에서의 유대인 귀환과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는 동시에, 복음서 기자들의 해석에서 보는데로 (마태 3:1-3; 마가 1:1-5; 누가 3:3-6), 세례 요한의 복음 선포로 그 막을 열게 되는 메시아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메시아의 재림을 앞에둔 우리 세대에도 이 외침은 또 다시 들려야 할 것이다.

두번째 목소리가 들려온다: "외치라." 누군가가 대답하기를, "무엇을 외칠까요?"라고 한다. 인생의 무상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외치라고 한다 (이사야 40:6-8).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설(=성취될) 것이다. 고난받는 이스라엘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풀'과 같은 인생이 아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5 절 끝의 "야웨의 입이 말씀하셨다"와 8 절 끝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라는 말씀은 이 예언의 확실성에 대한 인장(印章)과도 같다.

야웨의 출현은 '큰 희소식'이므로 그분을 맞이하는 예루살렘 역시 크게 외치라고 초청을 받는다 (이사야 40:9). '시온' 또는 '예루살렘'은 (이 두 고유 명사는 히브리어에서 둘 다 여성으로 간주됨) '복음 전하는 자'(히브리어로 여성 분사 '메바세레트', מְבַשֶּׂרֶת 가 쓰임)의

목적격이 아니요 (칠십인역, 아람어 타르굼, 개역 참고), 동격 관계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표준 새번역 참고).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분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보응(報應)하시고 친히 통치하러 오신다 (이사야 40:10). 그분의 통치는 선한 목자가 양떼를 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사야 40:11). 참고적으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요한 10:1-18)에도 이 구절과 동일한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이사야 40:1-11 절은 이사야 제 40-66 장 전체의 서론과도 같다. 여기 나오는 예언의 말씀은 일차적으로 유대인이 바벨론 귀양살이에서 귀환할 때에 현실화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메시아의 출현으로 더욱 심도깊게 성취되고 그의 재림은 이 예언을 완성시켜주는 사건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가 말로 현재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 없다.

누가 야웨 하나님과 견주라

이사야서 제 2 부(제 40-66 장)는 야웨 하나님의 '자기 과시(誇示)'로 점철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야웨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영광을 결코 헛된 우상에게 양보하기를 원치 않으시며,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대주재로서,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역사(歷史)를 꾸미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심에 있어서 어느 누가 감히 야웨 하나님의 흉내를 낼 수 있겠는가.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시는 야웨 하나님은 피조계의 어느 누구도 당신 자신과 견줄 수 없다고 선언하신다. 그분은 초월자이시기에 어느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거니와 자문(諮問)의 필요도 없다. 그분 앞에서 모든 열방은 마치 '없는 것'과도 같다 (이사야 40:12-17). 삼라만상(森羅萬象)을 빠짐없이 홀로 지으시고 관할(管轄)하시는 야웨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거민들은 마치 '메뚜기'와도 같이 초라하고, 그 통치자나 지배자는 허깨비에 불과하다 (이사야 40:21-26).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이스라엘의 왕'이신 야웨 하나님이 인류를 세우신 이후로 그분처럼 장래사를 미리 말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이스라엘의 구속자' 야웨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44:6-8; 참조 이사야 43:8-13).

창조주시오 초월자이신 야웨 하나님을 금은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에 비기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사야 40:18-20). 선지자는 우상을 제작하고 숭배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거듭거듭 경고하고 있다. 사람들이 협력하여 단단하게 우상을 제작하여, 그 우상에게 임박한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청하는 것은 허무한 것이다 (이사야 41:5-7).

'야곱의 왕'이신 야웨 하나님은 이런 헛된 우상들더러 옛날 일이나 장래 일을 말해보든지, 아니면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든지 하여 자신이 신(神)임을 증명해보라고 도전하신다. 사실 우상은 허망한 것이요, 우상을 택하는 자는 가증할 뿐이다. 이방 우상들중 어느 누구가 코레쉬의 출현을 예고하였는가? 아무도 없다. 오직 야웨께서 친히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에게 일러주실 뿐이다 (이사야 41:21-29).

전혀 무익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자들은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다. 같은 나무를 가지고 일부는 난방 또는 취사용 뿔감으로 사용하고, 다른 일부는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 절하며 구원을 청하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사야 44:9-20; 42:17; 45:16, 20).

바벨론이 망하여 바벨론의 신(神)들인 '벨'과 '느보'가 끌려가는 모습을 선지자는 비꼬는 말로 묘사한다. 바벨론의 우상들이 짐승에 '실려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야웨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초기 형성 단계부터 영원 끝까지 '안고, 품고 다니신다' (민수기 11:12; 신명기 32:11 참조).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비기겠는가 (이사야 46:1-7). 야웨께서는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패역한 자들'과 스스로 교만하여 의(義)에서 떠난 '완악한 자들'을 경고하시며, 그들을 향하여 '옛적부터 미리 알린 당신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신다 (이사야 46:8-13).

이스라엘은 야웨를 앙망(仰望)하라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의 말씀 역시, 이사야 제 40-48 장의 중요한 메시지 중의 하나이다. 절대자 야웨 하나님은 고역(苦役)중의 이스라엘을 향하여 좌절하지 말고 당신만을 앙망(仰望)하라고 하신다.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신 야웨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이사야 40:27-31).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열국이 페르시아 왕 코레스의 발 아래 하나씩 하나씩 쓰러질 때에 '야웨의 종' 이스라엘은 도리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것이다. 여기 '야웨의 종'이라고 불리운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다. '땅 끝'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야웨께서는 그의 후손더러 두려워말라고 하신다 (이사야 41:8-13).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작은 무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와도 같이 그 원수 위에 군림하는 세력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 41:14-16). 고대 이스라엘의 타작기는 널판지를 몇 장 엮어 썰매 모양을 만들고, 그 아래면에 날카로운 돌조각들을 붙여서 만든다. 여기에 줄을 달아 사람이나 짐승이 끌도록 하는데, 이 틀이 움직이면서 그 아래의 곡식단에서 알갱이와 겨가 분리된다. '야웨의 종'(이 표현은 뒤에 '메시야'를 의미하기도 한다)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쁨의 근원이 될 것이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가련하고 궁핍한 자'와도 같지만, 야웨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메마른 땅을 흐르는 물로 채우시고 꽃피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 41:17-20). 피난처 되신 야웨 안에서 보호를 받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 관하여는 이사야 14:30; 25:1-5, 29:19 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시편에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보호하시는 야웨에 대한 찬양이 곳곳에 담겨 있다 (시편 12:5; 35:10; 40:17; 69:33; 70:5; 72:4, 12-14; 74:21; 82:3-4; 86:1; 109:22; 132:15; 140:12).

이스라엘이 고역을 치르는 동안 오래도록 참고 계시던 야웨 하나님은 마침내 '해산하는 여인이 숨을 가쁘게 내쉬며 헐떡이는 것'과도 같이, 원수의 땅을 심판하는 동시에 그 사이로 길을 열어서 '소경'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 야웨의 심판과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사야 42:14-17). 야웨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야웨의 종' 이스라엘은 스스로 귀머거리되고 소경된 자들이다. 야웨의 의(義)와 가르침과 그 길을 거절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은 스스로 재앙을 자초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재앙 중에도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는다. 선지자는 이 답답한 '야웨의 종'을 향하여 '똑똑히 듣고 보라'고 한다 (이사야 42:18-25).

이처럼 완악한 이스라엘을 다시 구속하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지으신 야웨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는 사방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이사야 43:1-7).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바 이스라엘 자손을 옛 땅으로 다시 모으실 때, 거기에는 반드시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 일은 모두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이었다. 이제 이사야의 예언대로 유대인을 바벨론에서, 또는 장차 그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모으실 때에도 하나님은 크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제 야웨께서는 '소경이요 귀머거리'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신다. 그 자리에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도 모일 것이다. 이방신들 가운데 어느 누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같은 일을 예언할 수 있겠는가? 물론 아무도 없다. 그러나 야웨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통하여 당신만이 진정한 하나님임을 증거하신다. '야웨의 종'인 이스라엘은 진정한 '야웨의 증인'이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다. 이스라엘의 고역도 회복도 모두가 야웨 하나님이 일찍부터 예고하신 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믿음을 촉구하신다 (이사야 43:8-13; 참조 이사야 44:6-8; 46:8-13).

'이스라엘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야웨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킴도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과거에 이집트 군대를 물 속에 멸하시고,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시고 시나이 반도의 마른 땅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다시 황폐했던 땅에 물이 넘쳐 흐르고 꽃이 피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 43:14-21). 야웨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21 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야웨를 공경하지 아니하여 그분을 실망시키고, 자기 죄악으로 그분을 괴롭혔다 (이사야 43:22-24).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벌하셨으나 다시 '변론'에 초대하신다. 그들의 죄를 도말할 터이니 돌아오라고 하신다 (이사야 43:25-28). 그리하여 야웨 하나님은 후세에 이스라엘 위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요, 이방인들이 야웨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사야 44:1-5).

이스라엘을 자기의 '종'으로 지으신 야웨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 죄악을 도말하신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사야 44:21-23).

코레쉬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

바벨론의 멸망과 유대인의 귀환에 대하여는 이미 이사야 13:1-14:23; 21:1-10 에서도 다룬 바 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 어느 누구도 바벨론이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였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앗시리아 만이 위험한 존재였을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는 이사야는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망할 것을 알고 있었다 (이사야 39:3-7; 왕하 20:14-18 참조). 주전 613 년에 니느웨를 함락시킴으로써 앗시리아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은 주전 588 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킨다. 주전 606 년 바벨론의 권좌에 오른 느부갓네살은 주전 583 년에 이르러는 명실공히 근동 전 세계의 패자(覇者)가 된다.

그러나 바벨론도 결국은 망하고 말 것이다. 바벨론에 멸망을 가져올 사람은 동북방에서 올 페르시아 왕 코레쉬이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주전 540 년에 바벨론은 코레쉬의 메대 ·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하여 함락되고 만다.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직결된다.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 갔던 그들은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중건할 것이다. 야웨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당신이 '온 땅과 모든 나라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대주재(大主宰)이심'을 명백히 보여주고자 하신다.

'처음이시요 나중이신' 야웨께서는 장차 '동북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켜' 열국을 심판하실 계획을 미리 말씀하신다 (이사야 41:1-4, 25-26; 46:10-11; 48:14-15). 과거, 현재사 뿐만 아니라 장래일도 주관하시는 야웨께서는 이 정복자의 이름도 미리 가르쳐 주신다. '야웨의 목자'라고 불린 페르시아 왕 '코레쉬'가 바로 그 사람이다. '야웨의 기름부음 받은 자(메시아)'라고도 불린 코레쉬는 비록 야웨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야웨의 부르심을 받아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바벨론에서 귀양살이하는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것이요, 예루살렘과 성전을 중건(重建)케 할 것이다 (이사야 44:28; 45:1-5; 46:11).

홀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야웨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관장함에 있어서도, 이 세상의 지혜나 지식을 폐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코레쉬를 일으키셔서 유다와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중건케 하시는 이는 바로 야웨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이 일을 홀로 행하시어 온 땅에 당신 존재의 유일무이(唯一無二)하심을 알리고자 하신다. 이처럼 야웨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코레쉬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의 깨달음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천지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이다 (이사야 44:24-28; 45:6-8). 덧붙여 이사야는 야웨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불신불만이거나 또는 간섭하고자 하는 자들의 무모함에 대하여 '진흙과 토기장이'의 관계를 들어 역설한다 (이사야 45:9-13).

야웨께서 열방중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이방 세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시인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방법으로 은밀히 역사를 관할하시는 야웨는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상 숭배자들이 모두 수치를 당할 때에, 이스라엘은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 45:14-17). 만물을 유용하게 창조하신 야웨 하나님은 역사를 관할함에 있어서도 결코 헛되이 하시는 일이 없다. 그는 진실을 명백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대로 이루신다 (이사야 45:18-19).

야웨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자 심판을 행하신다. 코레쉬의 정복을 통한 이방 세계의 심판 후에 하나님은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을 초청하신다. 이런 일을 예전부터 예고한 야웨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으라고 하신다. 야웨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시기를, 결국은 '그에게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맹세할 것'이라고 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은 모두 야웨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사야 45:20-25).

야웨로부터 '메시아'라고 불리기까지 한 코레쉬(이사야 45:1)에 관한 예언은 문자 그대로 페르시아 왕 코레쉬를 통해서도 성취되었거니와, 더 나아가서는 '야웨의 종', 곧 진정한

메시아의 사역으로도 이어진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언을 그대로 받아들여 담대하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방인이 충만히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다 (로마서 11:25-26; 이사야 45:25 와 대조).

이사야는 46:1-2 에서 바벨론의 신(神)들이 힘없이 망하여 끌려가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제 이사야 제 47 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이 묘사되어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분노하시어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겼을 때,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엾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지나치게 행하였다. 하나님은 이 오만한 바벨론에 순식간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바벨론이 폭 빠져있던 마술이나 주술이나 점성술이나 그 어떤 방도로도 이 재앙을 물리칠 수 없다.

이사야는 47 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언급한 후, 계속하여 48 장에서는 바벨론에서 귀양살이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지를 선포한다. 물론 이사야 당대의 유대인들도 들어야만 하는 메시지이다. 선지자 본인이 세상을 떠난 후 몇 세대가 지나서 출현할 후손들을 겨냥하여 전하는 이 메시지는 과연 '대주재(大主宰)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선지자는 단지 그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할 따름이다. 이들 청중은 '야웨와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그분에게 성실치 아니한 이스라엘 자손'으로 묘사되었다 (1-2 절).

하나님은 이들 '완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오래 참으시면서 예전부터 미리 장래사를 알리셨고 또 그대로 이루신다. 이제 야웨께서 알리시고자 하는 '새 일,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은 이스라엘의 회복,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과 이방의 구속,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 등을 가리킬 것이다 (3-11 절; 참조 이사야 42:9; 43:19). 이런 '새 일'에 비하면, 코레쉬를 불러 바벨론을 파멸시키는 일은 오히려 옛적부터 고한 '옛 일'에 속하며,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명하신 일이기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12-16 절).

이사야 48:16 하반절의 "이제 주 야웨께서 나와 그의 영(靈)을 보내셨다"에서 '나'는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다른 이를 가리키는지 분명치 않다. 뒤에 나오는 49 장과 61 장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비록 급작스럽긴 하지만 여기서의 '나'는 '야웨의 종',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코레쉬를 통한 바벨론의 멸망이 옛일에 속한다면, 메시아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은 '새 일'에 속하는 셈이다. 이제 하나님은 불순종하여 바벨론에서 귀양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탄식을 발하신다. 그리고는 그 남은 자들을 향하여 바벨론에서 나와 당신의 '새 역사'에 참여하여 '이스라엘의 구속자'를 찬양하라고 하신다 (17-22 절).

전 인류의 소망이신 '야웨의 종'

이스라엘은 '야웨의 증인'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나, 긍정적인 면에서는 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들도 이방처럼 우상 숭배에 빠져서 야웨 하나님을 거스린 것이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자기의 죄악으로 인한 고역을 치르는 부정적인 면에서 '야웨의 증인' 노릇을 해왔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다른 '종' 하나를 준비하신다. 이스라엘에서 나올 이 새로운 '야웨의 종'은 결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요, 도리어 그분의 뜻대로 행하여 그분을 만족시킬 것이다 (이사야 43:8-13 참조).

'야웨의 종'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사야 41:8-9; 42:19; 43:10; 44:1-2, 21), 이스라엘 백성 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빛'으로서 성실하게 '야웨를 섬기실 (히브리어에서 '섬기다'라는 동사는 '종'이라는 명사와 같은 어근에서 나온다) 메시아'를 가리키기도 한다. 전자는 야웨를 실망시킨 '종'이었지만, 후자는 항상 야웨를 만족시키고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진실한 종'이다. 이사야는 42:1-9 에서 이 '야웨의 종'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사야 49-57 장에서 그는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된다).

야웨께서 지지하시고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종' 위에 야웨의 영(靈)이 임할 것이요, 그는 조용하고 겸손한 방법을 통하여 온 세상에 공의를 베푸실 것이다 (42:1-4). 창조주 야웨 하나님은 친히 이 '종'을 보내시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으므로, 그가 가는 곳마다 진정한 자유가 있을 것이다 (42:5-9). 야웨께서는 훗날에 있을 이 일을 예고하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선포하신다. 그리고 야웨께서 이 '종'을 통하여 세우실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큰 소망이 아닐 수 없다. 이 '새 언약'에 관하여는 이사야 49:8; 54:10; 61:8; 예레미야 31:31-34; 에스겔 16:60-63 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야웨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는 '새 노래'가 울려 퍼지고, 야웨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이사야 42:10-13). 야웨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관하여는 이사야 43:19-20 과 48:6-11 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진실하신 '야웨의 종', 곧 메시아는 바로 이 '새 일'을 위하여 '야웨의 영(靈)'과 더불어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 (이사야 48:16 하반절의 "이제 주 야웨께서 나와 그의 영(靈)을 보내셨다" 참조)

기쁜 소식과 고난의 종: 제 49-57 장

'새 일'을 이루실 '야웨의 종'에 관하여는 이사야 제 49-57 장에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며,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고난을 받으며, 장차 어떠한 열매를 거두며 어떠한 영광을 누릴지에 관하여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靈)의 가르침을 받아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앞서 우리는 '야웨의 종'이라는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사야 41:8-9; 42:19; 43:10; 44:1-2, 21), 이스라엘 백성 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빛'으로서 신실하게 야웨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실 메시아'를 가리키기도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의 출현은 온 세상의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선지자는 열방을 향하여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동시에 현재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경고하는 일도 잊지 아니한다.

야웨의 종과 이스라엘의 회복 (49:1-50:11)

이사야 48:16 하반절("이제 주 야웨께서 나와 그의 영(靈)을 보내셨다")에서 급작스럽게 일인칭 '나'로 출현한 바 있는 '야웨의 종'은 이제 49 장 첫머리에서 다시 일인칭으로 등장한다. 그는 먼저 열국의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의 존재와 사역을 알린다. 야웨를 실망시킨 또 다른 '야웨의 종'인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오는 이 '야웨의 종'은 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에, 그는 '[참] 이스라엘'이라고도 불린다. 그의 사역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잠시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적이 있으나, 실상 야웨께서는 이를 승리로 장식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종'은 동시에 '이방의 빛'으로서 땅 끝까지 구원을 베풀 것이다 (이사야 49:1-6).

'이방의 빛'으로 세움받은 '야웨의 종'은 고난을 통하여 만민의 구주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야웨께서는 "남들에게 멸시를 받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으며, 통치자들에게 종이 된"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도우시며 그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신다. 흩어졌던 이스라엘은 그를 통하여 해방을 얻어 황폐한 땅으로 다시 모일 것이요, '백성의 언약'으로 세우심을 받은 그에게로 '그의 백성'이 사망에서 모여올 것이다 (이사야 49:7-13). 이 예언은 메시아를 통한 유대인의 국가적 및 영적 회복과 더불어, 이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구원받을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예언의 성취와 더불어 온 천하는 기뻐 외치는 소리로 가득 찰 것이다 (이사야 49:13).

이제 야웨께서는 또 다른 '종', 곧 현재의 고난으로 인하여 실의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향하신다. 야웨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하신다. 시온을 헐고 황폐하게 만든 자들은 머지않아 모두 사라지고, '시온의 자녀들'이 시온으로 몰려 돌아올 것이다. 이들 '시온의 자녀들'은 무수히 많은 무리를 이루어 예기치 못한 놀라움이 될 것이다 (이사야 49:14-21). '이스라엘의 회복'은 야웨의 직접적인 간섭으로 말미암아 열방의 군주들까지 동원되는 대사(大事)이다. 그 결과로 만민은 야웨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사야 49:22-26).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자녀'란 일차적으로는 바벨론 귀양살이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근세기에 들어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 곧 그들의 왕 메시아를 찾게 될 유대인들을 말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야웨의 종'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성도를 가리킨다고 하겠다.

이제 야웨께서는 이들 '시온의 자녀들'을 향하여 말씀하신다. 여기 '시온', 곧 바벨론에서 귀양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부정(不貞)한 행실로 인하여 쫓겨난 여인과도 같고, 빛 때문에 종으로 팔려 간 채무자와도 같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못함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 때문에 구원이 늦어질 뿐이다 (이사야 50:1-3). 유대인의 불신은 '야웨의 종', 곧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의 구원은 예나 지금이나 '고난의 종'에게 돌아와 순종함으로써만 이루어진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하는 '고난의 종'에게로 다시 초점을 돌린다. 그는 야웨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날마다 가르침을 받아, 지친 자에게 힘을 주며, 스스로는 (죽기까지 순종하여) 잠잠히 고난을 수용하는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는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그는 야웨께서 자기의 의(義)를 드러낼 것이요, 원수들은 모두 멸망할 것을 굳게 믿어 추호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사야 50:4-9). 그러므로 야웨와 그의 종을 경외하고 따르는 자는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야웨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이요, 야웨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멸망을 자초할 것이다 (이사야 50:4-11).

시온아 깨어라, 일어나라 (51:1-52:12)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여러 해가 지난 후에야, 그것도 늦은 나이에 비로소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있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 세에 태어난 이삭은 60 세에 야곱을 낳고, 야곱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다. 결과적으로 볼 때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민족이 태어난 셈이다. 유다가 망하고 그 주민이 외지로 끌려간 후, 황폐화된 '시온'은 마치 오래도록 아기를 갖지 못하던 때의 사라처럼 보인다. 야웨께서는 의를 찾는 이들에게 아브라함과 사를 상기시키며, 시온도 결국 에덴 동산처럼 바벨터이니 낙심하지 말라며 위로하신다 (이사야 51:1-3).

야웨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스리심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퍼질 것이다. 옛 하늘과 옛 땅은 심판으로 인하여 사라지지만, 야웨의 의와 구원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참 소망이 되시는 야웨 하나님만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사야 51:4-8). 51:9-11 에서, 선지자는 예전에 이집트(='라합', 이사야 30:7 참조)와 파라오를 제압하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낸 '야웨의 팔(=능력)'이 다시 깨어 역사(役事)하기를 기대한다. 여기 11 절은 이사야 35:10 과 일치한다.

시온에 대한 야웨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는 계속된다. 왜 시온이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창조주 하나님은 잊는 것인가? 이제 곧 사라질 압제자들을 왜 두려워하는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하나님은 시온을 바벨론에서 곧 해방시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실 것이다 (이사야 51:12-16).

야웨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는 시온을 그 백성중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고 그 안에는 처절한 굶주림 뿐이니 누가 시온을 위로하라? 굶주려 가련하고,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여인과의 같은 시온을 향하여 야웨께서는 '이제 깨어라, 일어나라'고 하신다. 야웨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분노의 잔을 거두어 시온의 원수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51:17-23).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이 이제 모든 수치와 슬픔의 자취를 털어버리고 다시 예전처럼 영화로운 옷을 입을 때가 이르렀다. 이스라엘 백성은 일찍이 이집트에 내려가 살다가 그들의 노예가 되어 오랜 세월을 고생한 적이 있고, 그 후에는 앗시리아의 압박이 있고, 다시 선지자의 눈에는 바벨론 통치하의 귀양살이가 보인다. 지금은 야웨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당하지만, 야웨께서 자기 백성을 값 없이 구속하실 때에 그의 이름과 존재는 자기 백성 가운데 알려지고 인정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 52:1-6).

이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에 알리는 자들의 발이 경쾌하기만 하다. 야웨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 그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을 통치하실 때 진정한 평화와 복과 구원이 임한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도록 야웨께서는 이 일을 공공연히 행하실 것이다 (이사야 52:7-10).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땅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사도행전 26:26 참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천국 복음(로마서 10:14-15 참조)은 예루살렘과 유다 뿐만 아니라 온 땅에 울려 퍼질 복된 소식이다.

장래사를 보는 선지자의 시야는 매우 넓다. 대략 주전 8세기 말엽, 바벨론이라는 세력이 아직 미약한 때에 선지자는 이미 바벨론의 세계 제패(制覇)와 그로 인한 유다의 멸망을 볼 뿐만 아니라, 코레쉬의 등장으로 유대인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과, 더 나아가서는 '야웨의 종'을 통한 천국, 곧 '야웨의 통치'의 확장 그 그것의 궁극적인 완성까지도 본다. 그 과정에 있어서 바벨론을 비롯한 모든 불신 세계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요, 유대인 중 '남은 자'와 이방 중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야웨의 구원을 노래하며 진정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성전 기구를 들고 바벨론에서 나올 유대인들에게 '스스로를 깨끗이 하고 바벨론을 떠나라'는 명령은 (이사야 52:11-12) 몇 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 이 지시는 우선 코레쉬의 칙령으로, 옛적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하여 자기 신전에 두었던 성전 기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에스라 1:7-11; 5:14-15)을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이 지시는 성전 기구를 운반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하였다 (고전 4:16-17).

이사야 52:13 에서는 새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이제까지는 시온을 향한 기쁜 소식이 주를 이루었지만, 여기서부터는 그 기쁜 소식의 핵심이 되는 '야웨의 종'에게로 초점이 옮겨진다. 장구분의 실수로 세 절(52:13-15)이 53 장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나, 이 세 절은 사실상 53 장 전반에 흐르는 기사(記事)의 일부를 이룬다.

고난의 종 (52:13-53:12)

이사야 53 장은 '예수님의 골고다 고난'을 묘사한 시편 22 편과 '그의 승리와 영광'을 노래한 시편 110 편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사야 52:13-53:12 에 집중적으로 묘사된 '고난의 종'은 이사야 49:7; 50:4-9 에서도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다. 이사야 53 장에서는 한 특이한 인간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데, 그는 한 몸이 깊은 고난과 고귀한 영광을 공유하게 되는 존재이다.

고난의 종이 이방 가운데 형통할 것이다. 야웨의 종이 비인간적으로 고난받으신 후에 높이 들리시는 것을 보고 열방은 떨며, 열왕은 놀라서 입을 열지 못한다 (이사야 52:13-15). 선택받은 유대인에 앞서 이방이 먼저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일에 대하여는 이미 49:7; 51:4-5; 52:10 등에도 암시되어 있다. 야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고난의 종을 멸시하고, 그의 장래에 관한 예언도 믿지 않았다. 그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 우리는 도리어 그를 비웃었고, 그를 멸시하여 그에게서 고개마저 돌렸다 (이사야 53:1-3).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곧 유대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사야 42:24; 64:1-12 참조). 이런 의미에서 1 절은 요한 12:37-38; 로마서 10:16 에 인용되었다. 이방은 예전에 들어본 일도 없는 복음을 듣고 쉽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나, 이스라엘은 예전부터 들어온 일, 곧 야웨의 종이 누구며, 그의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점과, 그의 고난과 영광에 대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자신의 불신으로 이방에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길을 내어준 이스라엘은 (로마서 11:25, 30-31 참조) 장래의 어느 시점에 가서는 결국 자기들이 거부한 바 고난의 종을 만나서 시정받고 그분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스가랴 12:10; 로마서 11:26 참조). 이때가 바로 이사야 53 장의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과거에 고난의 종을 멸시한 이스라엘이 이제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다. 그의 고난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야웨께서는 각기 제 길을 따르며 하나님을 거스려온 우리의 죄를 그에게 지우셨다 (이사야 53:4-6). 이 부분에서는 야웨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은 '야웨의 종'('=그')과, 조상 때문에 야웨의 선택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거스려 '그'에게 고난을 지우게 한 또 다른 '야웨의 종', 곧 이스라엘('=우리')이 대조적이다. 6 절은 유대인의 '디아스포라'(=귀양살이)를 상기시키기도 한다 (호세아 3:4-5 참조).

이사야 53:7-9 에서는 '야웨의 종'이 어떤 태도로 고난을 받으며, 어떻게 죽음을 당하였으며, 어떻게 묻힐 것인지를 기술하고 있다. 그는 자발적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세로 고난을 받았으며 (마태 26:36-46; 마가 14:32-42; 누가 22:39-46 참조), 자기 백성의 무지와 불신 가운데 죽으셨다 (누가 23:34-35; 마태 27:39-44; 마가 15:29-32 참조). 그의 죽음에는 행악자들이 동행하였고 (마태 27:38; 마가 15:27; 누가 23:33 참조), 그의 무덤은 부자와 함께 하였다 (마태 27:57-61).

이사야 53:10-12 에서는 야웨의 종이 고난을 받은 후에 누릴 영광에 대하여 기술한다. 그는 야웨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 (요한 19:30 참조).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그를 따르는 후손이 무수할 것이며, 그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10 절에 "그의 영혼이 속건제물(贖愆祭物)을 드린다(이를 "자기 목숨을 속건제물로 드린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음)고 하였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수송아지, 수염소, 암염소, 비둘기 등 다양한 짐승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속죄제와는 달리 (레위기 4:1-5:13), '속건제물'(히브리어로 **קָדָשׁ**, '아삼')을 드리는 자는 희생을 자기 마음대로 택하지 못하고, 오직 '흠없는 수양'만을 제물로

드릴 수 있다 (레위기 5:14-6:7). '흠없는 수양'과도 같은 '고난의 종'은 야웨의 뜻을 따라 '속건제물'이 되어 인간의 죄책(罪責)을 대신 진 것이다 (벧전 1:19; 계시록 5:6 참조).

참고적으로 11 절 상반절에 있어서, 맛소라 성경의 "그가 자신의 수고로 인하여 (히브리어로 מַעֲמַל נַפְשׁוֹ, '메아말 나프쇼') 볼 것이요, 만족히 여길 것이다"에 의하면 고난의 종이 무엇을 보는 것인지 분명치가 않다. 한글 개역 성경은 이 구절을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נַפְשׁוֹ מַעֲמַל]를 목적어로 취함]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고 번역함으로서, 이 애로점을 나름대로 해결해보고자 시도하였다. 쿰란에서 발견된 이사야 제 1 사본(1QIs^a)에는 이 구절이 "그가 자신의 수고로부터 빛을 볼 것이요, 그리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1 호 동굴의 두 번째 이사야 사본(1QIs^b)과 4 호 동굴에서 발견된 한 이사야 사본(4QIs^d)에서도 '빛을'(אֵר)이라는 낱말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는 1QIs^b에 없음). 칠십인역 역시 '빛을'(φῶς)이라는 낱말을 포함하고 있으나 '본다'는 동사를 사역으로 이해하여, '주께서 그를 그의 혼의 수고로부터 빼내어 그에게 빛을 보여 주기를 원하신다'고 번역하였다.

이상의 사본학적 증거들을 통하여 맛소라 성경이 실수로 한 낱말을 빠뜨린 것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겠으나, 10 절을 ('야웨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웨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통하여 볼 때 11 절에서 목적어로서 '그 씨'가 내포된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사야서 저자는 11 절에서 자연스럽게 목적어를 생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쿰란의 제 1 호 동굴에서 발견된 두 이사야서 두루마리나 칠십인역이나 모두 11 절의 어려운 구문을 나름대로의 이해를 따라 본문 안에 주석적 요소를 삽입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고난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이사야는 구약 성경의 일반적 예언과는 판이하게 다른 한 인물의 고난에 대하여 소개한다. 이 인물이 당하는 고난의 독특함에 대하여는 이사야 제 53 장에 집중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49:7; 50:4-9; 52:13-53:12 등에 기록됨). 그의 이름도 족보도 언급함이 없이, 이사야는 그를 단지 '종' 또는 '야웨의 종'이라고 부를 뿐이다. 그는 몹시 심한 고난을 받았으며 인간들로부터 멸시와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를 천시할 뿐이었다. 그러나 실상 그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지고 대신하여 고난을 받은 것이다. 그는 잠잠히 고난을 받았는데, 그의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 평화를 누리고 고침을 받게 되었다. 그 자신 또한 고난받은 일로 인하여 결국은 만인의 승배를 받게 될 것이며 많은 의인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사야 53 장을 이스라엘 백성과 열방의 관계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선택받은 백성 곧 유대 민족이 열방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 세계까지 확장된 이후로 반기독교적 입장을 지키려는 유대인 랍비들이 고집하는 것으로서, 중세 이후 대부분 유대인 랍비들의 사상을 지배하는 해석으로 남아있다. 신약 성경을 필두로 하여 기독교도들이 이사야 53 장을 예수님과 연관시켜 해석하는데 대립하여 유대교 랍비들은 이의 메시아적 해석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이사야 52:13-53:12 을 읽는 것마저 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고대의 유대인 랍비들은 이 예언을 메시아와 연관시켜 해석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탈무드의 한 곳에서는 (T.B. Sanh., 94a) 이사야 53 장에 나오는 고난의 종을 메시아로 이해하는 동시에 그를 히스기야왕과 관련시켰다. 그리고 요나탄의 아람어 타르굼에서는 이 '종'의 형통함을 메시아와 연관시키고, 고난받는 종은 이스라엘과 연관시키었다: "보라 나의 종 메시아가 형통하리라" (52:13 의 타르굼); "그들(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오심을 고대하는 동안 그들의 양상은 열방 가운데 어두울 것이며, 그들의 영광은 사람들의 영광보다 못하리라" (52:14 의 타르굼). 비록 이런 해석들에 미흡한 점이 있긴 하지만, 과거의 랍비들은 이사야 53 장에서 메시아에 관한 메시지를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처음부터 이 예언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지는 않다. 공생애 기간중 예수님은 몇 차례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언급하신 적이 있다.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자기 공생애 후반기에 적어도 네 차례에 걸쳐 이 일을 예고하셨다: 1)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태 16:21-28 = 마가 8:31-39 = 누가 9:22-27); 2) 변화산을 내려오면서 (마태 17:12 = 마가 9:9-13 = <약간 다르게> 누가 9:44); 3) 갈릴리에서 (마태 17:22-23 = 마가 9:30-32); 4)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마태 20:17-19 = 마가 10:32-34 = 누가 18:31-34).

이때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오히려 이해할 수 없고 당치도 않은 일로 간주하거나 (마태 16 장 베드로의 경우) 아니면 심히 근심하면서 실망감을 표시하였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메시아 곧 유대인의 왕을 기대하던 주후 1 세기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난받는 메시아"는 상상밖의 개념이었거나 아니면 받아들이기 거북한 일이었다. 화려한 메시아, 원수를 쫓아내고 온 천하를 호령하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던 그들로서는 비천하고 고난받는 메시아 개념을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 후 그의 제자들은 이 메시지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게 된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는 훗날 나이가 들어 쓴 편지 가운데서 (벧전 2:21-25) 이 예언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다. 초대 교회 일곱 집사중의 하나인 빌립 또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아무런 거리낌없이 이사야 53 장의 예언을 예수님과 연결시켰다. 그 경위를 누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1950 년전 에티오피아의 한 고관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여 그곳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야웨 하나님을 경배한 후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민족적인 배경을 통해 볼 때 그가 유대인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 알 수 없다. 어쨌든 그는 비록 이방의 고관 노릇을 하고 있었으나 야웨 하나님을 섬기는 독실한 신자임에는 틀림없었을 것이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가사에 이르는 길을 지날 때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 이때 빌립이라고 불리는 한 유대인이 그에게 접근한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가사에 이르는 길까지 가라'는 지시를 받고 거기에 이른 것이다 (사도행전 8:26-29).

에티오피아 내시는 마침 이사야의 예언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다. "당신 지금 읽고 있는 글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빌립이 물었다.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데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하고 내시가 대답하였다. 내시는 친절하게도 빌립을 마차 안에 올라앉으라고 청하였다. 빌립이 보니 내시가 읽고 있던 글은 이사야 53 장이었다. 내시는 이 예언의 내용이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를 가리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빌립은 이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유대인 예수라고 밝히면서, 그가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왕 메시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라고 가르쳐주었다 (사도행전 8:30-39).

야웨 하나님은 본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거의 독점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 곧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대부분 우리 이방 교회가 메시아로 믿는 예수를 인정하기는 커녕 그를 배신자로 또는 사깃군으로 간주한다. 왜 선택받은 민족이 그들의 왕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혹시 유대교의 한 이단을 믿는 것일까? 아니면 성경적 유대교의 원뿌리를 (원래 전통을) 우리 이방 교회가 이어가고 있는 것인가? 한편 유대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방 교회의 괴수' 예수에 대하여 고민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불쌍하게도 이방 기독교인들이 거짓 메시아를 추종하고 있다고 한다. 혹자는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갈래로 보는 동시에 이방 기독교인들을 이등 유대인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고난의 종'을 주의깊게 들여다보면 위의 물음에 대하여 속 시원한 대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유대인 예수는 유대인 뿐 아니라 이방의 심장이요 중심이다.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느 누구도 그를 피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그와 한바탕 생사간의 대결을 벌여야 한다. 예수, 그는 도전자로 오셨다. 그리고 그의 도전은 그의 고난과 영광을 통하여 선포된다.

지난 2,000 년 동안 이방인들은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려왔다. 같은 기간 동안에 대부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심을 입은 이 '고난의 종'을 조롱하고 멸시하였다. 나는 이사야 53 장의 메시지가 오늘날 누구보다도, 옛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았었던 이들 유대인에게 필요하다고 본다. 그 첫째 이유로는, 고난의 종이 보고 만족히 여길 '씨'는 이방인 가운데서도 찾을 수 있으나, 유대인 가운데서도 역시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요, 그 둘째 이유로는 이 예언의 내용을 통해볼 때, 이방인의 복종이 있는 후에 유대인의 깨달음이 있기 때문이다.

후에 야웨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그들이 찌른 자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라고 하였다 (스가랴 12:10). 이 예언은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서, 장차 유대인들이 그들이 찌른 바 자기들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날이 반드시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야웨의 생각, 야웨의 길 (54:1-55:13)

야웨께서 인간을 위한 속건제물로 삼으신 '고난의 종'은 열방과 이스라엘 모두의 소망이다. '아기 못 낳는 여인'과도 같은 시온이 기뻐할 것은, 장차 '고난의 종'을 통하여 시온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여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은, 다시 '고난의 종' 한 사람을 택하시어 그의 '씨', 곧 후예를 무수하게 만드실 것이다. 이사야 54:1-8 는 51:1-3 와 비슷한 비유를 담고 있다. 야웨께서 진노하시어 잠시 시온을 버리셨으나, 이제는 영원한 자비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되풀이되는 말이지만, 바벨론 귀양살이에서의 귀환만을 가지고 이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지난 2,000 년간 지구 구석구석까지 흩어져서 유랑하며 박해를 받아온 유대인이 이미 자기들의 '옛 고향 땅'으로 모여들었고, 또 지금도 계속하여 모여들고 있다. 야웨께서는 다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이들을 모으시는 것이다. 머지 않아 '그들의 얼굴에서 수건이 벗어지고 자기들의 왕 메시아 예수를 볼 때'에 (고후 3:12-18; 스가랴 12:10 참조) 시온의 영광과 기쁨은 천지에 울려 퍼질 것이다. 시온의 영광과 기쁨에 '고난의 종'의 모든 '씨'(후예)가 동참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사실이다.

이때에 야웨께서 시온에게 베푸시는 자비는 노아 홍수 후에 맹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사야 54:9-10). 오랜 고난 후에 야웨의 은혜로 평강을 얻은 시온은 다시는 대적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어떤 세력이든 새 예루살렘을 치는 자는 성공하기는 커녕 반드시 패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주민 모두가 야웨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보호하심을 받아, 성 안에는 평강이 넘칠 것이다 (이사야 54:11-17). 11-12 절에 예루살렘 성 전체가 값비싼 보석들로 건설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계시록 21:18-21 에도 반영되어 있다.

17 절의 '야웨의 종들'은 이사야 51:7 의 '그 마음에 야웨의 율법이 있는 백성들', 또는 65:10 의 '야웨를 찾은 야웨의 백성'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으며, 53 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바, '야웨의 종'이 보게 될 그의 '씨'이기도 하다 (53:10-11 참조). 다른 말로, 이들 '야웨의 종들'은 '야웨의 종'을 대표로 삼는,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구속받은 성도의 '첫 열매'이다.

야웨께서는 이 값 없이 베푸는 은혜를 내놓고 만민을 초청하신다. 누구든지 자기의 결핍을 깨닫고 구하는 자는 거저 받을 것이다 (이사야 55:1-5). 여기 야웨의 초청은 마태 22:1-14 의 비유와 계시록 22:17 의 말씀을 상기시켜 준다. 그가 세우고자 하시는 '영원한 언약'은 '다윗에게 베푸 확실한 은혜' (이 표현에 대하여는 시편 89:49; 대하 6:42 을 참조할 것)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다윗'은 메시아의 표상(表象)이 되는 예전의 '이스라엘 왕 다윗'을 추억하는 표현인 동시에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레미야 30:9; 에스겔 34:24; 호세아 3:5; 이사야 11:1, 10; 삼하 7:12-16 참조)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는 '만민의 증거'요, '만민을 다스리시고 명령하시는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았다. 그로 인하여 일찍이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던 이방 사람들이 시온의 영광을 보고는 찾아와 야웨의 은혜를 받아누리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에 연합할 것이다.

이 모든 기쁜 소식과 더불어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흘러 나온다. 회개란 악인이 '자기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결과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이다 (이사야 55:6-7). '야웨의 길', '야웨의 생각'은 인간의 그것과 비할 수 없이 높다. 그가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야웨의 뜻', '야웨의 말씀',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는 바 곧 '하나님의 역사(歷史)', 이 세 가지는 완전히 일치한다. 하나님은 당신이 뜻하시는 바를 당신 종들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로써 야웨의 이름과 영광이 영원할 것이다 (이사야 55:8-13).

주전 8 세기 말엽 이미 야웨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使役)', 그를 통한 '이방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반복하여 말씀하셨다. '그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그의 길'은 우리의 길과는 다르다. 그는 창조주인 동시에, 우주와 인간의 만사(萬事)를 주관하시는 대주재(大主宰)이다. 우리 인간이 나의 길, 나의 생각을 고집하고, 그의 길과

생각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그의 영광스런 구원을 영원히 놓치고 말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자신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전적으로 그분의 생각과 길만을 믿고 따라야 할 것이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 (56:1-57:21)

야웨의 이름, 야웨의 영광은 결국 진심으로 그를 따르는 자들의 이름과 영광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백성과 공유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고난의 종'이 야웨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여 존귀와 영광을 얻는 것처럼 (이사야 53 장 참조), 그의 언약을 지키며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야웨의 종들' (이사야 54:17 참조) 역시 그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자신의 출신이나 신분이 어떻든간에, 결국에는 '영광스런 이름'을 받을 것이다. 외국인이라도 상관없고, 고자라도 상관없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시는 야웨 하나님은 그들 말고도 또 이방인 중에서도 많은 무리를 모아 그들에게 속하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 56:1-8). 모세의 율법은 '고자는 야웨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외국인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야웨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며, 에돔 사람과 이집트 사람의 경우 삼대손까지는 야웨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신명기 23:1-8 참조). 그러나 이제 야웨께서는 율법의 속박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고, 고자나 외국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 고자와 '이스라엘 총회' 사이에 높이 서 있던 장벽,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혔던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전히 헐린 것이다 (에베소 2:11-22 참조).

'이스라엘의 남은 자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많은 무리를 모으신다'는 야웨의 말씀은 (8 절),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준다: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 10:16).

이방인과 고자 중에서도 야웨의 언약을 지키므로써 영광을 누릴 이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지도자들 중에는 탐욕과 이기심을 따라 '자기 길'로만 행하여 심판을 면치 못할 자들이 있다 (이사야 56:9-12). 이런 류의 지도자에 대하여는 에스겔 34:1-16 에서도 비슷한 비유로 언급하고 있다. 본문에서 '과수꾼'은 특별히 선지자를 (에스겔 33:1-9 참조), 그리고 '목자'는 국가 전반의 지도층을 (에스겔 34:1-31 참조) 가리킨다.

거짓 선지자들과 무지몰각(無知沒覺)한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백성을 돌보는 커녕 자기 배를 채우는 일에만 급급할 때, 의인들은 심판 전에 죽음을 맞이하여 도리어 재앙을 피하여 편히 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악인들은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사야 57:1-2).

이사야 57:3-13에서 하나님의 혹독한 책망은 국가 전체와 일반 대중에게로 넘어간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3-7절). 마땅히 '야웨의 계명'을 문설주와 대문에 두어서 늘 기억하여야 하되 (신명기 6:4-9; 11:20 참조), 도리어 그들은 그것을 눈에 잘 띄지 않는 문설주와 대문의 뒤에 두고는 제멋대로 어리석은 짓(우상 숭배)을 행한다 (8절).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야웨 하나님을 의지하기 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여, 강국들에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청하고는 한다 (9-11절). 9절에서 맛소라 성경은 '몰렉'(מֹלֶךְ)이 아니라 '왕'(히브리어로 '멜렉', מֶלֶךְ)이라고 읽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좋은 예물을 갖추어 근동을 제패한 왕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왕하16:7-18 참조). 이스라엘의 사신들은 매우 굴복적인 태도로 도움을 요청하러 피곤하게 원방을 다니면서도 헛된 인간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짓은 모두 무익할 뿐이요, 그들이 의지하는 우상이나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12-13 상반절). 우상의 허무함과 우상 숭배자들의 어리석음에 관하여는 이사야 40-48 장에서 여러 번 되풀이하여 언급된 바 있다. 그리고 인간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에 대하여는 이사야 28-33 장 등에서 다룬 바 있다. 오직 야웨를 의지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13 하반절).

이들 구속받은 자들을 위하여 야웨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신다 (이사야 57:14). 이 길에 대하여는 이사야 35:8-9; 40:3-4; 49:11; 62:10 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를 찾으신다. 잠시 진노하여 형벌을 내리셨으나, 영원히 분노를 품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이 분노를 자제하지 않을 경우 그의 모든 피조물이 멸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57:14-16).

야웨를 분노케 한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는 '탐심'이었다. 여기서 '탐심'이란 '우상 숭배'를 가리킬 수도 있겠고 (골로새 3:5 참조), '일만 악의 뿌리'로서 '재물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다 (딤후 6:10). 야웨께서 진노하여 이스라엘을 칠 때에도, 그들은 오히려 더욱 패역하여 제 마음에 내키는 길로 가버렸다. 그래도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히려 고쳐주신다. 특별히 형벌을 받을 때 회개하며 슬퍼하는 자들은 큰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영원한 평강을 선언하신다. 그러나 이 구속의 날에, 끝까지 거스리는 악인은 평강을 얻지 못하고, 야웨의 백성들로부터 영원히 분리될 것이다 (이사야 57:14-21).

19 절의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거나, 또는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신다'는 뜻이라기 보다는,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받아들여 평강을 베푸신다는 뜻으로 보인다 (히브리 13:15; 호세아 14:2; 시편 69:30-31; 119:108 참조).

시온의 영광과 시온 백성: 제 58-66 장

조물주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죄인이 되어 저주 아래 놓인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 자 누구인가? 스스로 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가식적인 종교 행위는 하나님이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죄악에서 죄악으로만 치닫는 인간들 역시 스스로의 무덤을 팔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누군가 중재할 자를 찾지만, 피조계 중에서는 아무도 얻지 못하신다. 결국 조물주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의 방도를 마련하시고, 심판주와 구원주의 역할을 하신다.

이 구원 사역을 실제로 완성시킬 '야웨의 종', 곧 메시야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시온'에게 영광을 가져올 유일한 통로가 된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창조로 이어지는 그의 구속 사역은 하나님을 바라고 순종하는 '야웨의 종들'에게는 가장 복된 '역사적 사실'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거스리고 패역한 일들을 일삼는 자들은 결코 이런 복된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 (58:1-59:21)

하나님은 선지자더러 외치라고 하신다. 1 절 하반절의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는 말씀은 미가 3:8 에 대한 메아리일 것이다.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인가? 한 마디로 말하자면 그들이, 의롭게 살지도 아니하면서, '종교인'으로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그의 길 알기를 기뻐하는 백성처럼 보인다. 그들은 스스로 마치 정의와 공평을 행하는 백성인 양 착각하고는, 하나님더러 '오셔서 의(義)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구한다 (이사야 58:1-2).

사람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특정 종교 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정기적인 종교 행사에 참석하고, 또 그 종교에 소속한 교인임을 대내외적으로 밝히는 것으로, 자기들이 믿는 신(神)을 만족시키고, 또 종교적으로 추구하는 목적(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어떤 이들은 정기적인 종교 행사 외에도 좀 더 열심을 내어 그 종교의 깊은 세계를 추구하며 일반인들의 생활과는 약간 거리감이 있는 수도자(修道者)의 길을 걷는다. 우리 기독교로 말할 때, '이름만 내건 교인'이 있는가 하면, 금식, 철야 등을 통하여 열성적으로 교회 생활에 임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에 열심을 낸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사람들 보기에는 '열성적이고 좋은 종교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찾기는 커녕 실제로는 그런 열성적인 종교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이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종교란 하나의 '처세(處世) 수단'으로 전락할 뿐이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다.

"내가 금식도 하며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내 소원을 안들어줍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었다 (3 절). 이런 류의 불평은 종교에 열심을 내되, 매사에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는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참고적으로 성경에 언급된 유대인들의 금식으로는 유대력으로 7 월(티슈레) 10 일의 속죄일 금식 (레위기 23:27-32 참조) 외에, 4 월(탐무스) 17 일, 5 월(아브) 9 일, 7 월(티슈레) 3 일, 10 월(테벳) 10 일의 금식이 있다 (스가랴 7:3-5; 8:19 참조).

그러나 이들의 금식은 종교적 겉모양만 갖추었을 뿐 (5 절), 그들의 비열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금식 중에도 자기 사업(3 절과 13 절의 '오락'은 '사업'이나 '일'로 번역함이 적합하다)에 여전히 신경을 쓰며 일꾼들을 더 혹사시킨다. 그뿐만이 아니다. 심지어는 금식중에 싸우며 다투며 폭력을 휘두르기도 한다 (이사야 58:3-5).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종교란, 그것이 금식이든 (6 절) 안식일이든 (13 절), 한 마디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6-7, 9-10 절).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종교인'이야 말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져 그의 보호와 사랑을 한 몸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이들과 이들의 후손이야말로 바로 황폐했던 땅을 다시 일으켜 꽃피우게 하고 (12 절) 그 땅을 차지할 (14 절) 복된 사람들이다 (이사야 58:6-14).

안식일에 대한 강조(이사야 58:13-14)는 예레미야 17:19-27; 에스겔 20:11-26; 22:8, 26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택함받은 백성이 안식일을 '존귀하고 즐거운 날'로 여기고, 이 날에 노동으로부터 모든 육체를 쉬게 하고, 야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로 지킬 때, 성도 자신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은 불신 세상에서도 증거될 것이다.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인간 자신에게 있다.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이다. 이사야 59:1-8 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몇 가지로 열거하고 있다. 우선 이스라엘의 죄는 개개인의 말과 행실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 (3 절). 사회적으로도 정의와 공평은 찾아볼 수 없고, 거짓되고 허망한 말과 압제와 포악한 행동 뿐이다 (4-6 절). 더 나아가서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나 하는 것이나 모두가 무고한 사람을 증오하고 망치고자 하는 것들 뿐이다 (7 절). 근본적으로 그들은 평강과 공평이 무언지도 모르고 이미 그릇된 길에 들어선 것이다 (8 절). 바울은 이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이런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한다 (로마서 3:15-17).

선지자는 이런 백성의 일원으로서 비통한 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자신을 포함하여 자기 백성이 죄로 인하여 처한 상황을 묘사한다 (이사야 59:9-15 상). 자기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 또는 국가 등 어느 단체를 들어 그 죄악이나 불법을 경고하는 자는 자신도 그 단체의 일원임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선지자는 공평과 정의가 떠났다고 한다 (9, 14 절). 그리하여 빛은 사라지고 어두움 뿐이라고 한다. 어느 조직이나 단체이든 그 안에 죄악과 불법이 들어와 도처에 만연할 때, 처음에는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 배를 채우는 듯 하지만, 결국은 그들 자신을 포함하여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그에 따른 피해를 입게 된다. 이렇듯 혼동과 좌절 속에 빠진 민족을 대표하는 심정으로 선지자는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올린다 (12-15 상반절).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구원에 대하여 속수무책일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役事)가 시작된다.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 뜻('야웨가 구원하신다'는 뜻)이 보여주듯이,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야웨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는 것이다 (이사야 59:15 하-21). 16 절의 '중재자'(히브리어로 '마프기아', מַפְּקִיָּא)는 이사야 53:12 의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개역)라는 문구중 미완료형 동사 '기도하다'('야프기아', יָפַק)와 같은 낱말로서, 여기서는 분사형으로서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이 점은 제 53 장에 언급된 '고난의 종'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바, '스스로 중재자역까지 행하시는 야웨'와 동일시됨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야웨의 구원은 그의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복수, 곧 열방의 심판을 수반하기도 한다 (17-18 절). 야웨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어 '급히 흐르는 강처럼' 오실 때에 동서 사방의 만백성이 그의 이름과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 (19 절). 그리고 그는 구속주(救贖主)로서 '시온', 곧 자기 백성에게 임하실 것이다 (20 절).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과거의 '시온'이 아니라, '야곱 (자손) 가운데 자기 죄과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만을 가리키며,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교회'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 하나님이 이들 자기 백성과 새롭게 세우시는 언약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영원히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21 절).

시온의 영광과 메시아 (60:1-63:6)

제 60 장 전반에 걸쳐 나오는 2 인칭 여성 단수 '너'는 '시온'을 가리킨다. 앞서 59:20 에서 야웨 하나님이 구속주(救贖主)로서 '시온', 곧 자기 백성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제 이사야 제 60 장에서는 그 결과로서 장차 시온에게 임할 영광을 기술하고 있다.

하나님은 시온을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신다. 이미 51:17; 52:1-2 에서도 하나님은 시온을 향하여 이와 비슷하게 "깨어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거기서는 시온이 형벌을 받아 비참하게 앉아 있는 상황이었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야웨의 영광이 시온 위에 비치므로, 시온은 그 빛을 받아 온 세상을 비추어야만 한다. 온 세상은 아직도 어둠에 덮혀 있다. 앞서 59:9-10 에서는 죄악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캄캄하게 된 것을 언급한 바 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한 빛이 떠오른다. 그 빛의 원천은 야웨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영광은 빛이 되어 시온 위에 반영된 것이다. 그리하여 열방과 열왕들이 시온의 빛으로 나아올 것이다 (이사야 60:1-3).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다 (마태 5:14).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는 빛을 만들어내는 '빛의 근원' 내지 '빛' 자체가 아니라, 야웨 하나님의 빛을 받아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어둠을 비취주는 일종의 '반사체'에 불과하다.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요한 1:4-9 참조). '참 빛' 되시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동일한 사명이 있으며, 장차 동일한 영광을 누리게 됨을 가리킨다고 하겠다.

흩어졌던 큰 무리가 시온으로 나아온다. '시온의 자녀', 곧 '메시아의 씨'가 원근각지에서 몰려들어오는 것이다. 게다가 온 땅의 재물도 시온에게로 모이고, 야웨의 영광을 위하여 쓰인다.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야웨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지음받았던 것'처럼 (이사야 43:21 참조), 이제 구속받은 이방인들도 시온으로 와서 모두 야웨의 영광을 전할 것이다 (이사야 60:4-9). 사도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속사(救贖史)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의 절정을 이룬다. 바울이 표현한 바, '이스라엘의 넘어짐', '이방인의 부요함'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들이는 일'이 있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일'이 있겠다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이다 (로마서 11:11-15).

오늘날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다름 아닌 선민(選民) '이스라엘'의 후예이다.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볼 때 (성경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이들 유대인들은 다시 자기들의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께로 나아올 날이 있다는 것이다. 이사야의 표현을 빌려 말할 때 '이스라엘 중 남은 자'와 이방인 중 구속받은 자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영광을 선포할 터인데, 전자는 이 마지막 '교회'의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19세기 말엽부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살던 땅으로 다시 모여들기 시작하여, 지난 1948년 5월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였다. 그리고 그간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들고 있다. 물론 이들중 거의 대부분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웨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 위에 비치는 날, 이들은 다시 '일어나 만민 가운데 빛을 발할 것'이다.

이사야 60:10-14에서는 열방을 다스리고 그들 위에 으뜸이 될 '시온의 영광'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다. 특별히 시온을 확대하고 멸시하던 자들도 시온의 발 아래 엎드리어 시온을 가리켜 말하기를, "야웨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고 할 것이다 (14절). 12절에 '시온을 섬기지 않는 백성이나 나라는 망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스가랴 14:16-21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주전 8세기 말엽에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가 여기 묘사한 바, '시온의 영광'은 이방인이 '교회'(구속받은 무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오늘날 상황에서 무언가 비실체적인 예언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사야 2:2-4에서도 묘사한 것처럼, 구속사에 있어서 시온의 주도권은 무력이나 경제력에 의한 것이 아니요, 시온 곧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그의 가르침, 죽음과 부활 및 승천 등을 모두 포함한)에 의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의 마음 속에서 '시온'이란 이름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시온'에 다시 모여 그들의 왕 메시아 예수를 찾을 때에 그 영광과 기쁨은 땅 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득차게 될 것이다.

그 때에 시온은 더 이상 '버림받고 미움받아 황폐한 땅'이 아니요, 도리어 '영원한 자랑거리, 영원한 기쁨'이 될 것이다. 시온의 자녀는 모두 구원자 야웨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요, 그 땅에는 평강과 정의가 넘쳐서 더 이상 악독한 일들이 없을 것이다 (이사야 60:15-18). 더 이상 슬픔이 없겠고, 야웨의 영광 빛이 시온을 비추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60:19-22). 이사야 제 60장의 메시지는 계시록 21:23-27에 도 짧게 반영되어 있다. 특히 마지막 부분(19-22절)의 약속은 이미 이사야 4:5; 24:23; 30:26 등에 간단간단히 암시되어 있다. 이 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시온의 영광'은 59:20-21에서 설명한 바대로, 좁은 의미의 '시온', 곧 '야곱 자손 가운데 자기 죄과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가리키는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교회'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

이사야 제 60장은 시온을 향한 야웨의 말씀을 담고 있는 반면에, 제 61장에서는 '시온의 영광'을 회복할 '중재자', 곧 메시아의 말씀으로 옮겨간다. 61:1에서 우리는 '주 야웨'와 '주의 영'과 ('나'로 표현된) '메시아'를 한꺼번에 대하게 된다 (이사야 42:1 참조). '주 야웨'께서 '당신의 영'을 '나', 곧 '메시아'에게 (기름을 붓는 것처럼) 부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자유와 은혜와 심판과 위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에서이다 (이사야 61:1-3).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신 예수께서는 '이 글이 그들의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하셨다 (누가 4:16-21). 자신이 바로 여기 예언된 이라는 것이다.

앞 장에서 묘사된 사상은 표현만 다를 뿐 여기서도 되풀이된다. 메시아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땅과 백성의) 회복을 수반하기도 한다. 이때 이방인의 도움이 따를 것이요, 이스라엘은 못

백성 위에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은 '야웨의 제사장', '야웨를 섬기는 자', '야웨께 복받은 자'라는 이름으로 불릴 것이요, 야웨 하나님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이사야 61:4-9).

4 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바, '오래 황폐하였던 곳', '무너진 곳',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이란 표현들에, 바벨론에서의 70년 귀양살이 동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땅의 황폐화 현상을 적용시키기에는 너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지난 2,000년간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사는 동안 그 땅이 황폐했던 일이 이런 표현들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은 이미 '옛땅'을 회복하였다. 다만 그들은 아직 하나님과의 비뚤어진 관계 때문에 '약속된 영적 지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제 우리는 이 예언의 나머지 부분도 성취되기를 바랄 뿐이다. '야웨의 영(靈)으로 부음받고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1 절 참조), 곧 예수님만이 이 예언을 온전히 성취케 할 수 있는 열쇠이다.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이미 예수를 믿어 그의 '종'이 된 자들이야말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여 이 예언이 속히 성취되도록 하는 일종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일 것이다 (로마서 11:11 참조).

이사야 61:10-11의 노래는 시온이 부르는 것이라기 보다는, 문맥상으로 볼 때 61:1-3의 주인공인 '야웨의 종', 곧 메시아가 부르는 환희의 노래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 같다. 야웨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시작한 '의와 구원' 사역이 반드시 결실할 것을 아는 '야웨의 종'은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장차 있을 '시온의 영광'은 야웨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신 일이므로, 그분은 이 일을 이루기까지 결코 잠잠하실 수 없다. 시온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조용히 계실 수 없다. 시온은 다시 한 번 그 구원받은 백성에 의하여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사야 62:1-5).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결의(決意)는 바꿀 수 없는 것이어서, 하나님은 친히 예루살렘 위에 '과수꾼'('쇼메르', 복수형 שֹׁמְרִים)을 세우시고는 그들로 하여금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일을 하게 하신다. 여기 '쇼메르'나, 히브리어로는 다르지만 이사야 52:8의 '쫄페'('과수꾼'으로 번역됨)나 모두 '선지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야웨 하나님도 친히 이 일을 다짐하시며 맹세하신다 (이사야 62:6-9). 8-9 절의 표현은 이사야 1:7의 '너희 토지는 너희 보는데서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와는 대조적이며, 이사야 1:19의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는 묘사와는 같은 사상을 나타낸다.

이사야 62:10-12에서는 이사야 40:1-11; 57:14; 35:5-10; 48:20-22 등에서 익숙히 들어온 '큰 길'에 대하여 다시 언급하고 있다.

이사야 63:1-6에서는 에돔의 심판을 들어 만민의 심판을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사야 34:5-15에서도 그러하듯이, 여기서도 에돔은 이사야 25:10-12의 모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세력'을 대표하는 역사적 실체로 언급되었다. 에돔은 모압과 더불어 발람이 예언한 바, '장차 야곱에게서 나올 한 별', 곧 메시아에 의하여 파멸될 민족에 속한다 (민수기 24:17-18 참조). 이사야 34:6-7에서 에돔에 대한 야웨의 심판은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사 행위'로 비유되어 있으나, 여기서서는 동일한 에돔에 대한 심판을 '포도즙 틀 위에서 포도를 밟는 행위'(요엘 3:13 참조)로 비유하고 있다. 계시록 19:11-18에 묘사된 마지막 심판

기사가 다분히 이들 구약의 묘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주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이 날은 야웨께서 그의 원수를 갚는 날이요, 동시에 자기 백성을 구속하는 날이다 (4 절). 이 일에 아무도 함께하는 자가 없으므로 야웨께서 친히 홀로 심판을 행하신다 (5-6 절).

야웨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 (63:7-64:12)

장차 있을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에 대한 약속은 오늘 비참한 상황에 처한 신자에게 힘을 주어 그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거창한 계획을 알고, 또 동시에 자기 민족의 비참한 현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선지자의 기도는 이사야 63:7-64:12 에 기록되어 있다.

이 간절한 기도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야웨의 은총을 회고하면서 감사의 말로 시작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자기 백성,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는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이스라엘이 반역하자 하나님은 도리어 이스라엘을 치셨고, 이스라엘은 옛날의 은총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을 구하곤 하였다 (이사야 63:7-14).

과거 조상들이 환난 때마다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야웨 하나님을 불러 구했던 것처럼, 이제 선지자 역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곡한 애원을 올린다 (이사야 63:15-19).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곧 야곱이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를 알지도 못하고 도울 수도 없다 하더라도, 야웨 당신은 영원히 우리 아버지시요, 구속자이십니다'라는 고백(16 절; 신명기 32:6 참조)은 선지자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17 절의 "야웨여, 당신은 왜 우리를 당신의 길에서 떠나 그릇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이 당신을 떠나 경외하지 못하게 하십니까"는 이사야 6:9-12 의 예언을 상기시켜 준다.

18-19 절("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대적이 당신의 성소를 짓밟았습니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당신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지도 못하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을 이해하기 위하여 땅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가나안 땅, 곧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한 최초의 약속은 (대략 주전 1976 년 경)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다 (창세기 12:7; 13:14-17; 17:8).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영도 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대략 주전 1421-1415 년 경). 사사 시대를 거쳐 사울 왕에 이르기까지 (대략 주전 1401-1026 년 경) 그들은 이방인들과 섞인 가운데 제대로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한 것은 주전 1018 년 다윗이 전(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시온 성을 점령한 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삼하 5:1-10).

주전 945 년 이스라엘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된다. 북왕국은 주전 723 년 앗시리아에 의하여 망하고, 다윗 왕조를 계승한 유다도 마침내 주전 588 년에 바벨론에게 패하여 그 땅은 성전과 함께 불에 타고 그 백성은 유배지(流配地)로 끌려간다. 70 년(주전 591-521 년)이 지나서 유다 지파를 주축으로 한 '유대인들'이 돌아오지만, 이미 이스라엘 땅은 예전보다 훨씬 많은 이방인 인구를 보유하게 되고, 그 사실상의 주인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 나라들이었다. 메시아가 오기까지 페르시아 (주전 521-331 년), 헬라

(주전 331-161 년), 로마(주전 161- 주후 70 년)가 차례로 이 땅의 군주국 노릇을 하였다. 주후 70 년 예루살렘과 더불어 그 성전이 불탄 사건은 유대인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상처로 남아 있다. 주후 1948 년 조상들이 살던 '옛 땅'에 돌아와 독립하기까지 유대인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고난을 맞보아 왔었다.

이상을 통하여 볼 때,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이후 주후 1948 년에 이르기까지 전체 약 3360 년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땅을 차지한 것'은 약 430 년(주전 1018-588 년 사이)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땅에 대하여 약속을 받은 시점부터 계산하면 전체 기간이 약 3920 년이나 되어 땅을 차지한 기간의 비율은 더 떨어지게 된다. 이상의 개괄적 설명이 이사야 63:18-19 에 나타난 예언적 기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는다.

63:18-19 에서 묘사한 상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야웨 하나님을 잊어 버린다. 물론 스스로의 죄로 하나님을 잊고 멀리한 것이다. 그러나 선지자는 '의인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놀라운 일을 행하여 달라고 호소한다 (이사야 64:1-7).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동시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확인시키면서, '주의 백성과 그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한다 (이사야 64:8-12). 오늘날 유대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옛적 선지자의 기도가 서서히 응답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스라엘의 후손 유대인에게 '옛 땅'을 다시 주신 하나님은 머지않아 그들의 마음도 돌리셔서 그들의 왕 예수님을 찾게 하실 것이다.

야웨의 종들을 위한 새 하늘과 새 땅 (65:1-25)

이사야 65:1-7 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스리고 자기 생각만을 따라 패역한 일들을 행하여 그를 격노케 한 '백성'을 언급하고, 아울러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품으신 보응의 결심을 기술하고 있다. 문맥을 통해 볼 때, 1 절과 2-5 절은 다같이 '거스리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묘사하는 듯하다 (표준 새번역 참고). 그러나 2-3 절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때 쓰이는 '암'(אִם)이라는 낱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반하여, 1 절에서는 이방인을 가리킬 때도 자주 사용되는 '고이'(גוי, '나라')로 지칭된 것은 혹시 1 절이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더욱이 칠십인역에 나타난 헬라어 번역문을 따를 경우, 우리는 1 절에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나 그의 은총을 입는 자들'을 보게 된다.

사도 바울은 칠십인역의 해석을 따라 이사야 65:1-2 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10:20-21)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방인'(1 절)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유대인'(2 절)을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다. 바울은 앞서 로마서 9:24-26 에서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 관하여 언급한 호세아의 글(호세아 2:23)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이방인의 구원에 적용시킨 바 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이사야 65:1 을 번역함에 있어서, 아마도 로마서 제 9 장과 제 10 장에 나타난 바울의 해석을 의식하고 그것과 비슷한 뜻이 되도록 옮긴 인상을 준다. 이와 같은 번역이나 해석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칠십인역, 바울, 한글 개역의 번역문 사이에 일치하는 이해 또는 해석의 합법성 여부에 관한 논의는 접어두고, 이사야의 글

히브리어 본문의 문맥에 나타난대로 1 절도 2-5 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긴 '씨'(이사야 53:10 참조), 곧 '야웨의 종들'에게 평화로운 이스라엘 땅을 물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야웨를 버린 모든 자들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사야 65:8-15). 앞서 이사야 3:14; 5:1-7; 27:2-6 에서 이스라엘이 포도원으로 비유되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스라엘은 포도 나무로 비유된다 (8 절). 사람들이 포도즙을 내는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는 잘라내지 않듯이, 야웨께서는 이스라엘을 온전히 도말하지는 않으신다. 11 절의 '갓'(גַּת)과 '므니'(מְנִי)는 고대인들이 행운을 가져오는 것으로 믿었던 '이방신들'이다. 12 절의 '(칼에) 붙이다'('마니티', מְנִי־יָדַי)는 앞절의 '므니'를 조롱하는 투로 하는 일종의 말장난이다. 13-15 절에서는 '야웨의 종들'과 '야웨를 버린 자들' 사이에 임할 대조적인 운명을 묘사하고 있다.

야웨의 종들이 땅을 물려받는 날, '아메이신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어떠한 신의 이름도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65:16).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메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되신 이"로 불린 적이 있다 (계시록 3:14).

이사야 65:17-25 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이사야 66:22; 뱀후 3:13; 계시록 21:1 참조)와 더불어 임할 '새 시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모든 고통과 슬픔은 다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만이 가득한 새 예루살렘, 거기에는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제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을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들의 수명이 길겠고, 그들의 손으로 수고한 바는 그들 자신이 누릴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이 되고, 동물계 또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여기서 묘사하는 내용은 이사야 다른 부분들에서 이미 언급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1:19; 2:4; 4:2-6; 11:6-9; 25:6-8; 32:15-18; 35:1-10; 61:9; 62:5 등 참조). 계시록 21:1-5 에도 이와 유사하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다.

시온의 자녀, 진노의 자녀 (66:1-24)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야웨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 사람이 지은 건물이 어찌 그의 집, 그의 안식처가 될 수 있겠는가? 야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순종치도 않는 악인의 성전 건축이나 종교 의식은 그것이 아무리 모세의 율법에서 명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실 뿐만 아니라 증오하신다 (이사야 1:11-15 참조). 이런 자들에게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하고 마음이 부서지고, 야웨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를 주목하신다. 야웨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로 인하여 떠는 이들이 비록 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조롱당하며 쫓겨나기도 하지만 (마태 24:9; 누가 6:22 참조), 야웨께서는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신다 (이사야 66:1-6)

악인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희생물이 되어 사라지지만, '시온'은 결코 '자녀를 낳지 못하고 외롭게 보내는 여인'(이사야 54:1-3 참조)으로 남지는 않는다. 도리어 이사야 66:7-9 에서 '시온'은 하루 아침에 '이스라엘'이라는 땅과 나라, 곧 많은 자녀를 낳는 어머니로 비유되었다. 하나님이 도모하신 일이기에 이 놀라운 일(이사야 49:19-21 참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계시록 제 12 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여자'는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로서의 시온'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서는 '시온'이 마지막 때의 새 이스라엘을 낳는데 반하여, 계시록에서는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바로 이들 '시온의 자녀들'의 머리가 되시며 '만국을 다스릴 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점이 서로 다르다. 계시록 12:17 에서 '그 여자의 씨(후손)중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동격으로 말한 것이 흥미롭다.

시온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온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을 보고 시온과 더불어 슬퍼하는 자들은 장차 시온의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어미 품에서 젖을 빨며 즐거워하는 아이처럼 시온의 영광과 영광에 동참할 것이다. 여기서도 '시온'은 계속하여 어머니로 비유되고 있다. '야웨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의 원수' 곧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사야 66:10-14).

하나님은 불과 칼로 모든 육체에게 심판을 행하신다. 물론 선민(選民)으로 자처하면서 이방 풍습을 따라 온갖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 역시 이 무서운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 (이사야 66:15-17).

이사야 66:18-21 에서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뼈저리게 체험한 이방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취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는 야웨께 드릴 것을 언급하고 있다. 우선 18 절에서는 '야웨께서 열방과 열족을 모으시고, 그들은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으나, 성경 다른 곳들(에스겔 38:1-39:29; 요엘 3:1-21; 스바냐 3:8; 스가랴 12:9; 14:1-15; 계시록 12:17; 20:7-10 등)에서는 이와 비슷한 예언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에스겔서에 기록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여러 나라와 민족이 한뜻을 품고 이스라엘을 치고자 모이게 되는 것은,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옛땅으로 돌아와 평안히 거하는 중'이 될 것이다 (에스겔 38:8, 14).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나라들을 이끄는 자는 '곡'이다 (에스겔 38:1-6; 39:1). 하나님은 이들을 지진과 온역과 불과 유행 등으로 징벌하실 것이요 (에스겔 38:19-22), 이 일로 야웨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민족들 중 재앙을 피할 자들도 있어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에 대하여는 스가랴 14:16; 스바냐 3:9-10 을 참조할 것), 그들은 더욱 먼 이방 땅으로 가서 자기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열방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릴 것이요 (19 절), 더 나아가서는 열국에 흩어진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예루살렘 야웨께로 데려올 것이다 (20 절). 다시 말해서 심판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이들 이방인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다. 야웨께서는 이들 이방인들 중에서도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이 하나님 가까이서 섬길 이들을 택하실 것이다 (21 절).

이상을 통하여 볼 때에, 이방인의 대대적 회개와 구원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으로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로마서 제 9-11 장 참조). 이방 교회는 마땅히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지켜서 (20 절, 딤후 2:21 참조) '이스라엘'을 그 안에 담아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방 교회야말로 새로 회복될 이스라엘과 더불어 제사장이나 레위인으로 뽑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계시록 1:6 참조).

열방과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거스리는 자들은 멸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존속하듯이, '이스라엘'의 이름과 그 자손, 곧 '시온의 자녀'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스가랴 14:16-21 참조). 한편 악인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마가 9:43-50 참조)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사야 66:22-24). 이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목적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므로, 더 이상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가르는 의미는 없어지겠고, 오직 구속받은 성도만이 하나님을 섬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다. 구원은 오직 야웨 하나님께 있다.

부록 1. 분열왕국 연대기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여로보암 1 세 947-925 BC 르호보암 946-929 BC

나답 926-924 BC 아비얌(아비아)930-927 BC

*바아사 925-901 BC 아사 928-885 BC

엘라 902-900 BC

*시므리 901-900 BC

*디브니 901-896 BC

*오프리 901-889 BC

아합 890-868 BC 여호사밧 886-862 BC

아하시야 869-867 BC

여호람 868-856 BC 여호람 863-856 BC

*예후 857-830 BC 아하시야 857-856 BC

아달랴 857-850 BC

여호아하스 831-814 BC 요아스 851-811 BC

요아스 815-799 BC 아마샤 814-785 BC

여로보암 2 세 800-760 BC 웃시야 800-748 BC

스가랴 761-760 BC

*살룸 761-760 BC

*므나헬 761-751 BC 요담 759-743 BC

브가히야 752-750 BC

*베가 751-731 BC 아하스 744-728 BC

*호세아 732-723 BC 히스기야 729-699 BC

르낙세 699-644 BC

암몬 644-642 BC

요시야 642-610 BC

여호아하스 610-610 BC

여호야김 610-599 BC

여호야긴 599-598 BC

시드기야 598-588 BC

* 표는 새로운 왕조가 다시 시작됨을 가리킴.

부록 2. 시온으로 시온으로

문화와 신앙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지 깊이 고민해볼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독교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오늘날 지상에는 스스로 기독교인임을 자처하고, 또 남들로부터도 기독교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상당수나 된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이나 사는 모습은 아주 다양하며, 일반 비기독교인들과 비교하여 별 차이점을 찾아보기 힘든 기독교인도 허다함을 알 수 있다. 도대체 기독교란 무엇인가?

우리는 여러 부류의 기독교인들을 늘 접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가 일정 기간의 수학을 거친 후 안수를 받아 소위 말하는 성직자로서 살아가는 이,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 교회나 성당에서 집사 또는 장로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이, 성가대원, 교사 등으로 봉사하는 이, 아무런 직책도 없이 그저 주일이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만 건채 교회나 성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 등등 소속감 면에서도 다양하거니와, 천주교, 개신교, 정교 등을 위시하여 그 안의 세부 교파에 이르기까지 교리에 있어서도 다양함을 보게 된다.

이처럼 기독교가 대중화되면서 그리고 다채로운 성격을 띠면서 보여주는 특징중의 하나는 기독교의 문화화라는 현상이 아닌가 한다. 이것은 다시 말하여 기독교가 신앙으로서가 아닌 하나의 종교 내지는 정신 문화로서 탈바꿈하고 있음을 뜻한다. 아직도 한국에는 절에 다니지도 않고 불경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으면서 스스로 불교도인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본다. 서양에서도 이런 현상은 마찬가지이다. 많은 서양인들이 단지 조상의 종교적 유산과 사회적 제도 때문에 스스로 기독교인임을 자처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본질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단지 이미 하나의 문화로 전락해버린 기독교만이 이들의 신분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독자는 아래의 대화 내용을 십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번은 호주에서 온 한 청년을 만나 그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종교를 물었더니 거침없이 기독교인(Christian)이라고 대답한다. 그래서 성경을 믿느냐고 했더니, 그런 엉터리 책을 믿을 바보가 어디 있느냐고 대답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었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한다. 이 청년의 경우가 좀 극단적으로 들릴는지 모르나, 사실상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입장이 그와 다를 바 거의 없다. 정도의 차이일 뿐,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면서 단순히 문화적 유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라는 딱지를 즐겨 붙이고 다니는 것이다.

특별히 지식층중에는 기독교를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보는 이들이 많이 있다. 심지어 신학자들 중에서도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종교 발달사를 설명하는 이들이 많이 있음을 본다. 이런 식의 이해에 따르면, 야웨라는 신은 이스라엘 민족의 창작품에 지나지 않으며, 예수는 야웨 숭배를 가장 멋지게 강론한 종교 선생이 된다.

위에서 말한 경우와는 다르나, 기독교의 문화적 사명을 중시하여 기독교 문화의 확산에 전력을 기울이는 이들도 있음을 보게 된다. 이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

문화 개조 등을 구호로 외치며 사회 전반을 기독교라는 종교 아래 무릎 꿇리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들의 의도가 비록 아름답게 들릴지는 모르나, 이들 역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자리에 있음을 간파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독교는 이 세상 문화의 개선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죄인 구원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그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죄인 구원을 통하여 문화는 개선될 수 있으나, 문화 개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신앙과 인간의 생명이 먼저요, 문화는 부차적인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는 문화와 신앙의 혼동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돈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한 주간예 예배당에 몇 번 다니고, 헌금은 어떻게 하고, 성가대 운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는 모두 기독교의 문화적인 면에 속한다. 신학교 운용을 통한 성직자 양성, 장로 집사 등 제직분에 대한 규정, 심지어 예배 형태 등도 신앙의 본질이 아닌 기독교의 문화적 요소일 뿐이다. 기독교의 문화적 요소들은 시간과 장소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며, 때로는 성령의 뜻에 의하여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다.

한 때는 성전에서 동물희생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하였으나,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린다면 모두들 미쳤다고 할 것이다. 빌립은 집사로서 감히 세례를 베풀었으니 (사도행전 8장 38절) 오늘날 교회 헌법에 의하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예배당 건물 꼭대기에는 반드시 십자가를 높이 세워야 한다는 법도 없다.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정장하여야 한다는 법도 없다. 이런 요소들은 모두 때와 장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들인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점들 중 하나는 문화적인 요소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데 있다. 예배에 얼마나 열심히 출석하며, 교회의 각종 행사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는지, 그리고 헌금은 얼마나 많이 내는지 등의 문화적인 요소들로 신앙의 척도를 삼는 것이 현대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이를 다시 정리하여 말하자면, 현대 교회는 지나치게 조직화되어 그 조직에 대한 열심과 충성도로서 신앙의 척도를 삼는다는 것이다. 교회가 정교한 인간 조직으로 발전할 때 이미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너무나도 치밀하게 정리된 조직과 제도 때문에 교회의 주인되는 예수를 점점 상실하고 있는 듯하다.

기독교의 본질은 그 문화적인 면에 있지 아니하다. 기독교는 사실상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그 지상 목표로 삼는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요소이다. 문화는 그것이 비록 기독교 문화일지라도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으나, 기독교 신앙은 결코 변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을 변경시킴은 바로 기독교의 본질을 망치는 행위나 다름없다.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의 문화적인 요소들에 대하여 관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위에 언급한 것들과 같은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도 관계하지도 말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른 위치에 두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삶의 태도가 바로 참 신앙이요 생명이다.

역사를 보는 두 가지 시각

인간 역사를 보는 눈에는 두 가지 각도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인간 역사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일체의 외부적 힘의 개입을 부정한 채 보는 시각이요, 다른 하나는 그 외부적 힘을 인간 역사에 있어서의 절대적 동인(動因)으로 인정하는 시각이다. 이 외부적 힘은 성경에 야웨 하나님으로 묘사되었다. 그는 인간과 시간(시간은 곧 역사이다)을 창조하고 또한 계속 지어내는 조물주로서, 인간 역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지존자로 등장한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들과 민족들, 그리고 나라들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의 배경에는 반드시 절대적 원인으로서의 하나님이 도사리고 있다. 출애굽 기사에서 마치 모세와 아론이 주인공인듯 하나 실상은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이다. 욥기의 실제적 주인공 역시 하나님이다. 다니엘서 역시 마찬가지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에스더서도 이 사실에서 예외는 아니다. 복음서에서는 야웨 하나님과 더불어 동일한 권능과 영광을 나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사도행전이나 서신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역사를 보는 성경적 시각에 반대되는 다른 시각은 소위 말하는 인문 주의에서 쉽게 뽑아 볼 수 있다. 인문 주의란 쉽게 말하면 인간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래 인문 주의는 타락한 중세 종교로부터의 해방을 기치로 들고 출발하여 종교 개혁이라는 좋은 결실도 보았고, 자연 과학을 비롯한 제학문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그것은 걸음을 잘못 내딛어 하나님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무서운 사상을 인류 사회에 심어주는 결과를 낳았다.

인문 주의는 하나님이란 신을 버린 대신 사실상 이성이라는 새로운 신을 숭배하고자 하는 사상이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위치에 두고 그 이성에 의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고자 하며, 그 이성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본다. 오늘날 제학문의 바탕에는 인문 주의가 깊이 뿌리박고 있어서 이성의 판단에 의한 전제나 증명이나 결과만을 받아들이고, 이성의 영역을 벗어나는 신앙의 영역은 점차 학문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나님을 연구한다고 하는 신학이 점점 좌경화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을 다시 쉽게 설명하자면, 현대 인문 주의 신학에서 이성의 판단에 문제시되는 이적이나 하나님 위주의 역사 이해가 점점 하나님이 제외된 합리적 해석으로 대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학적 해석은 성경의 역사적 사건들을 사실로 받아들일지는 몰라도,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간섭만은 부인하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인위적 해석을 시도한다.

고도로 자유화된 현대 학문의 세계에서는 거의 모든 전제가 인정되지만, 신앙을 기초로한 전제는 가설로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인류와 우주의 생성에 관하여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의 단계를 넘어서 정설의 자리까지 차지하고 오랜 세월을 군림해왔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는 창조론은 종교의 범주 안에 묶어놓고 이를 학문 영역의 가설로서 받아들이는 것조차 제한하여 온 경향이 있다. 신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신앙의 영역에 해당할 뿐, 이를 학문의 전제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터부시하는 것이 오늘날 학문 세계의 현실이다.

하나님을 인류 역사의 절대적 주체로 보는 시각은 믿음이라는 동기에서 출발한다. 만일 이 믿음이 인간 자신의 발상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진정 조물주 하나님이 있어서 그의 자기 계시에 의한 것이라면, 이런 시각이야말로 가장 객관적인 시각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믿음의 눈을 통해 볼 때,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 가장 객관적인 시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통하여 역사를 기술한 이들이다. 선지자나 사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객관이요, 모든 인간적 가치관이나 견해는 주관적인 것이었다.

만일 학문을 수행하는 능력이 이성에만 있는 것이라면, 불행하게도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필자가 간절히 바라는대로 인간 이성이 좀더 겸손한 자세를 취하여 믿음의 세계에 조금이라도 자리를 양보할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 또한 기꺼이 인간 학문의 대상이 되어 주리라고 본다. 그러나 현대 학문이 불신을 이성의 미덕으로 보는 한, 필자는 하나님을 역사의 주체로 보는 시각을 적어도 하나의 가설로서라도 인정해달라고 호소하고 싶다.

필자의 고백에 따르면 이러한 믿음의 시각을 가지게 된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겠으나, 불신의 이성 세계를 위하여 일단 직관적 믿음이라고 이를 부르도록 하자. 필자는 이러한 믿음과 그리고 이 믿음의 자극을 받은 이성의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하는 역사를 기술해보고자 한다. 필자는 선지자도 사도도 아니기에 결코 하나님의 시각을 그대로 대변한다고 자신있게 주장하지는 않는다. 단지 믿음에 기초한 이성, 곧 겸손해진 이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각을 엿보고자 노력했을 뿐이다.

다음 글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기름부음 받은 자)로부터의 해방을 도모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장이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야웨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 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

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

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편 2:1-6).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의미를 오늘날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뉘어진다. 이스라엘을 무조건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 내지는 나라로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견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이후로 그를 믿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치하였다는 해석이 그것이다. 두 가지 견해 모두 일단의 진실과 왜곡을 가지고 있다. 성경을 자세히 그리고 겸허한 자세로 읽다 보면, 때로 이스라엘은 문자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가 하면, 또 신령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로마서 4 장에 의하면 모든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 (롬 4:16). 그리고 에베소서 2 장에 의하면,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던 (12 절)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며,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19 절) 되었다고 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들은 자신을 얼마든지 '신령한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예를 들어 신명기 6 장 4 절 이하의 말씀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웨는 오직 하나이신 야웨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야웨를 사랑하라...") 읽을 때,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문자적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 명령이 순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요, 이방인인 자신에게는 해당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철저히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예를 들어 로마서 9-11 장을 읽을 경우, 거기 여러번 나오는 '이스라엘'을 '신령한 이스라엘' 곧 교회의 의미로 이해한다면 독자는 철저히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로마서 9-11 장의 문맥을 통해 볼 때, 그 안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란 단어는 문자적인 의미로서만 이해하여야 함이 자명하다. 이처럼 성경에 언급되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때때로 신령한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으나, 가능한 한 문자적 의미를 그대로 취할 경우에 성경을 오해함이 없을 것이다.

교회를 신령한 이스라엘이라 하여 현존하는 이스라엘 국가나 유대 민족의 존재를 하나님의 역사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와는 정반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항상 현재의 이스라엘 국가와 유대 민족에게만 연관시켜 해석하여서도 문제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에게 '거침돌'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또는 유대인은 어떤 점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의 장애물 내지는 '눈에 가시'가 되어 온 것이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다. 예수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않았고, 지난 2000 년간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몹시 혐오하였다. 이런 비극적 상황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일부 기독교인들에 의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죄로 저주를 받고 있다"고 구박받아온 유대인들이 2000 년 가까운 유랑 생활 끝에 옛 조상의 땅에 찾아와 다시 나라를 세운 일은

역사의 이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살던 땅에 다시 나라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광대한 아랍 국가들 가운데 조그만 점처럼 박혀 있으면서도 거뜰히 그들의 위협과 침략을 막아내고 있다.

1948년 결코 신생이라 할 수 없는 '신생 이스라엘 국가'의 성립, 1967년 주변 아랍국들과 벌여 옛세만에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끝난 6일 전쟁 등의 역사적 사건은 종래 이스라엘의 존재를 잊었던 많은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다시 불러 들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 연구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재삼 깨닫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 볼 때, 누구든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라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된 배경은 바벨론도 이집트도 로마도 아닌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을 시인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결코 소국도 주변국도 아닌 중심지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으로서 늘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이방 세계로의 복음 전파는 하나님 역사의 중심장을 이스라엘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 듯한 인상을 준다. 예를 들어서 로마 가톨릭은 로마의 중심성을 강조한다. 베드로, 바울 등의 거물급 사도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로마라는 도시와 연관시켜 로마의 중심성을 강조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경향이다. 더욱이 교황을 머리로 하는 종교적 정부인 바티칸이 로마에 들어섬으로서, 로마의 종교적 지위는 더욱 견고해지게 된 셈이다.

개신교도중에는 때때로 자기 나라가 이스라엘의 지위를 전수했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제 2의 이스라엘' 또는 '영적 이스라엘'임을 자처하는 이들이 더러 있다. 우리 한국에도 이런 말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듯 하다. 지난 100여년간 기독교세가 급성장하여 우리 남한에서만 해도 일천만 기독교인을 확보하였으니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하다.

어쩌면 이들의 주장이 결코 그릇되었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것 같다. 기독교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로마로, 유럽 세계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계속하여 불꽃을 일으키며 번져가지 않았던가. 이러한 복음의 확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요 바램이기도 하다. 이방 세계에서 복음이 확산되어 갈 것을 가리켜 성경은 '이방인의 때'(눅 21:24; 롬 11:25) 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 같다. 성경에서 이방인이란 용어는 이스라엘 자손 또는 오늘날의 유대인과 상반된 개념으로 쓰인다. 따라서 '이방인의 때'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잠시 소홀히 대접받는 때'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지난 2000년 간 유대인은 가는 곳마다 푸대접과 학대를 받았다. 그들에게는 나라도 없었을 뿐 아니라, 늘 생존권의 위협이 그들 뒤를 따랐었다. 과거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학대와 침입을 받았던 몇몇 소수 민족의 예를 통해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진작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고, 그 이름 너 자만이 낡은 역사책 속에 남아 있을 법도 하지만, 이스라엘 또는 유대인은 아직도 역사책 속에서만 아니라, 지상 역사의 현장 안에서도 깊은 자국을 남기고 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만 두고라도, 지난 2000년 간 유대인은 지구 구석 구석을 방랑하며 그들의 흔적을 남기었다. 결코 다른 민족과 쉽게 동화될 수 없는 민족, 수천년 해묵은

전통을 버리지 아니하고 고도로 기계화된 현대까지 그 옛날의 짐을 어깨에 메고 살아온 고집 불통 민족, 2000 년의 유랑 끝에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다시 기어 들어와 독립 국가를 세운 그 집념. 하나님이 없다면 유대 민족의 역사는 너무나도 우연한 기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의 이러한 모든 운명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것이라면 독자는 이에 대하여 무어라 말하겠는가? 과연 성경 시대 이후 유대인의 역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가?

신약 성경중 미완성 교향곡으로 끝난 책이 있다면, 바로 사도행전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당시 이방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확산되는 것을 기록하였다. 사도 행전의 기록이 완성된 이후 이방 세계의 중심은 로마에 뒤틀지 아니하고 산넘고 강건너고, 바다를 지나 이미 여러 차례 그 중심축을 옮겨갔다. 지난 20 세기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 역시 쉬지 않고 이방인들을 집요하게 추적하였다. 이 기간 동안 일어난 성령의 사역은 비록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으나, 인류가 사는 지상 위에 날날이 새겨져서 '기록되지 않은 사도행전'을 이루고 있다.

지난 2000 년 간 유대 민족의 역사는 어찌 보면 '기록되지 않은 구약 성경'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으로 시작하는 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상호 관계를 다루고 있다. 그 안에는 약속들이 있고, 축복과 저주가 담겨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딤후 3:16). 사도 행전에 담긴 사건들은 제각기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시간을 거듭할수록 그와 유사한 사건들이 반복될 것이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 불순종은 역사가 지속되는 한 거듭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사도행전이나 구약 성경을 팔만 대장경과 같은 분량의 방서로 만들지 않으셨던 것이다.

미완성 교향곡인 사도행전과 구약 성경 공히 장차 있을 이스라엘의 마지막 구원을 기대하고 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말 4:3)에 '이스라엘의 소망'(행 28:20)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1:26).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자 할 때 맨 먼저 언급되는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지시에 의하여 아브라함으로 개명하였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오늘날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증오하는 아랍인들중 일부의 조상이기도 하다. 오늘날 전쟁의 위험이 가장 짙다고 하는 중동, 이곳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어 사는 곳이다.

아브라함은 과연 누구인가? 지금으로부터 대략 사천년전 아브라함은 지금의 이라크와 쿠웨이트 국경 부근에 위치했던 갈대아 땅 우르라는 커다란 도시에 살고 있었다. 비록 사천년이라는 시간적 격차가 있긴 하지만 우르는 오늘날의 도시 못지 않게 번영하였다. 각종 상업 활동도 빈번하였거니와 문화 정치 활동도 활발하였다. 또 도시마다 따르는 도덕적 부패 문제도 심각하였다. 이 도시에 가득하였던 각종 우상 신은 시민의 도덕적 수준을 높혀 주기는 커녕 오히려 죄악의 심층화를 부채질해줄 뿐이었다.

청년 아브라함은 일찍부터 야웨 하나님을 섬겼다. 그가 어떤 동기로 야웨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우상 숭배자인 아버지와 (수 24:2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늘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의 부친 데라는 노년에 결국 아들의 입장을 따라 야웨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것 같다. 데라가 아브라함과 더불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난 사실이 이것을 입증해 주지 않을까? 하지만 데라는 가나안 땅에는 발을 들여 넣지 못하고 결국 중도에 하란에서 그의 일생을 마치고 만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아무런 불평 없이 길을 떠난다. 당시 그의 여정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비행기도 자동차도 없는 시대, 걷는 것이 아니면 겨우 낙타, 당나귀, 말 따위의 탈 짐승에 의존해야 했던 장거리 여행, 게다가 모든 소유물을 끌고 다녀야 하는 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불평하지 않았다. 비록 그의 기나긴 여정이 도시인으로서의 생활 양식을 버리고 보다 원시적인 유목민으로 탈바꿈하는 것이었을지라도 그는 한 마디 불만의 말을 입밖에 내지 않았다.

야웨 하나님이 아브라함더러 가라고 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다. 가나안 땅에는 비록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같은 큰 도시는 없었으나, 그런대로 큼직한 성읍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었다. 생업은 농업을 주로 하되, 목축업과 약간의 상업 활동이 가미되었다. 우상 숭배 문제는 우르 땅이나 가나안 땅이나 별 다를 바가 없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더러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을까? 결코 답하기 쉬운 물음인 것 같지는 않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그곳서 결코 주인으로서 살아본 적이 없다. 아내의 시신을 묻고자 땅을 사야만 했던 아브라함, 본주민들과의 마찰 때문에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던 이방인으로서의 삶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는 아브라함의 적나라한 모습이였다. 그는 일정한 곳에 집을 짓고 상주한 일도 없었다. 도시 출신인 그에게 천막 생활이란 결코 달콤한 낭만이 될 수도 없었다.

야웨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겠다고 약속하신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발적으로 그와 맺은 것이다. 아브라함은 결코 가나안 땅을 이상향으로 생각해 본일도 없거니와, 이유를 막론하고 그곳으로 이주해 올 생각도 없었다. 아니 어쩌면 가나안 땅은 갈대아 우르의 청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땅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정하셨다. 그가 앞으로 전개하실 중대한 역사의 중심지로 가나안 땅을 내정하신 것이었다. 이제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새로운 역사의 첫 장을 열고 있는 것이다. 그 후 사천년에 걸쳐 이 땅에서 또는 이 땅을 중심으로 일어날 일들을 어찌 아브라함이 상상이라도 하였으랴마는, 그는 단순히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위대한 역사의 문을 열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약 2:23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대하 20:7; 사 41:8), 또는 '하나님의 선지자'(창 20:7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 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 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녕 죽을 줄 알지니라.")라는 칭호로 불리기에 적절한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그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그의 지시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데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가 수 만리 이상이나 떨어진 곳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 내어 머나먼 약속의 땅으로 떠나게 하기에 충분하였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지정학적으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세 대륙이 만나는 지점이요, 동시에 과거 근동 역사에 있어서 북쪽의 메소포타미아와 남쪽의 이집트 양대 강대국이 늘 충돌하던 지점이기도 하였다. 기후 및 지형적인 면에서 볼 때, 인위적인 노력으로 나일강 물을 관개하여 농사짓던 평지의 이집트와는 달리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의 복합체로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지역이었다. 좀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 목줄을 쥐고 있는 땅인 것이다. 하나님으로서는 자기 백성을 훈련하시고자 일부러 이런 장소를 택하였을 법하다.

사천년전 아브라함을 이땅으로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다시 그의 후손을 이곳으로 이끌어 들고 계시다. 유대인, 곧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듣지 못하였는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친히 이 대이동을 주동하시는 것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지금까지 유효한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쯤 유대인의 귀환을 주시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간 일이 우리 인류의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었다면, 사천년이 지난 오늘날 그의 후손들이 옛적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의미있는 일이 아닐까?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 주무대이다. 옛적에 아브라함을 이땅에 불러들여 인류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한 장을 전개하셨던 동일하신 연출자 하나님께서는, 사천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그의 후손을 이땅으로 불러들여 구속사의 새로운 장을 펼치고자 하신다. 지난 2000년간 구속사의 무대는 여러번 자리를 달리하였었다. 그동안 약속의 땅은 세상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었다. 그러나 20세기 중엽 이후로 중동은 세계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풍부한 석유 자원, 기독교화된 서구에 대한 체면을 유지하기에 안간힘을 쓰는 모슬렘의 아랍권, 그리고 그 안에 눈에 가시처럼 박혀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등이 중동의 긴장을 높고조시켜 온 것이다.

이제 한 가지 물어야 할 일이 있다면, 온 세상의 관심이 집중된 이 지역에서 장차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신가 하는 물음이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히브리서 11:8-10).

도망가는 야곱, 돌아오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이란 이름은 명칭 그대로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에서 기원한다. 이스라엘의 본래 이름은 야곱이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뀔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이 개명 과정을 통하여 유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유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이다. 그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기의 쌍둥이 형제와 싸우곤 하였다 (창 25:22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출생 때에도 야곱은 쌍둥이 형제인 에서보다 뒤늦게 나올까봐 안간 힘을 썼다 (창 25:26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하지만 그는 결국 약간 늦게 나왔기 때문에 장자의 지위를 빼앗기고 만다.

야곱의 장자권 탈취 작전은 그의 평생을 통하여 계속하여 전개된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 역시 야곱의 편이 되어, 아니 어떤 면에서는 야곱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야곱의 장자권 탈취를 돕는다. 야곱은 결국 속임수로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다 (창 27:36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번째니이다. 전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하지만 이 일이 결국 야곱 자신의 불행한 운명의 근본 원인이 될 줄이야.

장자권과 그에 따른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계획하자, 야곱은 할 수 없이 외삼촌이 사는 밧단 아람을 향하여 떠나면 도망 길을 떠난다. 잠시만 도망가 있으면 그 어머니 리브가가 부르겠노라고 약속하였으나, 그 잠시가 20 년이나 되어 버렸다 (창 31:41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 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 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 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고향 떠난 도망의 길 20 년은 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다. 야곱은 총 147 년을 산 사람으로서, 130 세 이후 죽기까지 17 년은 이집트 땅에서 (창 47:9,28), 그리고 젊어서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산 것은 이미 언급한대로 20 년에 이른다. 따라서 그의 타지 생활은 도합 37 년으로서 전 생애의 4분의 1 에 해당한다.

만일 외삼촌 라반과 사촌들의 태도 변화만 아니었더라면 (창 31:1-2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은 더 오랜 세월을 아람 땅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들의 태도 변화와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권고로 (창 31:3 "야웨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마침내 환향을 결심하고 이를 실천에 옮긴 것이다.

이러한 배후 동기와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간 야곱의 귀향은 결코 쉬운 걸음이 아니었다. 그로서는 연약한 부녀자들과 어린 아이들, 그리고 각색 가축을 끌고 가야만 하는 떠나면 길의 위험은 그만 두더라도,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형 에서의 해묵은 분노를 대면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고향을 떠날 때 비록 혈혈단신에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으나 (창 32:10), 적어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꿈이 있었다

(창 28:12-15). 그러나 이제 비록 처자들과 수많은 가족떼를 끌고 환향하는 걸음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오직 죽음의 공포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야곱의 두렵고 답답했던 심정은 창세기 32 장에 잘 묘사되어 있다. 야곱은 인간의 수단도 강구해 보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도 하였다. 결국 야곱은 자신의 운명을 내놓고 밤새도록 천사와 싸워 마침내 승리를 얻고야 만다. 이때 야곱이 새로 얻게 되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는 새 이름 그대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이다 (창 32:28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유대 민족의 조상 야곱, 곧 이스라엘은 여러 모로 유대 민족의 역사를 대변해주고 있다. 주후 70년 이후 서서히 고향을 떠나 먼 유랑의 길을 떠난 유대인, 20년이 아닌 2000년의 디아스포라 생활, 디아스포라의 주인 민족들로부터 학대와 박해를 받아 결국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꾀하는 유대인, 다시 돌아와 1948년 고토에 나라를 세우고 평화롭게 살아보고자 하였으나 그 출발시부터 온 이스라엘을 지중해로 쓸어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전쟁을 걸어온 주변의 아랍 국가들. 이 모든 역사적 상황은 그들의 조상인 야곱의 삶에 이미 축소판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출 4:22) 말씀하신 적이 있다. 유대인의 이러한 역사적 운명은 그들이 본래 장자가 아닌 자로서 하나님 앞에 장자의 지위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생긴 역사적 필연이란 말인가? 하지만 야곱의 생애는 야곱으로 끝나지 아니하였다. 그는 죽음과 파멸의 공포 앞에서 하나님과 겨룸으로써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된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는 쉽게 풀리게 되었다. 형에서가 생각과는 달리 야곱, 아니 이스라엘을 형제의 도로써 따뜻하게 맞이해준 것이다.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중 하나인 호세아서는 어느 모로 보나 유대 민족의 역사를 예언적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안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예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야웨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야웨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호 3:4-5). 이 구절을 20 세기의 언어로 바꾸어 말하면 "유대인이 2000년 동안 나라도 없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제사와 예봇은 야웨 하나님 숭배를 대변한다), 우상 숭배도 (주상과 드라빔은 우상 숭배를 대변한다) 하지 않다가, 그 후에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와 비로소 하나님과 그의 왕 메시아 예수를 찾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은총을 입을 것이다"가 될 것이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적성 아랍 국가들에 의하여 완전히 포위되어 있다. 평화와 안전을 바라고 고토로 돌아왔으나, 지난 40여년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과 각종 테러의 공포로 점철되어 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마찬가지이다. 유대인은 지구 어느 구석에 살든지 '반 유대 감정'이라는 골치 거리를 직면하여야 한다. 자,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볼 때가 아닌가? 그의 왕 메시아 예수를 찾을 때가 아닌가? 야곱이라는 낡은 옷을 버리고 참 이스라엘로 변화받을 때가 아니겠는가?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장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호세아 12:4).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의 운명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운명보다 훨씬 파란만장하였다. 야곱의 운명이 스스로 택한 결과였다면, 요셉의 그것은 자신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요셉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다 (창 45:5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아무의 입에서나 나올 수 있는 쉬운 고백은 아니었다. 그것은 원망과 깊은 고뇌 그리고 절망을 극복한 승리의 고백이었다.

요셉은 한 번도 고향을 떠날 생각을 해 본 일이 없었다. 그리고 떠나야 할 이유도 없었다. 그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얼마든지 평안히 가족과 더불어 고향에서 평생을 보낼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꾸는 일련의 꿈과 그에 따른 형들의 시기 때문에 요셉은 기구하게도 원치 아니하였던 방랑의 삶을 시작한다. 그것도 자유인이 아닌 노예의 신분으로서.

대략 17 세 때 (창 37:2) 형들에 의하여 종으로 팔려 이집트에 내려가서 30 세 때 (창 41:46)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으니, 요셉의 종살이와 감옥 살이는 모두 합하여 13 년이 되는 셈이다. 그가 감옥에서 보냈던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2 년은 감옥 살이를 하였음이 틀림없다 (창 41:1). 요셉은 110 세에 세상을 떠났다. 결국 그는 17 세 이후 죽기까지 자기 생애의 대부분인 93 년을 객지에서 보낸 것이다.

우리는 요셉에게서 메시아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외아들이요 (마 17:5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공생애 동안 이스라엘 안에서만 활동하셨다. 예수께서는 열 두 제자를 파견하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마 10:5)고 명하지 않으셨던가? 이처럼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유대인)을 사랑하셨고, 또한 자기 땅을 떠나 타지로 가야 할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디아스포라행이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본 백성인 유대인을 구하기 앞서 이방의 빛으로서 이방인을 구하며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신 것이다. 이 일은 유대인이 예수를 배척함으로써 생긴 결과이다 (롬 11:11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자기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께서 본 백성으로부터는 버림을 당하고 (요 1: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도리어 이방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공생애 초기에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명하신 예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후 승천을 앞두고 복음이 온 천하에 퍼질 것을 미리 말씀하신다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수의 열 두 제자들은 복음 사역 초기에 이방인에 대한 전도를 꺼려하였었다 (사도행전 10 장과 11 장의 고넬료 사건을 참조할 것). 당시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접촉하는 일에 여러가지 장애 요소가 따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애 요인들을 완전히 타개하고 이방으로 향한 첫 사도가 바로 바울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핍박하던 동포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에게로 전향할 때 (행 13:44-48), 그는 이사야 49 장 6 절의 말씀을 들어 자신의 결단에 대한 근거로 삼았다: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장차 자기 백성 유대인을 돌아오게 하여 구하실 뿐 아니라, 이방의 구세주가 되어서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실 것을 의미한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이집트에 팔려가 종살이, 옥살이를 하였으나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이집트 백성과 주변 각국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나중에는 자기의 부모 형제들도 구한 것처럼, 예수께서는 이방도 구하시고 마침내 자기 동족인 유대인도 구하실 것이다. 사 49:6 의 기록에 의하면 '야웨의 종' 곧 메시아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일은 오히려 쉬운 일이다. 그가 이방의 빛이 되셔서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일이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이방인 교회는 우리 이방인의 구원보다 유대인의 구원이 더 힘들다고 쉽게 착각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사실 성경은 그 반대로 말하고 있지 않는가? 지난 2000 년간 예수께서 우리 이방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 우리 이방인들은 이러한 축복을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이러니로 말미암아 그의 본 백성은 지난 2000 년간 그를 버리고 그때문에 결국 메시아가 우리 차지가 된 것이다.

이제 '야웨의 종'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할 때, 우리 이방인 신자들이 그 일을 어렵다 하며 불신하거나 또는 시기하여 방해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는 결국 한때 자기를 버렸으나, 이제 비참한 모습으로 자기에게로 찾아올 자기 동족을 구하실 것이다.

한편 기근을 못이겨 결국 이집트로 요셉을 찾아온 야곱의 아들들처럼 오늘날의 유대인 역시 언젠가는 한때 자기들이 버리고 팔았던 메시아 예수에게로 나아올 것이다. 그날 그들은 메시아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할 것이요,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그의 용서를 구할 것이다.

주전 6-5 세기에 활동하였던 선지자 스가라의 예언은 어느 면에서 보면 형제들에 의하여 팔렸던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연관시켜준다고 볼 수 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하여 '은 이십개'에 팔렸다 (창 37:28). 선지자 스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삼십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야웨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삼십을 야웨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슌 11:12-13). 이 예언은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하여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마 26:15; 27:3-10).

스가라의 예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한다. 그는 메시아께서 자기 형제들(유대인)에 의하여 팔릴 것 뿐만 아니라, 장차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와서 그를 위하여 심히 애통할 것도 예언하였다 (슌 12:10-14). 이 예언 역시 요셉의 사건과 유사하지 않는가?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 땅에 와서 요셉을 처음으로 만난 것은 대략 일곱 해의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되던 해, 즉 요셉이 37 세가 되던 해 이후가 될 것이다 (요셉은 30 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요셉을 팔아버리고 20 년이 지난 후 처음으로 요셉을 대면한 셈이다. 성경은 이 20 여년 동안 요셉의 형들중 유다에게 일어난 일을 요셉의 기사 (창세기 37-50 장) 사이에 삽입하여 (창세기 38 장) 기록하고 있다.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유다는 야곱의 네째 아들이다.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의 소생으로서 '찬송함'이라는 뜻의 유다는 여러모로 다른 형제들과 구별되었다. 형제들이 요셉을 아예 죽여 없애려고 하였으나, 정작 요셉을 죽음에서 구하여 그를 노예로 파는 일로 그치게 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 (창 37:26-27). 유다는 요셉을 판 이후에 자기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사람 중에 거하며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얻고 아들들을 낳아 결국 우여 곡절을 지나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여 쌍둥이 형제를 얻는 비극에까지 이르게 된다. 비록 요셉의 일생과는 달리 짧게 기록된 내용이지만, 창세기 38 장에 기록된 유다의 생애 역시 지난 2000 년간의 유대인 역사를 암시해주는 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한몸에 받던 형제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 야곱의 처절한 슬픔을 지켜봤던 유다는 자신의 참혹한 죄과에 대하여 어느정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였을까? 형제 요셉을 팔아버린 이후로 그의 삶은 창세기 38 장에 기록된대로 아내와 자식을 잃고 그리고 본의 아니게 며느리와 동침하게 되는 불행으로 점철되어 있다. 자기와 형제들이 함께 모의하여 팔아버린 요셉이 고난을 거쳐 이방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올라 영화를 누리는 동안 유다는 온갖 형극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자기들의 왕 메시아를 저버린 유대인의 삶은 지난 2000 년 동안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결국 비극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집트에 내려가 양식을 구입하는 일에 문제가 발생하자 유다는 강경한 발언으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고 (창 43:8-10), 그리고 자기의 신분을 감춘 이집트 총리 요셉 앞에서 간곡한 발언으로써 위기를 모면하고 요셉과의 극적인 해후를 이루게 하는 장본인이 되었다 (창 44:18-45:15). 오늘도 어찌면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 예수께서는 유다와 같이 솔직하게 자기 민족의 비참한 상황을 낱낱이 고백하며 긍휼을 구하는 유대인을 찾고 계실 것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가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창 50:19-21).

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간은 언어의 동물이다. 언어를 통하여 의사 소통을 하고 언어를 통하여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지적 및 정신적 보고를 후대에 남기기도 한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말을 입 밖으로 내놓는다. 그리고 일찍이 문자 언어의 발명과 또한 오늘날 각종 인쇄술 및 대중 전달 매개체의 발달로 말미암아 인간의 언어는 거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다.

예나 지금이나 언어의 홍수 속에서 사는 우리 인간은 일생을 사는 동안 자신에게든 또는 남에게든 많은 약속을 발설한다. 말하는 것이 결코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많은 약속을 내뱉는 것이다. 그러나 약속의 실천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에 의하며 때때로 큰 수고가 따르는 것이기에, 쉽게 이행되지 아니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옛날에 야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굳게 약속하시기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하셨다. 이 약속은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약속이었다. 가나안 땅, 후에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도 묘사된 이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곧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에 있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중대한 요소가 되었다.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은 그 시행 과정에 있어서 여러 차례 위기를 맞이한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무능력이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이 약속에 있어서 수동적인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반역에 의하여 초래된 위기들이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빠져나와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던중 이러한 위기에 직면한 경우들을 성경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중 가장 심각한 위기였다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 두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첫번째 경우는 출애굽기 32-34 장 사이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마침내 모세를 보내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로 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지켜 행할 율법을 주신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40 일 40 야 동안 (출 24:18) 율법을 받는 동안 산 아래 진을 치고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아론에게 압력을 가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가리켜 '애굽 땅에서 자기들을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면서 숭배하였다.

이 일은 하나님의 큰 진노를 촉발한 사건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뻔하였을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다. 대노하신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출 32:9-10).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허물어 버리시고 모세와 단독적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것이었다.

이 위기는 마치 모세의 간곡한 호소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모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경에 묘사되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야웨께 구하여 가로되, 야웨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으로 이르기를 야웨가 화를 내려 그 백성으로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웨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출 32:11-14).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 두번째 사건은 민수기 13-14 장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이 경우 역시 위의 사건과 비슷한 면을 보여준다.

바란 광야에서 출발하여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열 두 정탐군의 보고가 있을 후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 거인들이 산다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들에게 죽음을 당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이들 회중과 열 두 명 중 열 정탐군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회중은 정탐에 참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과 좌절에 사로잡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을 돌로 치려고 든다.

이때 야웨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민 14:11-12).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이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이 위기 역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마치 모세의 간곡한 호소와 중재로 그 해결을 보게 되는 인상을 준다.

위의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불신과 반역 때문에 폐기될 뻔 했던 위기를 잘 보여준다. 두 위기 공히 모세라고 하는 중재자에 의하여 무마된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묘사된 사람으로서 (민 12:3),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나의 온 집에 충성되다"는 칭찬을 들은 사람이었다 (민 12:7).

결과적으로 위의 두 위기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깨지 못하였다. 모세의 간곡한 중재와, 그리고 모세가 호소했던 하나님의 '인자의 광대하심' (민 14:19) 때문에 언약이 새롭게 갱신된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죄 때문에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중재자의 간곡한 호소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를 모면하게 된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의 자비 못지 않게 하늘에 높아서, 반역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 40년 생활을 통하여 하나 둘 썩어져 자기들의 출처인 흙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위기와 그에 잇따른 사건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재삼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인간에 대한 그의 약속이 결코 변개할 수 없는 것임을 잘 드러내준다고 하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지 2000 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 곧 구원(롬 11:26)을 기다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오늘날의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유대인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메시야의 도래와 메시아 왕국의 건설을 위하여 선정되고 예비된 민족인 것이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그들 중에 오셨을 때, 일부 유대인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부인함을 보게 된다. 이러한 사실이 일부 이방 기독교 신학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의 의미가 이미 끝났고 교회가 유대인의 임무를 완전히 대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게끔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주장 속에 일말의 진리가 있음은 사실이나, 이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구약 박물관'의 소장품에 불과한 것이다.

과연 이들의 주장이 100% 옳은 것일까?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 운운하며, 현존하는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를 구속사적 의미에서 아예 무시하는 이들의 주장이 어찌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유대인에 대한 은근한 질투와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일찍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 뿐 만 아니라 땅 위의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에 분명히 묘사되어 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 12:2-3). 이런 점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더 나아가서 그의 자손 유대인을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날 불신의 유대인을 위하여 기도할 의무가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항상 영원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시점을 통하여 굳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뚜렷하게 금긋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유대인의 선택의 단절 운운하는 것이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신실한 기독교인들에게 구태여 유대인의 존재를 강조해야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유행하는 이러한 그릇된 풍조 때문이다. 과거 이스라엘 자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백성의 불신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행하셨던 이스라엘의 야웨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또한 메시아 예수님을 불신하고 거스리는 이 백성 유대인을 끝내 구원하시고야 말 것이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출 33:13).

홀로 사는 민족

한때 고독을 즐긴다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으나, 실상 인간은 누군가의 말대로 사회적 동물인지라 고독을 싫어하는 존재라고 하겠다. 그렇지 아니하고야 어찌 죄수를 일반 사회와 격리시키는 감옥이 형벌의 장소가 될 수 있겠으며, 그중에서도 독감방에 두는 것이 중한 형벌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고독 내지 고립은 때때로 지적 및 정신적 성장에 아주 중대한 요인이 됨을 경험하게 된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실중의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립 내지 격리이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더러 그가 태어나 자랐던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고 명하신 일은 달리 보면 아브라함을 그의 혈연 및 지연적 뿌리로부터 격리시키고자 함이었다. 아브라함은 순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뿌리를 끊어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는 새로운 삶의 과정에 들어간다. 그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독특한 삶의 자세 때문에 자칫 희생이 될 뻔했던 위기를 겪은 바 있으며 (창세기 22 장), 나이 마흔이 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조처를 기다려야만 했다 (창세기 24 장; 25:20). '들에서 배회하는' (창 24:65) 이삭의 모습은 그의 고독을 대변해주는 듯하다.

야곱의 일생 역시 그의 고립 과정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쌍둥이 형 에서와의 마찰로 사랑하던 부모와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야곱, '에서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만 외삼촌 집에 피하여 있으면 곧 사람을 보내어 야곱을 불러 오겠다'(창 27:44-45)는 어머니 리브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20년 험한 세월을 객지에서 보내야만 했다. 그뿐이던가? 딸 디나의 일로 주변 거민들을 더욱 경계하며 살아야만 했던 일 (창세기 34 장), 더 나아가서 야곱은 애지중지하던 아들 요셉마저 잃게 되어 그의 슬픔과 고독은 극에 달하게 된다: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창 37:35). 그는 자그마치 20년동안 요셉이 죽었다고 믿으면서 속아살게 된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요셉의 삶 역시 고독의 과정을 보여준다. 열 일곱의 꽃다운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 먼 타국으로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요셉, 애매한 누명으로 인한 수년간의 감옥 생활 등은 그의 고독과 고난을 잘 설명해준다. 요셉은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이집트 여자와 결혼하여 자식을 얻은 다음에야 그의 고독을 어느 정도 삭힐 수가 있었다. 그러기에 첫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고백하며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불렀던 것이다 (창 41:51). 하지만 그의 고독은 잠시 잊혀졌을 뿐이지, 영원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요셉은 죽음에 임박하여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고 친족들의 다짐을 받은 것이었다 (창 50:25).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으로 민족다운 형태를 이룬 것은 그들이 모세의 영도하에 이집트를 빠져나와 광야에 이르렀을 때였다. 이집트에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 이르는 가장 가까운 길은 '블레셋 길'이라고 불렀던 시나이 반도 북쪽 지중해변의 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광야 길로 그들을 인도하신다 (출 13:17-18).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타민족과 접촉하여 충돌(전쟁)하기 전에, 그들을 별도로 고립된 장소에 모아서 특별한 훈련을 시키고자 하셨던 것이다. 민족의 영웅 모세의 개인적인 생애에 있어서 일정기간 미디안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것처럼 (행 7:23, 29-30; 출 7:7),

이스라엘 자손 역시 40 년의 광야 생활은 그들이 하나의 선민으로서 발돋움하는데 필연적인 기간이었는데도 모른다.

일찍이 메소포타미아의 브돌 사람 (신 23:4) 발람은 모압왕 발락의 부름을 받고, 광야에 진을 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러 산에 오른 적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입에 주시는 말씀 외에는 한 마디도 할 수 없다'는 자신의 말대로, 발람은 이스라엘 자손을 높은 곳에서 바라보며 말하기를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고 하였다 (민 23:9). 어찌보면 발람의 이 예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을 한 마디로 가장 적절하게 나타내준 표현이라고 하겠다.

발람이 지적한 바, 이스라엘 민족의 고립성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 곧 유대인의 지난 2000 년 역사 가운데서도 잘 입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대인들은 지구 위 어디를 가든지 현지에 사는 족속과 어울리지를 못한다. 겉으로는 어느 사회에든지 잘 적응하여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도 오르고 웬만한 경제력도 갖추는 것 같지만, 내면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철저히 타민족에의 동화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종교 전통과 문화 유산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집하며 사는 것이 유대인의 특성이라고 하겠다.

소수 민족으로서 자신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절대 다수 민족에의 동화를 거부할 때 간혹 생기는 불행한 일이 바로 미움과 질시와 더 나아가서는 핍박 및 민족의 집단 학살이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유대인처럼 이러한 비극을 강도깊게 당한 다른 민족이 없다는 사실은 바로 이웃에 동화되지 못하고 자신의 것을 고집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생활 방식을 영위해나가는 그들의 근성이 얼마나 뿌리깊은 것인지를 잘 드러내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유대인의 고립성은 어느정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끌어내어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변 이방 민족의 삶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다. 그리하여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라는 명령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지켜 행할 율법을 주신다. 하나님은 당시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였던 세대에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셔서 따로 불러 내시고 그들에게 독특한 율법을 주시어서 주위의 타민족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하신 것이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야웨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레 19:2)는 명령은 비단 광야 생활을 다룬 레위기의 주제일 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심도깊게 흐르는 주요 사상중의 하나이다. 후기 왕국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형식에만 치우친 '거룩함'을 신랄하게 비난하신다. 하루하루의 삶에 아무런 반영없이 지나치게 가식적이고 종교화된 '거룩함'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룩함'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외식, 가증'이라는 것이었다.

지난 2000 년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지기 전부터 이미 유대인들은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자신들의 독특한 생활 방식을 통하여 주위 민족들에게 색다른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좋건 나쁘건 간에 큰 영향을 미쳐온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도 여전히 유대인은 지상 어느 민족보다 더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소유하며, 타민족의 구설수나 미움의 대상으로서 쉽게 오르내림을 보게 된다. 오죽하면 일찍부터 '반유대 감정'이라는 표현이 서구 사회에 퍼졌겠는가.

유대인 역사의 독특성은 간접적이거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 계시며,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공상이나 허구가 아닌 진정한 사실임을 입증해준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유대인은 역사의 마지막 시점까지 '열방 중의 하나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홀로 처하는' 민족으로 남을 것이다. 유대인을 선택하시어 그들을 격리시킨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조물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기에 그들의 독특성이나 모험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기분나쁜 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일찍이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으로부터 구별하여 내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 다시금 그들을 부르시고 모으셔서 그들을 위한 대대적인 구원 작업을 펼침으로써 또 한 번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기에 발람은 고백하기를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고 하였다 (민 23:10).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야웨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민 23:9).

롯의 새 고향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은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된다. 메시아란 다른 말로 간단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시 2:6)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제 1 장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의 모친 마리아를 제외하고 모두 네 명의 여인이 등장한다. 이들 네 여인중 적어도 셋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다. (밧세바는 헛 사람 우리아를 남편으로 두긴 하였으나, 아버지 이름이 순수한 히브리 이름인 '엘리암'인 점을 보아 그녀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을 것이다: 삼하 11:3 참조.) 이들 세 이방 여인은 일찍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선택에서 제외된 이방인이 어떻게 다같이 메시아 안에서 하나가 되는지 암시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첫번째 여인은 다말이다. 야곱의 네째 아들인 유다는 다말에게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다말은 유다의 아내가 아니라 그의 며느리이다.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 중에 살며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가나안 여자 다말을 며느리로 취한 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악을 행하여 죽임당한 일, 남편을 잃고 후사를 세울 의무가 있던 시동생마저도 잃고 과부로서 기다리며 어서 속히 막내 시동생을 통하여 죽은 남편의 가계를 이으려던 다말의 갈망,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의 속셈을 알아채고 편법을 써서 시아버지와 동침하여 자식을 얻어내는 다말의 행동 등은 창세기 38 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두번째 여인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때 등장하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다. 그녀는 자기 집에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을 도와 그들의 목숨을 살려준 댓가로 여리고성이 패망하는 날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행운의 이방 여인이었다. 라합의 행운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사를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웨를 '상천 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수 2:8-11) 행동한 신앙의 댓가였다. 그녀는 후에 유다 지파의 두령이었던 나손(민 1:7)의 아들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는다.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는 대제사장 아론의 아내이다 (출 6:23). 이처럼 라합이 혼인한 살몬은 유다 지파중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다. 아마 살몬은 라합의 도움을 받았던 두 정탐꾼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롯은 모압 여인으로서, 일찍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어 과부가 되었으나, 위에 언급한 살몬의 아들 보아스와 재혼하여 라합의 며느리로 들어온다. 이로써 한 집안의 시어머니 며느리가 고스란히 이방 여인으로 채워지게 된 셈이다. 롯에 대하여는, 구약 성경중 그녀에 대한 기록이 한 권의 독립된 책으로서 할애될 정도로 중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으므로, 상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롯이 속하는 모압 족속은 그들의 조상인 모압에게서 유래되는 명칭이다. 모압은 소돔 고모라가 망한 후 죽음을 모면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롯 자신의 큰 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창 19:37).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그들을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그들을 저주케 하려 하였었다' (신 23:4). 에돔 사람이나 이집트 사람의 삼대 후 자손은 야웨의 총회에 허용된 데 반하여 (신 23:7-8), 모압 사람은 롯과 그의 작은 딸 사이에 태어난 벤암미(창 19:38)의 후손인 암몬 사람과 더불어 '십대뿐 아니라 영원히 야웨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못박음으로써

(신 23:3), 십대 이후에는 야웨의 총회에 들어오도록 허용될 수 있는 사생자보다도 (신 23:2) 못한 대접을 받은 셈이다.

룻은 이러한 명령이 떨어진지 불과 네 세대도 지나지 않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다. 물론 룻은 여자였기 때문에 남자 보다는 쉽게 야웨의 총회 곧 이스라엘 백성의 틈에 끼여 들어가기 쉬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가 모압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일 또한 간단한 일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여인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 1:16)라는 굳센 다짐과 고백으로 야웨의 총회에 대한 그녀의 집념을 굽히지 아니하였다. 시아버지도 남편도 없고 시동생도 없던 룻이 야웨의 총회에 들어가기를 바란 것은 결코 남자에 대한 애착 때문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다. 보아스는 룻의 이러한 집념을 간파하고 "야웨께서 네 행한 일을 보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웨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룻 2:12)는 말로 그녀를 축복할 뿐 아니라, 후에 친히 그녀를 아내로 취하여 자신의 축복을 현실화시킨다.

보아스와 룻의 이러한 관계는 후에 유대인 예수님과 로마인 백부장 사이에 있었던 일에서 그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여도 자기 하인이 낫겠다'는 백부장의 믿음을 기이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칭찬하신 예수께서는 연이어 말씀하시기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고 하시었다 (마 8:10-12).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많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버림을 당하는 반면 도리어 이방인 중에서 많은 이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리라는 뜻이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또한 염두에 두셨다. 아니, 이스라엘을 택한 그 일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 뿐 아니라 또한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문을 열어두기 위하심이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선택에 있어서 시간적 한계선을 그어 둘 이유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택함'이라기 보다는 '칭함'이라고 표현함이 더 적절할 것이다 (마 22:14. "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옛적에 보아스를 통하여 모압 여인 룻이 진정한 의미에서 야웨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유대인 이방인을 막론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일과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이방 교회를 세우신 일은 결코 서로 대치되는 일은 아니다. 이러한 일은 모든 일을 순서대로 질서있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한 결과이다.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라의 본 자손들' 곧 유대인들중 대부분이 자기들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옛날 이방 여인으로서 야웨의 총회에 들어와 '현숙한 여인'이라고 (룻 3:11), 그리고 '외로운 시어머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라는 (룻 4:15) 칭찬을 들었던 룻과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께 신실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본 백성 유대인의 칭찬을 들으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시기의 대상이 될

것이다 (롬 11:11.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야웨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 1:16).

이스라엘 자손의 분산과 회복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역사를 통하여 분산과 회복이 연속되는 과정을 겪는다. 지난 2000 년간 유대인이 나라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 고토로 돌아와 나라를 세운 일은 인류 역사상 특이한 사건으로서 만인의 주목을 받는 일들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유대인의 분산을 가리키기 위하여 '디아스포라'라는 헬라어 단어가 서구의 여러 언어에서 굳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게 된다. 유대인의 역사에 있어서 더욱 놀라운 일은 그들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출발하는 시점에 이미 그들의 분산과 회복에 대한 분명한 예고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레위기 26 장은 야웨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각종 규례와 계명을 주신 후, 그들이 그것을 지킬 경우와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우선 3 절 이하 13 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경우 내리실 축복을 나열하고 있다. 이 축복들의 내용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레 26:12)는 약속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치 아니할 경우 받게 되는 재앙에 관하여는 14 절 이하 39 까지에서 더욱 길게 서술하고 있다. 이 재앙은 계속되는 불순종에 대하여 일곱 배씩 가중되어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열방 중에 흩어지고 그들이 약속으로 받은 땅은 황무하여 안식을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열방 중에서 당할 온갖 환란으로 인하여 기진맥진 쇠잔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나 레위기 26 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불순종과 그에 따른 재앙으로 인하여 거의 망해가는 장면에서 멈추지는 않는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할 재앙들에 연이어 40 절에서 46 절에 이르기까지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여, 그 약속의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리고 그 땅의 본 주인이 이방 땅에서 형벌을 순히 받은 후에 그 땅을 다시 권고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신명기는 책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재선포하고 약속을 재다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다 반포한 후에 마지막으로 그들이 장차 야웨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그 결과로서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신 31:29)고 분명히 예고하고 있다. 그에 대한 증거로서 모세는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 총회에게 끝까지 읽어 들려 주라고 명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운명을 예고해주는 이 노래는 신명기 32 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중 몇절을 살펴보자.

26-27 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야웨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였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을 벌하셔서 열방중에 흩으시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완전히 박멸하지는 아니하시고 어느정도 보류하시겠다는 것이다. 이 노래가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에 따른 환란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구절에 있어서는 큰 소망의 즐거움을 촉구하고 있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죄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신 32:43).

하나님이 '야곱의 남은 자'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소망은 이사야의 예언에도 점철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가 베들레헬에서 탄생할 것을 예고했으며(미 5:2),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미가 역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조상에게 행하신 언약을 들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미 7:18-20). 미가서는 이 눈물겨운 호소로서 그 끝을 장식한다.

구약 선지서중 모세 오경의 레위기와 아주 비슷한 성격의 기록을 많이 담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에스겔서이다. 에스겔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 중에 흩어져서 온갖 환란을 만날 것을 누누이 역설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겔 5:12 에 기록되기를 "삼분지일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삼분지일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삼분지일은 내가 사방에 홀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하였다. 겔 5:10; 12:15; 17:21; 22:15-16 등의 구절들도 모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 흩으실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에스겔 역시 이스라엘 자손의 분산에서 그 예언을 멈추지는 아니한다. 그의 예언에서도 역시 이스라엘 자손의 회복이 거듭되어 강조됨을 볼 수 있다. 우선 이스라엘 자손이 '열방 중에 흩어질 때에 이방중에 남아 있는 자가 있을 것'이요 (겔 6:8), 하나님은 이들을 모아 옛적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실 것이다. 이들중 몇몇 구절을 열거해보기로 하자.

겔 11:17 "주 야웨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 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겔 20:41-42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들일 때에 너희가 나를 야웨인줄 알고."

겔 28:25 "나 주 야웨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토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겔 36:24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방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겔 38:8 "여러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 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주전 723 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주전 588 년에 남왕국 유다가 망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은 약속의 땅에서 나라를 이룬지 처음으로 분산의 운명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때의 분산은 결코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 대대적인 분산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주전 6 세기 페르시아

왕국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제국내에 흩어져있던 유대인들은 예레미아의 예언대로 자기 땅으로 귀환하고 비록 외세에 종속 내지는 의존하지만 그나마 어느정도 나라의 형태를 이루고 500년 가량 자기 땅에 거하게 된다. 이 시기의 말기에 예수 그리스도 곧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께서 그 땅에 오신다 (단 9:24-26 을 참조).

그러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 '이스라엘의 회복'은 주전 6 세기의 귀환을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먼 산을 바라볼 때에 몇 개의 봉우리들이 그들 사이에 있는 골짜기들의 거리에 상관 없이 다같이 같은 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때때로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처음 강림과 마지막 강림을 겹쳐서 묘사하기도 한다. 이스라엘의 회복 또한 마찬가지이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등을 통하여 지난 시대의 한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의 진정한 회복의 기초를 마련하셨으며, 장차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 가서는 '그 운명의 민족'을 다시 그들의 고토에 모으시고 진정한 회복 작업을 펼치실 것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 일이 지나서 하늘로 올라 가신던 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라는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께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대답하신다 (행 1:6-8).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질문한 제자들이나 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하신 예수님 모두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적인 사실로 간주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것은 메시아의 초림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이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고 하겠다. 단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보다 시기적으로 더 긴박한 일, 곧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을 강조하셨던 것이다.

이방인이 복음의 빛에 노출되어 복을 누리는 '이방인의 때'가 '이스라엘의 회복'보다 앞선 일이기에, 예수께서는 주후 1 세기에 살다가 갈 제자들에게 위와 같은 명령을 내리신 것이다. 지난 2000 년 동안 이방 교회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때와 기한'에 대하여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아니하였다. 그동안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을 받고 복음 전파에 힘쓴 성도들은 자기 상급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20 세기에 들어와 이스라엘 국가의 성립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다. 지금도 열방 중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하나둘 옛적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땅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 왜? 하나님이 '자기 권한에 두셨다'고 하신 '그 때와 기한'이 차가고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읽고자 하는 이는 또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것이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멀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야웨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레 26:42-44).

참고 문헌

- Archer, G.L., Jr.. *A Survey of Old Testament Introduction*, Chicago, 1965.
- Baron, David, *Types, Psalms, and Prophecies*, Jerusalem, 1978 (1924).
- Childs, B.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1979.
- Delitzsch, F., *Biblical Commentaries on the Prophecies of Isaiah* (tr. J. Martin), Edinburgh, 1910 (독일어 원판은 1869년 출간).
- Driver, S.R., *An Introduction to the Literature of the Old Testament*, 9th ed., Edinburgh, 1913.
- Eichhorn, J.G., *Einleitung ins AT*, Leipzig (2nd ed.), Leipzig 1787 and Reutlingen 1790; 3rd ed.: Leipzig 1803; 4th ed.: Göttingen 1823.
- Faulstich, Eugene, *History, Harmony & the Hebrew Kings*, Spencer, Iowa, 1986.
- _____, *History, Harmony & Daniel*, Spencer, Iowa, 1988.
- _____, *History, Harmony, The Exile & Return*, Spencer, Iowa, 1988.
- _____, *Biblical Chronology From God or the Devil?*, Spencer, Iowa, 1988.
- _____, *Egyptian Chronology & The Torah*, Spencer, 1989.
- _____, *Bible Chronology and the Scientific Method*, Spencer, Iowa, 1990.
- Goshen-Gottstein, M.H., *The Book of Isaiah - Sample Edition with Introduction*, Jerusalem, 1965.
- Gray, G.B.,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Isaiah I-XXVII,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burgh, 1980 (초판 1912).
- Jocz, Jacob, *The Jewish People and Jesus Chris*, London, 1954.
- Josephus, *The Works of Josephus* (tr. by W. Whiston), Peabody, MASS., 1992.
- Juster, Daniel, *Jewish Roots*, 1986.
- D. Juster & K. Intrater, *Israel, the Church and the Last Days*, 1990.

Kaiser, Otto, *Isaiah 1-12, Old Testament Library* (tr. J. Bowden), 2nd ed., London, 1983.

_____, *Isaiah 13-39, Old Testament Library* (tr. R.A. Wilson), London, 1974.

Keil, C.F.,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2 vols. (tr. G.C.M. Douglas), Peabody, MA, 1988 (초판, 1869).

Kutscher, Eduard Yechezkel, *The Language and Linguistic Background of the Isaiah Scroll*, Jerusalem (Hebrew), 1959.

Lohse, Eduard, *Die Texte aus Qumran: Hebräisch und Deutsch*, München, 1971.

Pritchard, James B. (ed.), *Ancient Near Eastern Texts* (3rd ed.), Princeton, 1969.

Santala, Risto, *The Messiah in the OT*, Jerusalem, 1992.

_____, *The Messiah in the NT*, Jerusalem, 1992.

Saphir, Adolph, *Christ and Israel*.

Stone, Michael E. (ed.), *Jewish Writings of the Second Temple Period: Apocrypha, Pseudepigrapha, Qumran Sectarian Writings, Philo, Josephus*, Van Gorcum, Assen, 1984.

Swete, Henry Barclay,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in Greek*, 2nd ed., Cambridge, 1902; revised R.R. Ottley, 1914.

Thiele, Edwin R., *The Mysterious Numbers of the Hebrew Kings* (new revised edition), Grand Rapids, Michigan, 1983.

Watts, J.D., *Isaiah 1-33: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24, Waco, Texas, 1985.

_____, *Isaiah 34-66: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25, Waco, Texas, 1987.

Westermann, Claus, *Isaiah 40-66, Old Testament Library* (tr. D.M.G. Stalker), London, 1970.

Wildberger, Hans, *Isaiah 1-12: A Commentary* (tr. T.H. Trapp), Minneapolis, 1991.

_____, *Isaiah 13-39: A Commentary* (tr. T.H. Trapp), Minneapolis, 1991.

_____, *Isaiah 40-66: A Commentary* (tr. T.H. Trapp), Minneapolis, 1991.

_____, *Isaiah 67-69: A Commentary* (tr. T.H. Trapp), Minneapolis, 1991.

「유대인의 보고(寶庫)」, 전주대학교 출판부, 1997.

김 경래, 「유대인 예수」, 도서출판 대장간, 1991.

_____, 「구약성경의 맥을 따라서」, 도서출판 대장간, 1997.

_____, 「사본들을 통해 보는 성경」, 전주대학교 출판부, 1997.